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칼럼

건축학교육인증, 등록원과 정부의 사업자 단체 정비지침

시론

사람이 살만한 아파트 마을

회원작품

클레이아크 감혜 미술관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서울 광진 우체국청사

작품노트

PROGRAM과 SURFACE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04

자재정보

28

35

42

건축사

korean architects

치레 2006 05 445호

칼럼	건축학교육인증, 등록원과 정부의 사업자 단체 장비지침
건축만평	
사론	사람이 살 만한 아파트 마을
회원작품	클레이아크 김혜 미술관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서울 광진 우체국청사
작품노트	PROGRAM과 SURFACE
계획작품	금강하이테크밸리 중문퍼시픽랜드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설계경기	서울시청사 증·개축 단기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기획연재	압제자들의 건축
기고	전시회의 참가목적과 준비... 현대르트 바서의 환경과 건축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보고서 건축인터넷정보 통 계 해외잡지동향 자재정보

건축학교육인증원, 등록원과 정부의 사업자 단체 정비지침

Architectural Education Accreditation, Registration,
and the Government's Policy in Consolidating Business Associations

WTO가 UIA를 국제 수준의 건축사 조직으로 공인한 후, UIA 북경총회가 “건축실무에 있어 전문인의 국제기준 권고안에 대한 UIA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우리 건축계도 이에 맞는 건축사교육제도를 스스로 채택하여 교육한지가 벌써 5년째로, 내년이면 5년제 건축학과와 첫 졸업생이 탄생하게 된다. 이 같은 자발적인 학교의 발 빠른 대처와 달리, 이를 선도하고 뒷받침해야 하는 건축학교육인증원은 행정당국과 건축3단체인 FKA의 느슨한 대처로 05년 2월에야 뒤늦게 건교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발족하게 되었다.

그간 인증원은 지난 1년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인증에 필요한 제 규정의 정리, 각 분야별 위원의 선임, 인증학교의 신청 접수 및 상담 그리고 관련 세미나 개최 등 많은 일들을 해왔다. 또한 금년 6월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인증원 설립 회원국협의회에는 3명의 위원을 파견하여 공동운영방안과 국가간 상호인증 절차 등을 협의할 예정이며 8월부터 기 신청한 학교에 대한 인증작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확실한 법적 뒷받침이 미약한 탓에 위상 정립과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필자는, 인증원의 원장 및 각 위원 등 인적구성은 지금과 같이 건축사, 건축학과 교수 등 민간인들로 구성되어야 하나, 인증원 자체는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인증원이 법적으로 보장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용기금도 정부예산으로 충분히 확보되어야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민간단체로서 건교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산 또한 건축사협회의 3,000만원을 비롯한 3단체의 5,000만원을 출자금으로 시작하였으나 1년간의 경상비로 모두 고갈된바, 현재 FKA와 메이저 건축사사무소 및 건설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원을 선도한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린다.

물론 인증원이 계속 이러한 지원에 의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인증 실사를 시작하면 인증료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고 이로써 경제적인 자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당해학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청학교의 과다에 따라 그 수입은 기복이 심함으로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또한 인증원의 임무가 UIA규정에 맞는 인증사업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기에 충분한 국가예산의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인증원은 인증업무를 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고 이의 개선책을 강구하며, 한국적인 특성을 감안한 대안 등도 만들어 이를 UIA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연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연구용역,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야 하며 세계 각국 특히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많은 중국, 일본 등 3국간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유대강화 및 공동보조가 필요하다. 상기한 일들을 원활히 수행하려면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가가 설립하여 유일한 권위와 더불어 이 모든 것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운용기금이 국가에

각종단체가 공익성을 근거로 국고보조를 받는 현실에서
건축교육학인증원의 국가기관화나 국가예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건축학교육인증원과 건축사자격관리위원회가 신설된 본 협회의
건축사법 개정안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산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대로 지속될 경우에도 국가예산의 지원은 필수이며 보다 명확한 설립근거를 건축사법 등에 명기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소비자 단체나 관련단체 등이 공익성을 근거로 막대한 운용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대계를 위한 본 인증원의 국고보조는 너무나 당연한 사안이다.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법 개정안에, 상기한 인증원의 설립근거를 14조2항으로 신설한 것은 시의 적절한 조치이다. 또한 만시지탄이긴 하나 향후 건축학교육의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 건축사자격시험을 위한 실무수련에 관한 사항, 건축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 건축사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외국건축사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룰 건축사자격관리위원회를 8조2항에 신설한 것도 반드시 국회 통과를 이루어 내야할 사항이다.

이는 대한건축사협회가 대한건축학회에 용역의뢰한 건축사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의 내용에 있는 등록원과 이름만 틀릴 뿐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독립된 기관이 되느냐 아니면 현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성, 효율성 등에서 대단히 큰 차이를 가져온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를 위탁업무로 행하여야 할 당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에 이미 연수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그것이 현행 UIA가 규정하는 정도로 체계화되거나 다양화하진 못했다하더라도 경험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둘째, 대한건축사협회는 유일하게 전국적인 조직과 사무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도단위로 사무국을 가지고 있으며 시·군단위에도 업무기능을 하는 분회조직이 되어 있는 점이다.

셋째, 기술자 등록업무,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 건축사보 신고 접수,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의 업무수행 신고접수, 건축사자격시험 및 예비시험 관리업무 시행 등 이미 정부의 수많은 수탁업무를 10여 년 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객관적인 업무능력이 입증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볼 때 굳이 등록원을 별도로 만들어 옥상옥의 형태로 건축사들의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축사협회와의 중복된 일들로 인한 혼란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는 사업체단체 정비지침을 각 부처에 하달하였다. 내용인즉 각 부처가 사업자단체에 대한 법적지위 제공과 정부 업무 위탁으로 단체를 중심으로 한 카르텔, 가격담합 등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단일협회의 설립을 강제하거나 설립조건을 까다롭게 규제하여 이해관계의 자유로운 표출을 저해하고 사업자단체에 대한 회원의 선택권을 불허함으로써 과중한 회비부과 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사자격관리위원회에 명기한 건축사의 등록과 교육은
美·英 등과 같이 이미 검증된 대한건축사협회에 위임해야
국무조정실의 사업체단체 정비지침은 옥석가리는 지혜 필요
당해 국가기관은 건축사협회의 충정어린 주장과 법 개정애 귀 기울여

이들의 정비원칙은 사업자단체에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정부기능으로서의 존치여부, 위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업무나 위탁을 축소하고 사업자단체의 설립에 필요한 조건들을 완화하고 단체설립 인가와 관련한 소관부처의 인가기준을 객관화 및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부의 원칙적인 정비지침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카피 약 중 10여개가 효능 미달인데도 승인 받아 시판되고 있는 현실이 도마에 올랐다. 그런가 하면 퇴직자단체에 일정한 업무를 위탁하는 일로 특혜시비가 국정감사 시마다 오르내리고 있다. 이러한 폐단은 분명히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것들은 계속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세계의 대부분 국가는 작은 정부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렉서스로 고급차대열에 오른 토요다의 부품장고 없애기는 능률화, 슬림화의 표본으로 모든 나라 모든 기업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일을 아웃소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권장해야 할 사항이다.

필자는 이미 교육원이 왜 국가기관이 되어야 하며, 건축사 등록업무가 별도의 등록원을 둘 필요 없이 건축사등록위원회를 건축사법에 추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그 당위성을 설파하였다. 영국 등은 이미 건축사협회에서 행하고 있음을 부연하여 둔다.

의사는 잘못 시술했을 때 한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며, 변호사는 재산상의 문제이지 변론자체가 생명과 그리 큰 관계가 없는데도 협회 내에 강력한 징계권을 가짐으로써 그들의 품위와 자존을 지키고 있다. 또한 반드시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에 반하여 한번의 설계 잘못으로 수 백 명의 인명이 죽어가는 건축사의 경우는 오직 자유일 뿐이다. 이는 국민을 위하여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따라서 단일 협회가 이상적이지만 도저히 불가하다면 현행법 안에서 몇 개의 건축사협회가 탄생한다하여도 이를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개업하는 건축사는 어느 협회든 반드시 1개 협회 이상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원한다. 또한 자율적인 징계, 즉 윤리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원 할뿐이다. 이는 정부가 말하는 규제가 아니다. 건축사의 자존을 지키려는 도덕률의 최소치이며 소비자인 국민을 위한 예의일 뿐이다.

며칠 전부터 미국과 FTA협정 체결 시 건축사의 의견을 묻는 설문서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뜨고 있다. 이미 WTO에 의해 개방된 건축설계 시장은 FTA에 의해 더욱 더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 우리 모두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자. ■

사람이 살 만한 아파트 마을

An Habitable Apartment Town

상당히 오래도록 아파트생활을 경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싫어하였다. 도시경관을 완전히 잔인하게 파괴하고 사람이 살맛나지 않게 건고한 그 모습이 싫었다. 전문가들이나 업자들은 다르게 생각하였겠지만,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산세나 자연의 모습을 전혀 맞추어 생각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려놓기만 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늘을 찌를 듯한 건물들의 군상이 싫었다. 특색없이 한결같은 유니폼의 그 모습이 파시즘과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듯이 느껴져서 싫었다. 어느 후질그레한 도시의 한 쪽이 이른바 ‘재개발 비나’ ‘재건축 비나’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할 때마다 여지없이 아파트들의 거대한 블록을 만드는 것이 못내 아쉽고 싫었다. 처음에는 대개 일자형으로 남향하여 짓더니, 요사이에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정사각형으로 배치하여 훨씬 더 좁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조성하여 놓았다. 그렇게 밖에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밖에 없는 담당자들을 질타하였다. 물론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 효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길이 그것이라고는 하지만, 한결같이 무섭게 솟아오르는 아파트들의 군집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가장 안일하고 고만하지 않는 주거문제해결책이 바로 아파트로 정착했다는 점은 더 물을 필요도 없이 명확할 것이다. 그런데도 다른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살기를 희망하지 않았었다. 가뜩이나 도시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아스팔트와 시멘트로 포장된 길을 다니는 반생명, 반인간의 딱딱한 죽음과 죽음의 상징으로 보여 항상 불만을 느끼던 터에 그러한 콘크리트 벽속에서 갇혀 산다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어쩔 수없이 지금 나는 19층 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고 보니 멀리까지 방해받지 않고 볼 수 있어서 고맙기도 하다. 맨 꼭대기층이니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아도 되어서 좋다. 또 이제는 어린 아이가 없으니 그들 때문에 쿵쿵거려 아랫층에 사는 사람들을 방해할 것 같지도 않기에 다행이다 싶다. 남향을 좋아하지만, 분양이 되지 않은 것을 찾아 늦게 들어간 곳이니 동향과 서향으로 된 곳에서 살게 됐다. 햇빛이 다르게 보여 여름에 덥고 겨울에는 좀 춥지만, 해뜨고 해지고 달뜨고 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좋다. 그런 것들이 다른 불편한 것들을 상쇄하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불편한 것이 너무 많다. 아파트에 살면서 의문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왜 아파트값이 그렇게 심하게 치솟아야 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왜 재산증식의 수단이 돼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이 꼭 사람의 등급, 계급을 말하여 주는 듯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청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참으로 어려웠다. 평수를 계산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스럽다. 몇 평이라고 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가 않고 공유면적과 공동사용공간을 다 포함하여 계산한다. 그래서 공간개념에 혼란을 조장한다. 차라리 사용면적에 대한 계산을 실평수로 하고, 공동사용공간에 대한 계산을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른바 거품평수계산법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솔직하지 못한, 실재와 형식을 따로따로 보는 것을 대표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왜 그 큰 아파트단지에 철근 울타리가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정문이 왜 필요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물론 자동차가 들어갈 곳이 일정하게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사람이 다니는 것도 정문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주변의

개인 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서로 구별해놓으려는 어떤 특권의식이 발동하여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른다. 그런데 거대한 아파트지역에 있는 것들끼리도 울타리나 담으로 구분하여 놓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는 것 때문에 아파트단지 안의 아늑한 생활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살아나지 않는다. 그냥 웅색하게만 보인다. 이것은 의미를 상실한 단순한 버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옛날부터 부자들이나 고관들이 살던 고대광실 거대한 집들은 하층민과 구별하기 위하여, 그것을 토대로 권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상층민의 지배의식에서 높은 담을 치고 대문을 만들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것으로 위세를 떨치려고 하였던 허위의식에서 그렇게 주택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점점 퍼져서 일반 서민들도 자기들 집에 울타리를 치고 담을 쳐서 자기집의 영역을 확보하였다. 소유권과 권위에 대한 완전한 선언이요 주장이 바로 울타리와 담이었다. 그것으로 자기세계를 형성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의 집모양이 담이 없다면 집안 알맹이를 완전히 바깥에 드러내는 것이 되기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할 때 담을 쌓고 울타리를 쳐서 속을 보호하였던 것은 당시 현실에 맞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집도 옛날과 같이 울타리가 꼭 있어야 할 모양으로 짓지 않는다. 그런데도 울타리를 치고 담을 쌓는 것은 전혀 내려오는 버릇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관청에도 울타리를 친다. 그 집단버릇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 본다. 개인주택들의 울타리가 없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거리공간과 경관이 확보될 것이다. 울타리나 담이 이웃과 경계를 짓기에 집들이 자연스럽게 웅색하고, 좁고, 답답해 보인다. 푸른 나무들이나 풀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것은 아파트에도 마찬가지다.

아파트단지에 울타리를 없애고, 땅위로 나와 있는 주차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는 것인가 오래 생각해 보았다. 지금처럼 정문을 통하여 차가 드나들지 않고, 바깥 길에서 직접 자기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가 되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자동차가 정문을 통과하고, 땅위에 주차할 수 있게 돼 있기에 어떤 아파트단지도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걷고 뛰어 놀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없다. 더더욱이나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기는 아예 틀려버린 것이다. 거기에는 아주 슬프고 답답한 소리를 자주 듣는다. 자기 집에서 나간 어린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간다든지, 치고 놀던 공을 따라가면 한결같이 지르는 소리를 듣는다. “얘! 뛰지마! 차 와!” 또 종종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방송한다.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있으니 어린 아이들이 아파트 길이나 주차장에서 공놀이나 스케이트보드를 타지 않게 교육하여 달라는 주문이다. 그러한 방송을 들을 때, 이 아파트 생활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공간 안의 빌어먹을 생활과 큰 차이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 아래위층에 사는 사람들을 조심하여야 하고, 지나다니는 차를 조심하여야 하고, 세워놓은 차를 다치게 할까봐 조심하여야 한단다. 이러한 것들은 이웃을 배려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면 약간 이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활발하게 뛰고 놀아야 할 약동하는 생명을 억누르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 특히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억눌린 공간에 사는 찌그러진 모습을 스스로 초래한다. 아주 가까이 밀착된 공간에서 살지만, 서로 깊이 인사하지 않고 긴밀히 오고가는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산다.

지금은 약간 이해가 빨라졌지만, 처음 아파트들이 많은 곳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기에는 무척 힘들었다. 그 나름의 번호를 붙이는 체계를 가지고 있었겠지만, 일단은 아파트의 동수를 결정한 것이 확 눈에 들어오고 머리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모든 숫자가 일단은 높다. 예를 들면 1동이라고 하

면 쉬웠을 것을 101동이라거나 1001동이라고 붙인 곳이 많다. 101동과 102동 103동을 차례짓는 방법이 간단하지가 않다. 어떤 논리를 상실한 듯이 보일 때가 많다. 107동을 찾은 뒤 108동을 찾으려면 그 종적이 사라지고 어디로 숨었는지 모를 때가 많다. 그리고 아파트 동 입구에 써 놓은 숫자가 어떤 체계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 것이 층을 말하며, 어느 것이 같은 높이의 집숫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리송하였다. 일단 숫자가 써 있는 문앞에 당도한 뒤에도 문패가 없기에 난감할 때가 많다. 어느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맨 아래 편지함들이 달려 있다. 그곳에도 이름이 없다. 다만 호수를 알리는 숫자만 있을 뿐이다. 편지가 올 때에도 이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 때문에 올 때가 많다. 우편함에 잠금장치는 있지만, 전혀 의미가 없다. 열려 있는 채 덜렁거리게 두어야 한다. 날씨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릴 때도 출입문은 항상 열어젖힌 상태로 있을 때가 많다. 그것 때문에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것은 당연할 것인데도 그렇다. 어느 건설회사가 한 순간에 지은 집들은 겉으로 보기에 한결같이 똑같다. 어떤 특색을 전혀 갖추지 않고 있다.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확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값 차이가 어떻게 나는가에 따라서 사용한 물질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취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마치 군대에서 똑같은 복장에 똑같은 머리형에 똑같은 발자국을 떼어놓는 제식훈련을 보듯이 완전히 획일화한 모습을 본다. 천정의 등, 벽에 달린 전화나 인터폰, 벽지와 화장실의 거울 따위들이 한결같이 똑같다. 몹시 지루하고 끔찍한 느낌이 든다. 차이가 있다면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온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고, 어떤 가구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것들 역시 제한된 공간배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지극히 제한된 변화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참아 줄 수도 있다고 하자. 그런데 너무 많은 것들이 이해할 수 없고, 살수록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 밀집하여 사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쾌적하면서도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꾸리고 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안한다.

소방도로나 이삿짐 등을 나르기 위한 길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보통차량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길에서 아파트 밑으로 차가 직접 들어가서 몇 층에 걸친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직접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의 승강기와 연결될 수 있게 설계되고 작업이 되는 것이 좋겠다. 최근에 짓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것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대개의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에서 자기네 집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아파트의 지상공간을 모두 정원과 푸른공간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생활공간을 가능한 한 자연을 맞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큰 나무들과 풀들과 꽃들이 어른이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자라게 할 필요가 있다. 좀 두껍게 흙바닥을 만들어 나무와 잔디와 풀을 심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며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터와 산책길과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앉을 공간을 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여 어린이들이 마음대로 다니고, 어른들이 쉽게 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같은 지나치게 개별화된 아파트주민들의 달팽이집 생활이 극복되고 아기자기한 내용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웃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편함이나 집 문에 이름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도시의 익명성을 즐기고 사생활을 공개하고 싶지 않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간섭하기 싫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받고 싶지 않기도 하다. 서로 이름이 무엇이며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가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 탓에 도시에 살며, 아파트에 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단 문을 닫으면 폐쇄된 자기만의 공간을 즐기는 것이 아파트 생활의 장점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른 세계와 연결을 맺고 싶을 때는 이미 맺었던 인연들과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통신할지언정 위험부담이 클 수도 있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지 않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익명의 세계에 사는 것은 인간다운 사회의 모습은 아니다. 더욱이나 이웃한 사람들 사이의 지나친 감춤의 행위는 이웃이라 할 수 없을만큼 살벌한 삶의 전형이다.

아파트의 동이나 라인에 공동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물론 아파트건설업자들의 이익취득이나 공동사용공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맨 아래층에 마을 사랑방을 꾸리는 것이 좋다. 그곳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동의 모임을 가지거나 어느 한 가정이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은 아파트 주민들과 즐기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열린공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소에서는 모든 주민이 공동으로 상의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창조활동을 무수히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시골마을에서 사랑방, 마을회관, 느티나무아래에서 놓고 공론을 하던 것처럼 이러한 공간에서 자주 만나고 쉽게 공동의 일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아파트공동체를 형성하는 매우 훌륭한 짧은 길이라고 본다.

적어도 1000세대나 1500세대가 한 단위가 되어 작은 극장이나 강당들이 마련되어 작은 단위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게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정한 지역에 문화공간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활동하는 전문가들에게는 편리한 것일지 모르지만, 생활문화, 문화생활을 일상생활과 연결 짓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동시에 공동의 체육시설이 만들어져서 멀리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앙집중식의 문화공간도 필요한 것이지만, 작은 문화공간은 곧 마을공동체를 활기있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곳에서 절기마다 주민들이 마련한 노래나 연극이나 다른 놀이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강좌를 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 안에 마을도서관과 공부방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바쁘게 참여하기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런지 모르나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을도서관과 공부방이라면 매우 좋은 인상을 전달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자기들이 읽은 도서를 기증하거나 바꾸어보는 것이나, 나누는 장소로 활용하여도 좋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 있어서 어른들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마을도서관은 자기집 새책처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좋다. 때때로 이 장소에서 베품시장을 열어서 나누고 바꾸고 아끼고 다시 쓰는 생활을 공동으로 실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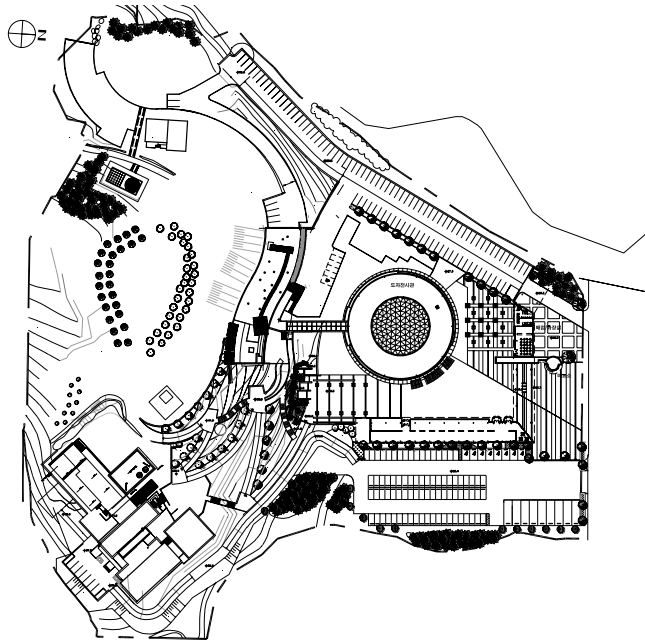
이와 같은 것들은 아파트지대를 설정할 때부터 기본원칙이 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아파트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

Clayarch Gimhae Museum

● 배치도

● 건축개요



0 5 10 20m

대지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산 3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 녹지지역 내 근린공원지역
대지면적	42,162.00㎡
건축면적	4,831.97㎡
연면적	8,824.77㎡
건폐율	11.46%
용적률	15.90%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원목마루(American White oak), 투명에폭시코팅, 화강석 판석, 방무목, 테라조 현장물갈기, 디자인타일(작가작품)
외부마감	도자벽, 베이스패널, 티타늄아연강판, THK16mm 컬러복층유리 드라이비트
설계담당	김성수, 박준수, 이현주, 이진영, 엄영진, 김정민, 김경훈, 이경아
기계설비	한국설비
전기설비	일신 ENC, 건창 기술단
시공사	성일건설
건축주	김해시
설계기간	2001.6 ~ 2005.12
공사기간	2003.01 ~ 2006.03



Location	3 Songjeong-ri, Jillye-myeon,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Site area	42,162.00㎡
Bldg. area	4,831.97㎡
Gross floor area	8,824.77㎡
Bldg. coverage ratio	11.46 %
Gross floor ratio	15.90 %
Structure	RC
Bldg. Scale	B1, F3
Design period	2001.6 ~ 2005.12
Construction period	2003.01 ~ 2006.03



2 L 클레이아크 전경

가락국의 고도 김해시는 한반도의 가장 오래 된 도질토기인 양이부호가 대성동 고분군에서 발굴되면서 사실상 도자기의 본고장으로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진례 지역은 가야시대부터 고려 및 조선 초기에 이르는 전통도예의 산실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도 김해지역 도예가의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김해시는 도시공원인 진례 송정공원구역 내에 미비한 지원시설을 보완하고 ‘김해 도예촌’을 조성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로 2001년 초에 현상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클레이아크 김해 미술관이 들어선 자리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우리의 시골 풍경이었고, 도예촌이 위치하게 될 송정공원은 평야 한 가운데 나직이 자리 잡아 평온하나 다소 지루한 느낌이었다. 이에 기존 촌락과의 연계, 새로운 시

설과의 관계에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우리 시골 풍경에 대한 생각의 정리가 필요했다. 또한 대상지 대부분이 양호한 소나무 숲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곳곳에 대나무 군락지가 자라고 있어 최대한 지형과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예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건축물은 1단계 계획대지의 북쪽의 평지와 이미 훼손된 과수원 부근에 주요 시설을 배치하고, 2단계 사업대지에 숲이 깊어짐에 따라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그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체험시설을 배치하였다. 가야토기의 선과 분청사기의 빛, 가야도공의 혼을 형상화한 도예전시관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들은 1차적인 도자기 형상의 재현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지는 도자기 제작 과정을 은유하는 쪽으로 정리 되었다. 도자전시관의 주 형상인 원은 물레위에 올려진 도자기의 형태

이기도 하지만 주변 도시의 흐름과 자연 녹지의 결절점에 위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적절한 형태로서 구성되어 졌다. 전면의 진례도자점은 도자기를 빚는 손으로 도예촌의 게이트 역할을 하며 도자전시관과 광장을 감싸 안으며 도로로부터 공간을 보호하고, 기존 진례면 중심지와 미래에 완성 되어질 주변 상업시설단지와의 흐름을 마무리 짓는다.

도자전시관의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은 문, 광장, 회랑, 중정, 상징공간, 브릿지 등 다양한 공간이 열리고 닫히면서 연출되는데 이러한 공간연출은 수비, 토런, 성형, 조각, 초벌구이, 시유, 재벌구이로 이어지는 도자기 제작과정을 건축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은 관람자들이 자연스럽게 체험과정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이끌며, 하나의 ‘도자기제작 체험의 장’이





되리라 생각된다.

현상공모 당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문화의 특성을 살려 문화적인 테마공원, 전시관 등을 기획하고 있었고 추진 중이었다. 김해시 역시 당시 세계도자 엑스포가 열리고 있던 시점이어서 상당히 도예촌 건설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지만 건립후의 관리·운영 문제점으로 대두 되면서 현상설계 초기의 개념에서의 많은 변경이 있었고, 구체화되기 까지 규모에 비해 짧지 않은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다. 공사 중에 완공 후 운영을 책임 질 ‘클레이 아크 김해’가 발족하였고, 재단측은 도예촌을 분청사기를 주테마로 한 상설전시관 중심의 테마공원에서 건축도자전문 미술관 중심으로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이로 인해 전문 도예가를 위한 공간(기획전시실, 연구소, 연수관)이 추가되었고, 주 전시관인 도자전시관의 외벽도 도예가의 실험적인 건축도자작품인 타일 외장으로 도자전시관 중앙의 외부 원형공간은 유리돔이 덮여진 다목적 실내공



간으로 변경 되었다. 지역적 박물관에서 건축관련 도자산업 이라는 독특한 아이템의 전문도자미술관 으로 거듭나겠다는 ‘클레이아크김해 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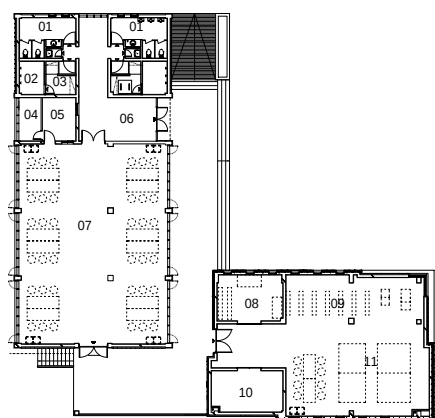
특히 가야시대의 역사와 도시문화 환경에 관한 송은복 김해시장의 식견과 전시작품 1호인 외벽 도자타일을 직접 제작한 신상호 관장의 열정이 건축의 완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첨언한다.

클레이 아크 김해 미술관의 1단계 시설만 완성된 상황이고 나머지 시설의 착수 시점과 방향이 확실치 않아 전체의 모습을 느낄 수는 없으나 김해도 예촌의 클레이아크 미술관이 김해 도예역사의 재발견과 지역주민의 자랑거리로 ‘도자향 넘실거리는 김해 도솔마을 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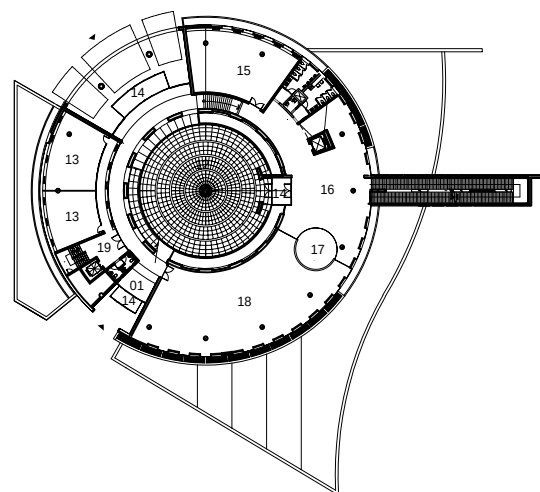


- | | |
|---|---|
| 1 | 3 |
| 2 | 4 |
1. 주출입구와 매표소
2. 주출입구 환경
3. 도자연수관과 도자체험관
4. 미술관에서 본 도자연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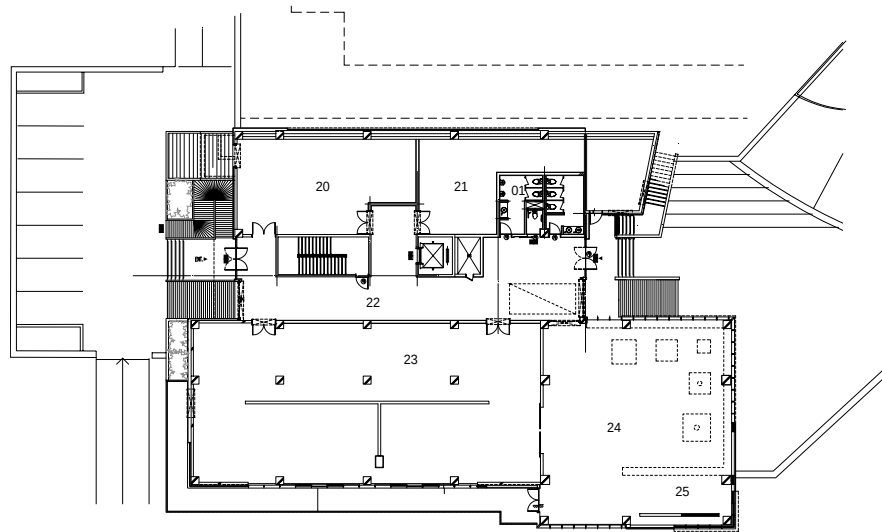


도자체험관 1층 평면도



도자미술관 1층 평면도





- | | |
|-----------|----------------|
| 01 화장실 | 14 방품실 |
| 02 샤워실 | 15 도예강좌실 |
| 03 탈의실 | 16 로비 |
| 04 온수탱크실 | 17 정보검색실 |
| 05 안내사무실 | 18 기획전시실 |
| 06 복도 | 19 전실 |
| 07 체험실 | 20 제토실 / 창고 |
| 08 유약/시유실 | 21 실험실 |
| 09 건조실 | 22 ELVE.홀 및 복도 |
| 10 기자재실 | 23 작가공동스튜디오 |
| 11 가마실 | 24 소성실 |
| 12 도솔마당 | 25 시유실 |
| 13 사무실 | |

도자연수관 1층 평면도



- | |
|----------------------------|
| 1. 도자미술관 2층 Hall |
| 2. 도자미술관 Hall |
| 3. 도자미술관 실내중정 |
| 4. 도자미술관 중정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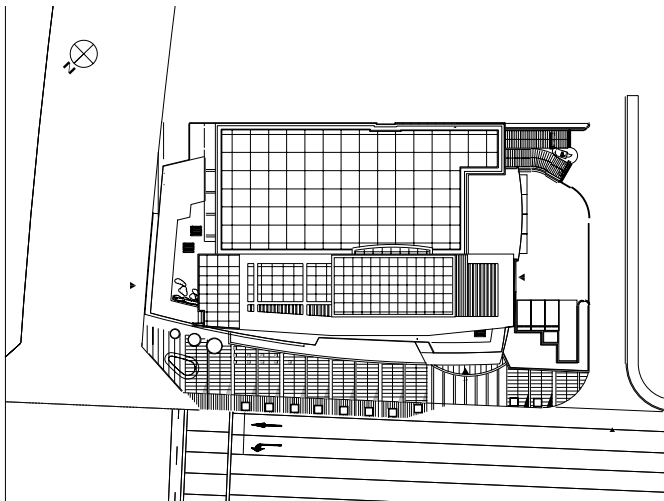


디지털 매직 스페이스

Digital Magic Spac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부지 C-3지역 내
지역지구 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일반상업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3,305.79㎡
건축면적 1,981.49㎡
연면적 16,106.67㎡
건폐율 59.94% (법정 60%이하)
용적률 327.83%(법정 800%이하)
규모 지하2층, 지상12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토목설계 시지이엔씨
구조설계 오푸스필
기계설계 삼신설비
전기설계 나라기술단
시공사 금호건설
건축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설계기간 2003. 3 ~ 2003. 12
공사기간 2004. 7 ~ 2006. 3



Location DMC · C-3, Sangam-dong, Mapo-gu, Seoul, Korea
Site area 3,305.79㎡
Bldg. area 1,981.49㎡
Gross floor area 16,106.67㎡
Bldg. coverage ratio 59.94%
Gross floor ratio 327.83%
Structure S.R.C
Bldg. Scale B2, F12
Design period 2003. 3 ~ 2003. 12
Construction period 2004. 7 ~ 2006. 3







DMS(Digital Magic Space)는 원활한 콘텐츠 공급을 위한 방송제작산업 활성화 및 디지털방송의 조기정착을 유도함과 동시에 방송제작→전시→관람, 시사, 이벤트→홍보→상담→유통이란 원스톱 기능을 갖춘 방송제작의 메카가 되도록 기획된 첨단 방송제작시설로서 그 외형의 중요함 만큼이나 내부적인 안전성과 제반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았다. 현상설계후 약 4개월간의 설계기간을 통해 외관과 내부의 기능, 설비,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충족시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약 21개월에 걸친 시공기간을 통해 다듬어져 완공되었다. DMS는 디지털 특화도시인 상암동 DMC(Digital Media City)지구내 핵심 사업인 DMS(Digital Media Street) 조성을 위

한 첫 번째 상징물이자 세계 디지털 미디어 교류의 최초의 장소가 되었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 하겠다.

DMS는 방송제작 영역(저층부 1~5층)과 사무동 영역(고층부 6~12층) 그리고 외부 스튜디오 영역 등 세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세부분은 atrium 로비와 옥상정원 테라스에 의해 상호결합되어 있다.

각층 평면은 방송제작 및 관련시설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기능별로 업무집중도를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최대한 동선의 이동이 짧고 혼잡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3개의 실내 스튜디오와 1개의 실외 스튜디오가 계획되었는데, 스튜디오 층고 확보를 위해



6개층의 단면을 활용하여 2개의 적층형 스튜디오를 설치했으며,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차음 및 방진에 대한 세심한 건축음향설계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스튜디오는 전문 방송제작기능이 가능하도록 세트창고, 아나부스, 분장실, 편집실등의 부속기능을 골고루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필요시 생방송이 가능하도록 시공되었다. 최상층(지상12층)에는 휴게실과 다목적홀을 설치하여 필요시 영화영상 제작발표회, 시사회 등의 기능이 충족되도록 하였다.

휴게실은 지붕층과 연결되어 건물의 헤드부 디자인을 결정짓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며,

이는 경관조명으로 처리되어 원거리에서도 DMS가 랜드마크로 인지될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저층부/중층부/고층부의 육중하거나 굽이치는 형상이 자연스럽게 어울려진 매스는 알루미늄과 유리라는 재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매끄럽게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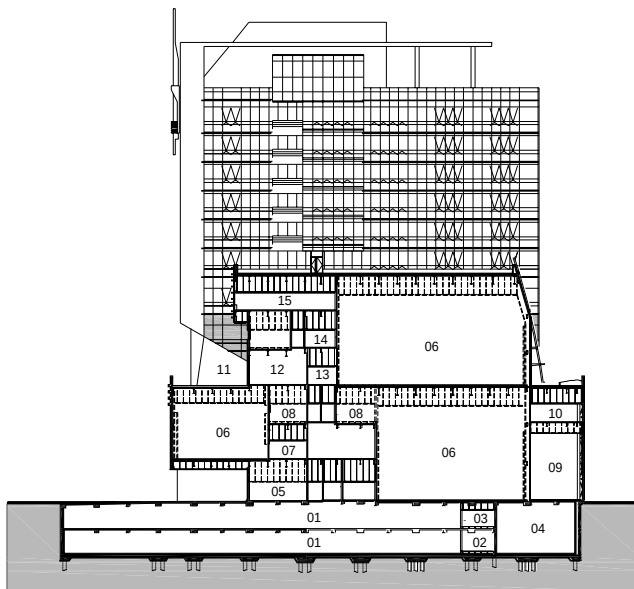
- | | |
|---|---|
| 1 | 3 |
| 2 | 4 |
1. 저층부
2. 주출입구
3. 옥상정원에서 바라본 DMS
4. 옥상조경







- | | |
|---|--------|
| 1 | 지붕층 |
| 2 | 옥외스튜디오 |
| 3 | 로비 |
| 4 | 로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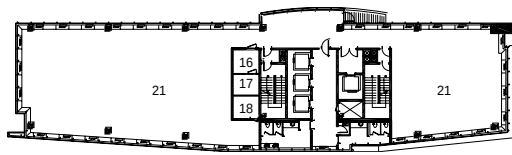


- 01 주차장
- 02 UPS실
- 03 관리사무실
- 04 기계실
- 05 분장실
- 06 스튜디오
- 07 카메라창고
- 08 부조정실
- 09 채형스튜디오
- 10 더빙스튜디오
- 11 옥외스튜디오
- 12 세트보관창고
- 13 음향창고
- 14 개인편집실
- 15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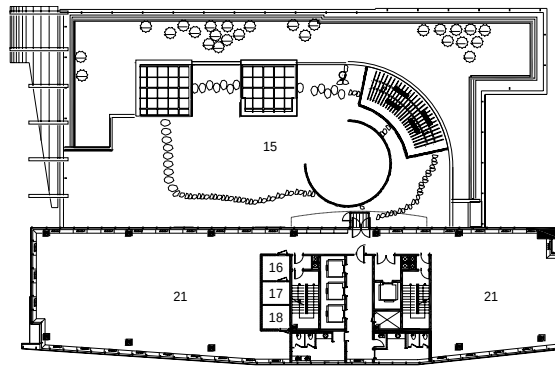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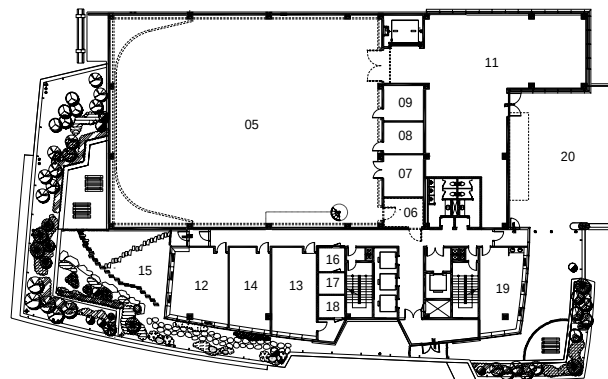
- 1. 스튜디오
- 2. 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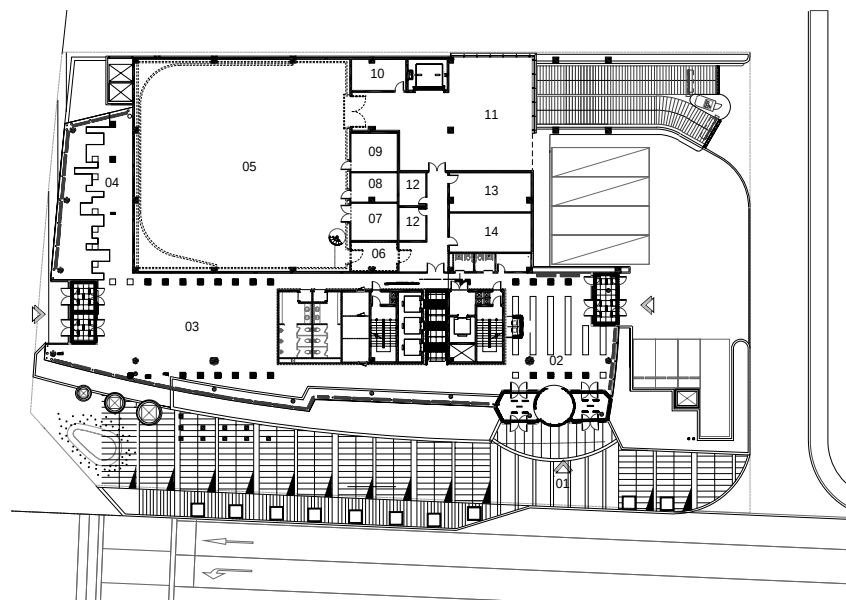
9~10층 평면도



7층 평면도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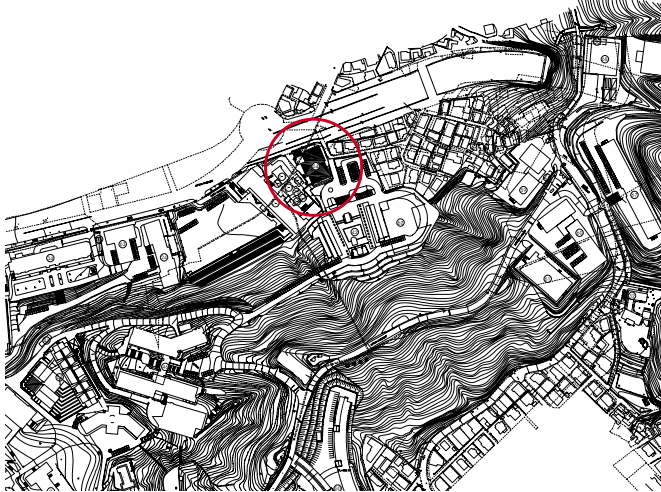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01_ 주출입구
- 02_ 로비
- 03_ 디지털네트워크플라자
- 04_ 체험스튜디오
- 05_ 스튜디오
- 06_ 전실
- 07_ 카메라창고
- 08_ 음향창고
- 09_ 조명창고
- 10_ 소도구창고
- 11_ 세트보관창고
- 12_ 연습실
- 13_ 분장실(여)
- 14_ 분장실(남)
- 15_ 옥상정원
- 16_ 구내통신실
- 17_ EPS
- 18_ AD/PS
- 19_ 대기실 및 회의실
- 20_ 옥외스튜디오
- 21_ 사무실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Education Building, Ewha Womans Universit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47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대지면적	538,721.80㎡
건축면적	78,608.99㎡
연면적	369,000.29㎡
건폐율	14.59%
용적률	53.98%
규모	지하2층, 지상6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THK30 화강석 고운다듬, THK30 화강석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고운다듬 오픈조인트시스템, THK24 투명복층유리, THK24 불투명복층유리
옥외마감	THK30 화강석 고운다듬, THK30 적삼목
설계담당	문진호, 윤백룡, 김기중, 안광원, 남지현, 강형주
전기설계	한국설비주식회사
구조설계	(주)크로스구조연구소
소방설계	(주)남도소방설비
토목설계	(주)트랜스코리아
시공사	현대건설(주)
건축주	학교법인 이화학당
설계기간	2004. 1. ~ 2004. 8.
공사기간	2004. 9 ~ 2006. 3



Location	47 Daesin-dong, Seodaemun-gu, Seoul, Korea
Site area	538,721.80㎡
Bldg. area	78,608.99㎡
Gross floor area	369,000.29㎡
Bldg. coverage ratio	14.59%
Gross floor ratio	53.98%
Structure	S.R.C
Bldg. Scale	B2, F6
Design period	2004. 1. ~ 2004. 8.
Construction period	2004. 9 ~ 2006. 3



1. 전경
2. 교육관 2층 입구에서 바라본 전경

DIAGRAM WALL

다이어그램은 기능과 구조, 행태와 형태 사이의 관계를 특징지워주는 그래픽의 집적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Diagram Wall은 현실의 복잡성을 관여시켜주는 중요한 건축적 의미를 제공한다.

기능적으로는 벽인 부분이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실들로 채워져 있으며, 뚫려져 있는 유리 부분은 공공공간으로서 복도와 홀 등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구조적으로는 전면의 4개의 벽이 단일 스펀으로 이루어져 있어 각 공간이 융통성 있게 사용되도록 계획하였다.

행태적으로는 시각과 소음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시각은 외부와 내부가 지속적으로 연결되

도록 공공공간을 투명한 커튼월로 처리하였다. 또한 각각의 매스는 서로 시각을 교차하게 하였다. 더욱이 내부 중정은 건축물과 긴밀한 관련을 맺도록 하기 위하여 최대한 시각을 열어주었다. 소음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을 차단하기 위하여 벽의 위치를 강의실 군의 앞쪽에 배치하였다. 건물 내부에서는 학생들의 소음이 강의실 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휴식과 통행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강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분리하였다.

형태는 철저하게 다이어그램의 형태에 충실하게 따랐으며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데 주력하였다. 다이어그램 형태는 내부적으로는 물론이고 세부적으로도 작용한다.

MULTIPLEX FUNCTION & SPACE

이대 사범대는 다음의 3가지 주요 기능으로 구성된다. 강의, 실험, 행사.

강의는 강의, 세미나, 연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3개의 매스 중 메인 코어가 있는 매스에 집중되어 있다.

실험은 각종 실험실과 연구실이 포함되는 곳으로 2개의 부속 매스에 속해있다. 그리고 외부 행사에 관련된 기능은 지하 1층에 집적되어 있으며, 이곳은 보조 출입구가 설치되어 행사 전용로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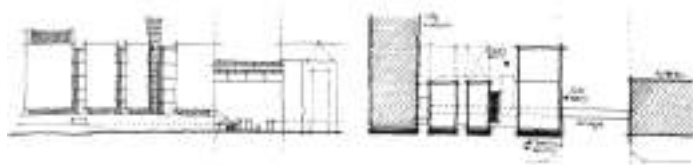
CONTEXT & CAMPUS-SCAPE

본 신축 건물은 기존의 구 교육관과 ㄷ자 배치를 형성한다. 그리하여 형성된 중정은 소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서비스용 외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며, 이용자들의 휴식과 행사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MATERIAL & DETA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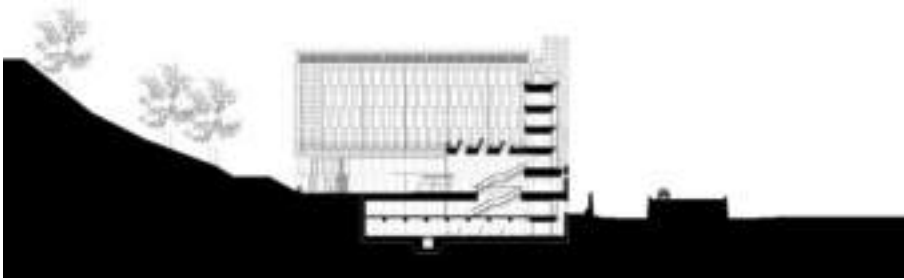
주 재료는 기존 이화여대 건물에 주로 사용되었던 화강석을 사용하였다. 이 건축물에서는 화강석을 좀 특별하게 사용한다. 각각의 화강석은 알루미늄 후레임으로 둘러싸여 콘크리트 벽면에 매달린다. 그렇게 모여진 알루미늄과 화강석은 빛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빛깔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





- | | |
|---|---|
| 1 | 2 |
| 3 | |
- 1. 서남측 입면 및 캐노피 하부
 - 2. 서남측 입면(수진루바)
 - 3. 북동측 연구동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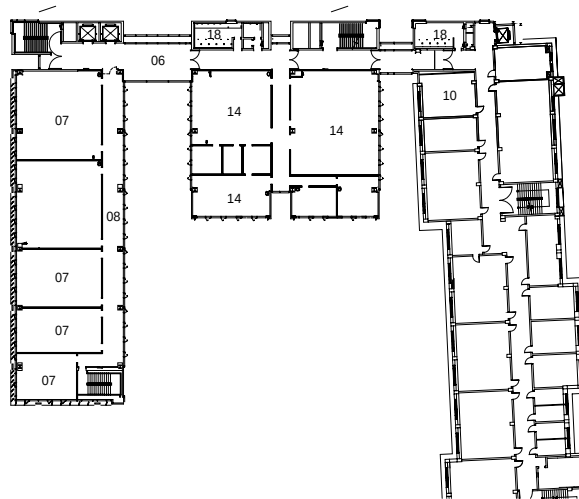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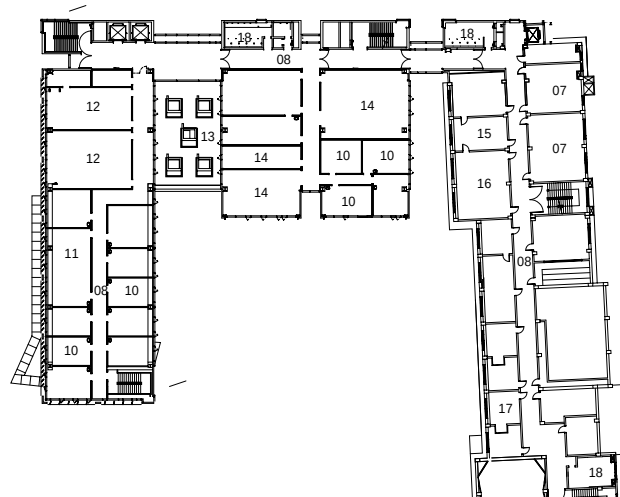


- | | |
|---|-------------|
| 1 | 외부계단 경사 진입로 |
| 2 | 1층 로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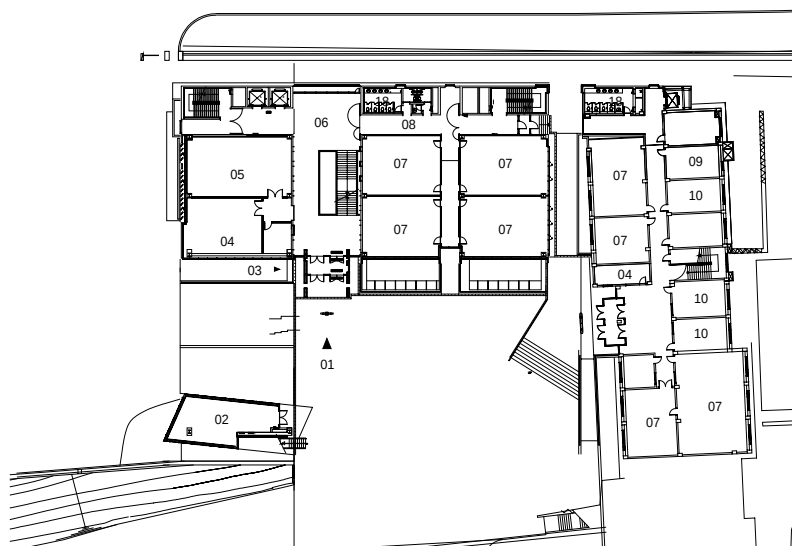


- 01 주출입구
- 02 매점 및 복사실
- 03 부출입구
- 04 경비실
- 05 멀티미디어실
- 06 홀
- 07 강의실
- 08 복도
- 09 교육방송과
- 10 연구실
- 11 교육대학원행정실
- 12 실기실
- 13 옥상정원
- 14 실험실
- 15 교학과장실
- 16 사무실
- 17 과장실
- 18 화장실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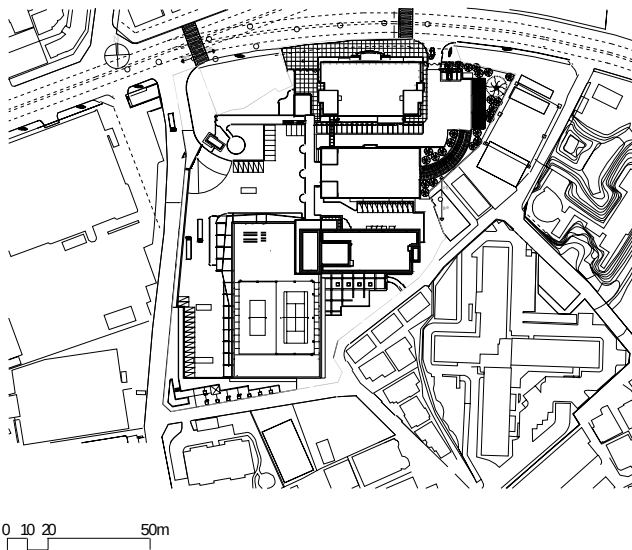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서울 광진 우체국청사

Seoul Gwangjin Post Offic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87번지
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도	공공업무시설, 창고시설
대지면적	16,481.60㎡
건축면적	3,877.55㎡
연면적	13,386.00㎡
건폐율	23.53%
용적률	60.89%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주차대수	101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구조,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THK18갈라 복층유리, THK6.0 알루미늄 FLUX 패널,
설계담당	아취그룹 - 윤은중, 이해암, 배병훈, 조만익, 김흥기, 임은희, 임미혜 범건축 - 천성호, 이준엽, 박재현, 최재훈, 한태희, 김병우
구조설계	(주)쓰리디구조
기계설계	(주)성아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석우엔지니어링(주)
시공사	(주)동원시스템즈, 금강종합건설(주), (주)대우엔지니어링
설계기간	2003. 09 ~ 2003. 12
공사기간	2003. 12 ~ 2006. 04



Location	587 Guui-dong, Gwangjin-gu, Seoul, Korea
Site area	16,481.60㎡
Bldg. area	3,877.55㎡
Gross floor area	13,386.00㎡
Bldg. coverage ratio	23.53%
Gross floor ratio	60.89%
Structure	R.C
Bldg. Scale	B1, F5
Design period	2003. 09 ~ 2003. 12
Construction period	2003. 12 ~ 2006. 04



우체국이 지니고 있는 프로젝트의 특징은 일반프로젝트와 달리 기능과 조닝이 강조되면서도 보통의 관공서가 지니는 안정성과 위엄성을 넘어 시대적 사회의 반영이 빠르고 물류적 처리속도 등 우체국의 특징에 관여하는 건축언어들이 교차되어진다. 광진우체국청사 또한 기존청사와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고민과 함께 사회적 패러다임의 수용과 우체국의 개념 확장에 따른 건축적 반영이라는 입장에서 아래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하였다.

도시적 맥락

본 건축물의 대지 북측으로 강한 속도감을 갖는 서울메트로 2호선과 20m의 도로가 있으며 도로 건너편으로 저층의 고밀도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존재하며 대지 남쪽으로 저층의 관공서 및 도시지원시설등이 위치한다. 대지 서측으로 8m도로와 접하며 동측으로는 낮은 주거건물군

이 위치한다.

전반적으로 낮은 건물군에 둘러싸인 대지에서 주변건물과 건축언어로 충분히 소통하면서 주도적인 입면디자인으로서 Land-Mark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연속성과 축의 설정

본 건축물 계획과정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기존의 우체국청사와의 연계성의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롭게 우체국의 기능을 확대하고 미래의 다양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하느냐의 문제였다.

첫 번째 문제는 새로 들어설 건축물이 기존 우체국과 어울리게 배치하여 기존 우체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유지하고 신·구 건축물간의 조화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대지의 주 진입부에서 건축물로의 접근로에 eco-bridge 개념을 도입하여 보행과 차량의 효과적인 분리를

이루고, 기존건축물과 신축건물을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신축부분의 새로운 기능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물류와 사무업무를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각 층에 실을 기능적으로 배치하고 업무동선과 소포작업 동선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에코브릿지를 통하여 신축건물로 진입하는 부분은 기존의 청사와 신축건물간의 연속적인 축의 설정에 일관되게 진행하며, 신축건물의 전면 유리 및 알루미늄패널의 현대적 이미지에 연속하여 유리를 관통하는 mass를 삽입하고 그 mass를 관통하여 진입함으로써 신축건물의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가치의 보전과 새로운 기능의 요구 충족

시간의 흐름은 많은 굴곡을 거치며 시대의 많은 것들을 바꿔놓았다. 우체국 역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능들을 요구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기존의 가치 또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편업무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였으므로 신축건물에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중소 전자상거래업체의 물류창고 및 사무실 입대의 통합적인 기능을 하며 물류소통을 지원하는 역할과 급증하는 소포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우편물 처리 자동화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광진우체국청사 내의 조달사무소의 기능을 신축 건물의 한 MASS로 이전하여 증축하였고, 노후화된 건물에서 새로운 건물로의 기능이전으로 전보다 한층 강화된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성 및 사용자의 안락함을 추구하였다.

물류센터의 파사드는 점차 가속화되어가는 사회 변화에 순응하고 평면적인 구성을 탈피하여 3차원의 이중외피로 속도감을 부여하였으며 메

탈재질로 현대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백색의 면과 가로로 붉은 선의 사용으로 신뢰감과 신속성을 자랑하는 정보통신부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경쾌한 더블스킨의 사용과 우체국의 신속한 물류운송 처리 능력의 상징성을 은유적으로 형상화한 입면디자인을 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신축 조달사무소 입면은 업무 성격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강조하여 기존의 가치를 중시하며 규칙적인 비례의 정적인 이미지의 입면디자인이 주조를 이룬다.

두 부분의 입면디자인은 내부기능을 외적으로 충분히 표현하여 각 건축물이 가지는 기능 및 성격을 명확히 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다.

친환경건축으로서 친근한 접근

대지 북서쪽으로는 주 진입로를 제외한 대지 전반에 걸쳐 외곽에 조경을 설치하여 친환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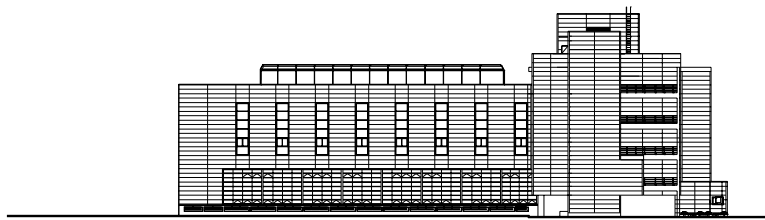
을 강조하고 특히 남측에 배치한 공개공지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걷고 싶은 길과 쉼터를 제공하며 하이테크한 신축건물의 입면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대지 남동쪽에 위치한 eco-plaza는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후면의 깔끔한 입면과 더불어 위요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체국은 일반 관공서 건축물과는 달리 일반 시민에게 열린 이미지로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및 반영을 하여야 하는 고민이 현 광진우체국청사의 계획에 투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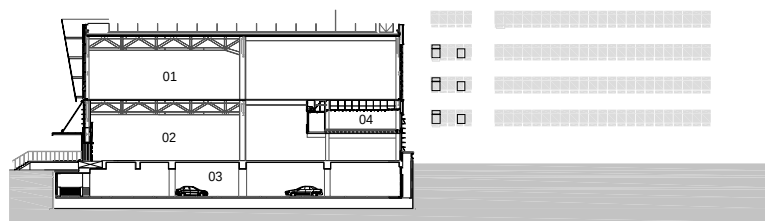
본 건축물의 계획으로 이미 우체국청사가 지니는 가치를 보존 발전하고 나아가 시대정신을 건축물에서 반영함으로 긍정적인 사회로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광진우체국청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 01_ 소포집배실
- 02_ 우편작업장
- 03_ 체력단련실
- 04_ 통신실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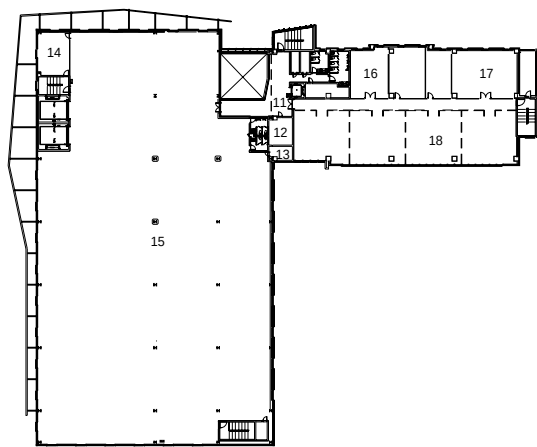
횡단면도

- | | |
|--|--|
| | |
| | |
- 1. 소포물류센터 전면
 - 2. 예코브릿지에서 본 주출입구
 - 3. 소포물류센터 파사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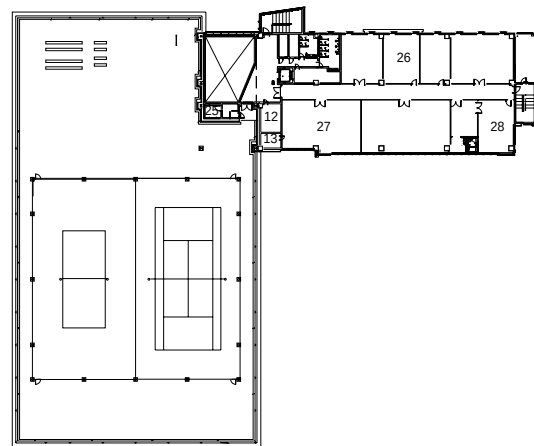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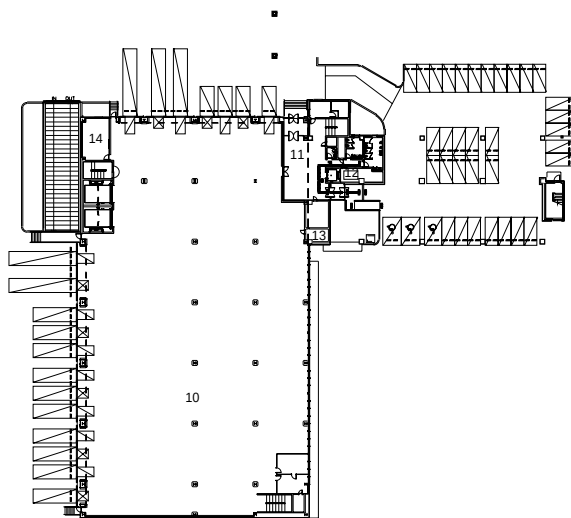
- | | |
|---|---|
| 1 | 2 |
| 3 | 4 |
1. 소포작업장 내부
 2. 로비에서 바라본 예코브릿지
 3. 예코플라자 및 사무동 파사드
 4.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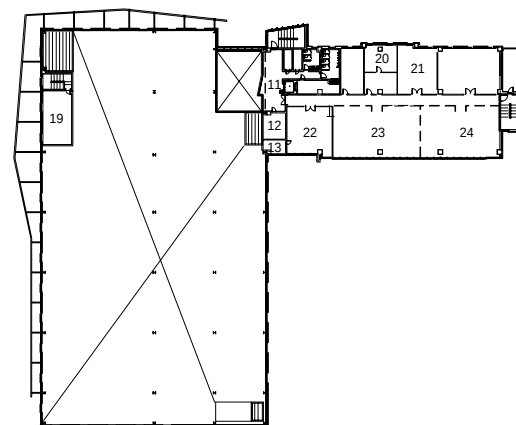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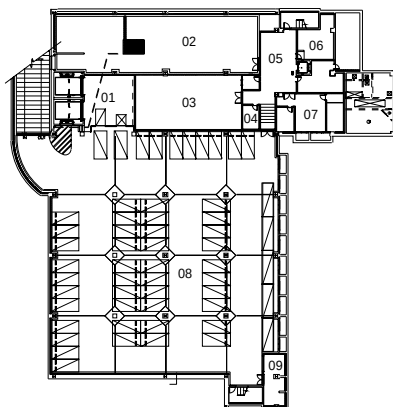
- | | |
|------------|--------------|
| 01_ 발착대기실 | 15_ 소포집배실 |
| 02_ 기계실 | 16_ 회의실 |
| 03_ 전기실 | 17_ 품질관리실 |
| 04_ 공기압축기실 | 18_ 건축2과 |
| 05_ 홀 | 19_ ELEV.기계실 |
| 06_ 방재실 | 20_ 전산실 |
| 07_ 비상발전기실 | 21_ 설계실 |
| 08_ 주차장 | 22_ 심의실 |
| 09_ 팬룸 | 23_ 특수시설과 |
| 10_ 우편작업장 | 24_ 설계과 |
| 11_ 구내통신실 | 25_ 사위실 |
| 12_ PS | 26_ 정보방 |
| 13_ EPS | 27_ 계약과 |
| 14_ 소포접수창고 | 28_ 소장실 |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5층 평면도



0 5 10 20m

지하1층 평면도

4층 평면도

PROGRAM과 SURFACE

장님코끼리 만지기

건축주나 프로그램의 내용 등 여타의 여건들이 좋은 기회로 열려있는 경우, 대개는 건축사에게 매력적인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작년 말 우연찮게 새로이 시작하게 된 ‘창원대학 내 스마트 홈 전시관’은 이와 같은 매력적 부담을 갖고 있는 흔치않은 기회였다. 규모는 작지만 촌철살인 같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요구조건에 대한 해석과 땅의 해석에서 비롯하여 전시관 내에 전시되어야 할 프로그램도 아직은 유동적이며 미정되어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손을 거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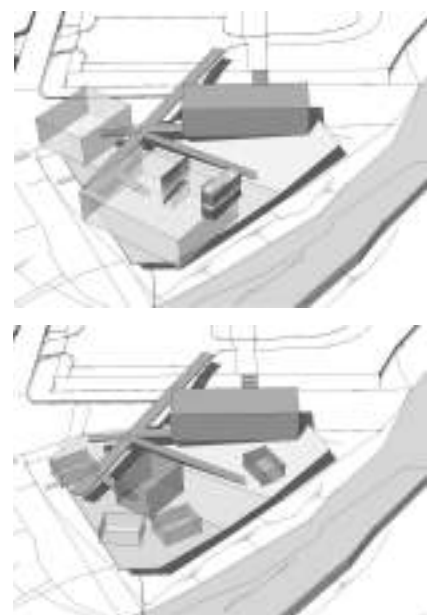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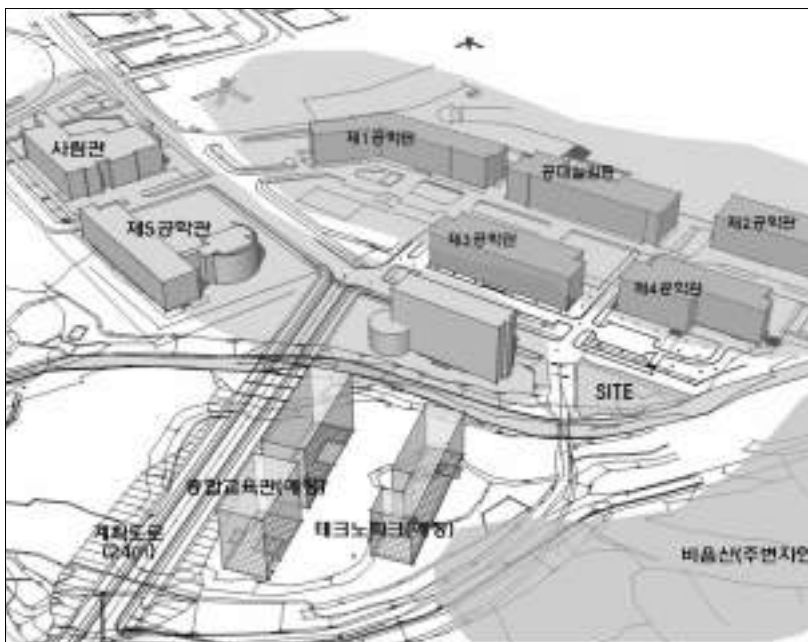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떠오른다. 한 사람은 엉덩이를 만지고 넓적한 판 같다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기둥 같다고 말한다. 세 번째 사람은 코를 만지고 물렁한 튜브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마 한번의 접촉으로 전체를 결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유사할 것이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리 저리 만지고, 서로 만진 결과를 토론하고, 몇 번의 시행착오 뒤에 코끼리 비슷한 형상으로 서로 짐작해 낼 수 있다면 이것은 한번에 전체를 알 수는 없으나 결코 그 부분만은 틀리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전체의 구조와 부분의 구조 사이에 상관관계라는 측면

에서 현재 도시 속에 있는 건축의 속성과 닮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도시 조직은 이와 더욱 더 비슷할 것이다.



기본 틀의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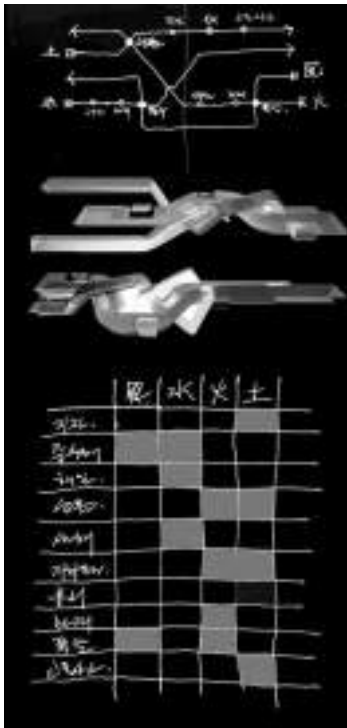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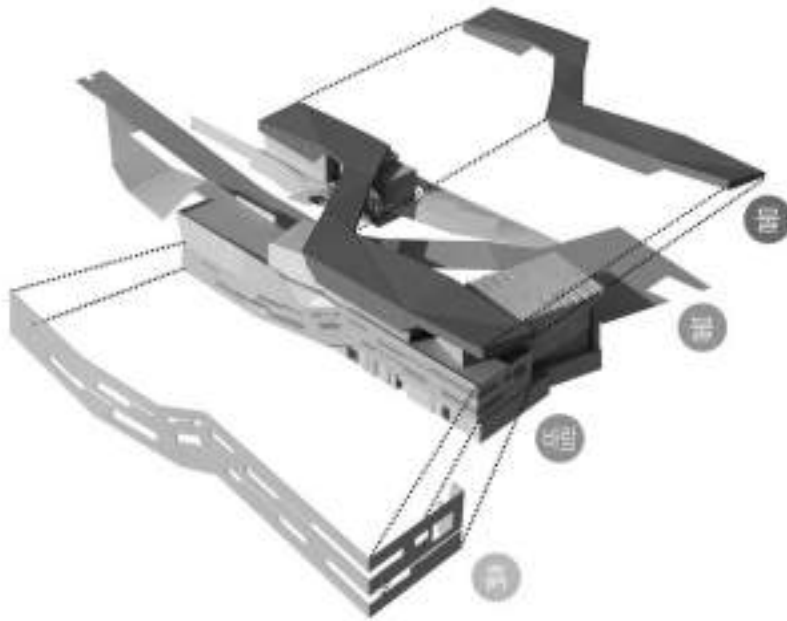


프로그램의 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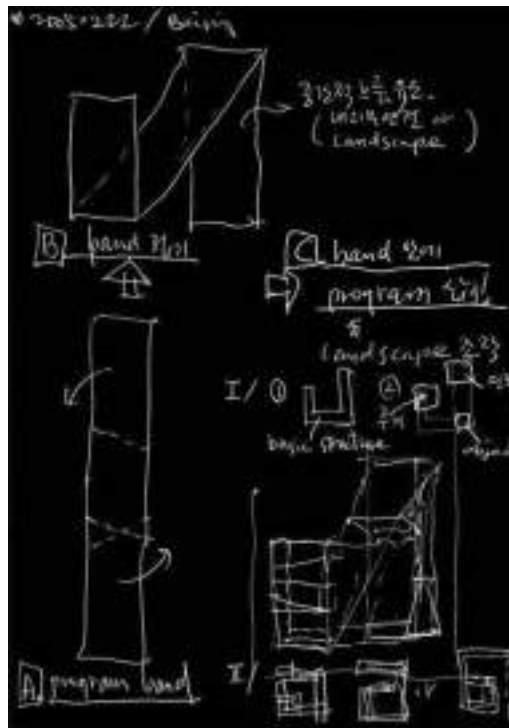
프로그램

‘창원대학교 내 스마트 홈 전시관 은 인공지능을 매개로 한 근미래 주거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전시관을 설계하는 프로젝트이다. 스마트 홈이란 IT산업의 발달로 Home

Automation의 이름으로, 때로는 Ubiquitous적 환경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는 주제이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적 여건이 바뀌면서 직·간접적으로 우리들 생활과 삶의 패턴이 영향을 받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삶의 패턴 변화에 따라 주거의 상태를



전체조직은 BASIC-STRUCTURE 로써의 접힌 밴드(FOLDED BAND)를 매개로 하여 주어진 프로그램을 수용하도록 하고 그들 사이에 적절한 흐름과 관계를 만들어내고자 했다.(주중대사관 관저 현상설계/2005.1~2005.3)



재해와 관련된 10개-주제관은 바람, 흙, 물, 불이라는 4개의 테마를 두고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Band Diagram을 만들어가며 설계가 진행되었다.(태백 국민 안전체험 테마파크 / 2005.5~2005.11)

예측하는 작업 또한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10년 전에는 일본에서 정보화 시대의 주거를 예측하는 아이디어 공모도 있었고, 96년 즈음에는 서울 건축학교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제의 워크숍을 했었다. 이 워크숍에서 한 선생은 일본의 경우를 빗대며 사회가 개인화되고 가족 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주거 패턴 또한 변화할 것임을 언급했었다. 지금 우리네 주거패턴은 거실이나 식당 등을 매개로 하는 중심의 공간에서 가족의 유대 관계가 형성되고 각자의 방에서 개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오히려 개개의 방에서의 생활이 주거의 중심을 이룰 것이라 예측되어진다. 이것은 1차적 접촉이 중요하던 전통적 공동체 의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는 ‘미니홈피 싸이월드의 1촌’과 같은 개념의 공동체 의식과 같은 것이 형성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의 한 단면이 아니라 보다 복잡하게 얽혀 변화할 것이고 한꺼번에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사회의 한 부분은 보다 빠르게 다른 부분은 다소 느리게 그러나 동시에 변해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는 하나의 시공간에서 동시에 그러나 따로 일어나고 있는 미래를 향한 움직임이다.

끝자락

건물이 들어설 자리는 창원대학 내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사이트는 창원의 시가지에서 먼저 맞닥드리고, 주변 도로상황과 지형적 형상으로 인해 내려다보이며, 건축학과 건물과는 레벨 차이를 갖고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조건들이 주는 암시를 통해 설계에 있어서 레벨차 극복이나 주변 비음산의 풍광 도입 등을 만족시키는 전체 조직의 기본 틀만 형성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의 해석에 따라 유동적 대응이 가능한 조직이 되도록 의도하였다.

기본틀(Basic Structure) 형성

형태적으로는 기울어진 부정형의 바닥판, 최소한의 동선체계, 주변을 의식한 지붕판, 이것들이 최소한의 틀로 제공될 것이다. 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관점들이 병치되어 공존 할 수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에서, 혹은 그들 끼리에서, 이런 상황은 저 사막에 피라밋을 세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힘(들루즈)을 구체적인 조건으로 찾아내고 디자인 하는 것이 건축행위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가 좋다.

이형잡증

땅의 잠재력을 읽어내고 프로그램을 재해석하고 또 다른 평계거리를 찾아서 그럴듯한 건축조직을 만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조건을 깨는 순간에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 같다. 건축적으로 열쇠는 도시조직과 건축을 잘 아우르는 Single Surface와 유동적으로 프로그램에 대응

하는 Folded Band 사이의 관계를 조직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한 번 좁은 망설이게 된다.

때로는 주중대사관처럼 망설이다 버리고, 때로는 성신여대 강의동이나 태백 안전 체험관처럼 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잘 마무리 된 경우도 있다.

조건들과 데이터를 보이지 않지만 의미하고 있는 힘(도시조직과 건축과의 연계나 건축적 아이디어 등)들이 시키는 대로 꺾매면 될 것인데, 그보다는 내게 익숙해 있는 방법으로 세련되게 꺾매고 싶어진다.

노새는 잡종강세라 한다. 아직도 나는 이들 둘이 싸운다. 그러나 또 다른 10년을 위해서 이형의 잡종강세를 만들어 보다 익숙하게 쓰고 싶어진다. 圖



설계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 9번지 창원대학교 내
대지면적	약 300평 내외
사업기간	2006~2008년 예정
연면적	약 400평
건축면적	약 250평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주요용도	전시장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조

금강하이테크밸리 Keumkang High Tech Vally

비움과 나눔
저층부 매스의 분절을 통한 ‘비움 의 공간’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도시 이미지의 시선을 연결하고, 넓고 깊이있는 전면 진입마당과 자연산책로의 남겨진 빈공간은 강한 흡입력을 지닌 대지로의 쾌적한 접근을 유도한다.

프로그램으로 가득 채워진 거대한 매스의 건축이 그 곳을 지배하기 보다는 ‘나눔 을 통

한 ‘틈’을 생성하여 자연과 일상 사이에 하나의 공간으로서 생동감 있고 풍부한 건축적 장소성을 의도한다.

이 계획안은 주식회사 금강주택이 새로이 급부상하는 첨단 벤처단지인 성남 2, 3공단 내에 독자적 이미지 구현과 지역의 랜드마크로 각인될 첨단 아파트형 공장을 구축함으로써 인근의 개발과 무질서가 공존하는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여 지명현상설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순히 업무공간이나 작업공간의 형성이 아닌 환경친화적이고 도심 속에 더 많은 휴게공간을 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고려, 매스를 최대한 대지 후면에 배치하여, 자연산책로 및 넓은 전면광장을 형성하였다.



이는 자연 속의 건축물이라는 느낌을 형성하여 단지의 쾌적함을 조성하고 이벤트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또한 전면광장에는 선크가든을 두어 보행선을 지상층과 원활히 연계하였고 보행산책로와 연계된 주출입구는 강한 흡입력을 갖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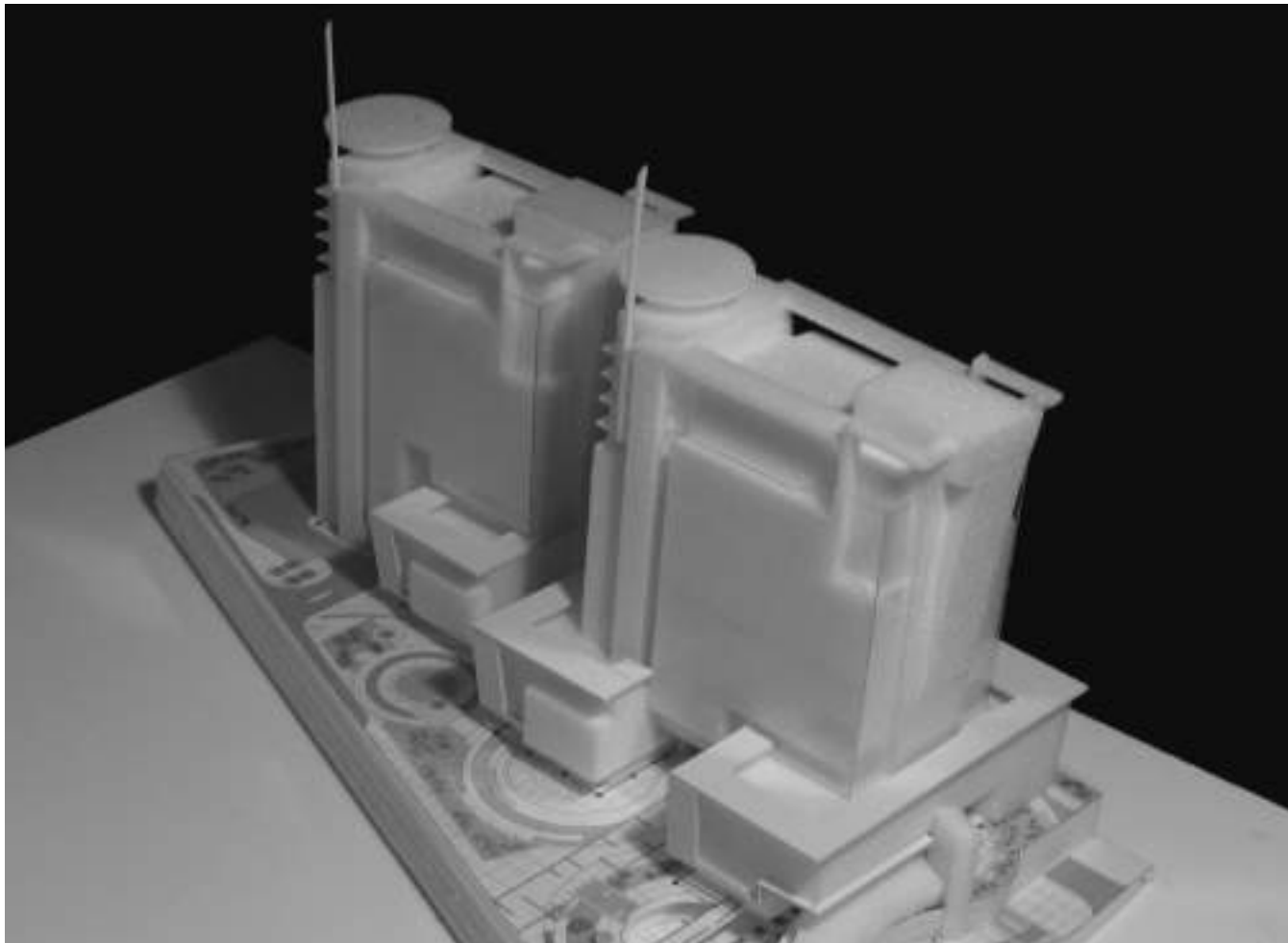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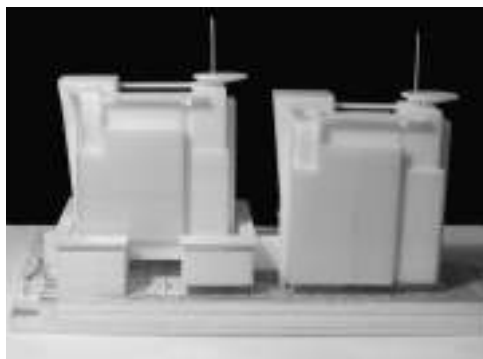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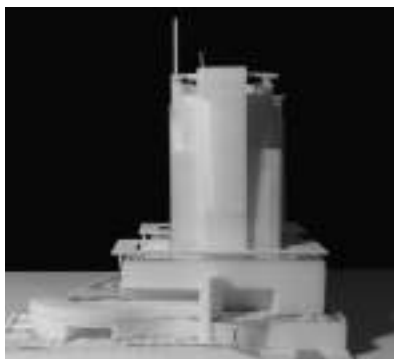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틀을 벗어나고자 중정형의 중앙 Core형식이 아닌 양단분리 Core형식

을 채택하여 외관의 육중한 볼륨을 극복하였고, 각 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Core의 분산으로 러시아워시 집중화를 해소하고, 구조적인 내진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사업자 측면을 고려한 기준층의 밀실한 구성은 전용률을 극대화하고, 기준모듈을 동일하게 8.1m로 계획하여 기능성 및 시공성을 충족시키되 분양시 가변, 분할이 자유롭도록 하였다. 최상층에는 내부중정을

중심으로 기숙사를 배치하여 최고의 조망권과 프라이버시가 확보된 주거공간을 구성하였다.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입면은 21세기 첨단벤처센터로서 하이테크와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업 이미지를 구현하고 현대의 친환경적 욕구를 충족하도록 계획하였다.

금속, 유리, 목재 등의 조화로운 재료이용으로 현대적인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기단부, 타워부로



적절히 분할되고 직선형 매스의 조합으로 조화로운 입면을 구성한다.

저층부는 보행자를 배려한 휴먼스케일의 입면 구성으로 목재패널 및 목재루버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한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구현하였다. 또한 역동적인 나선형태의 기단부는 전면광장과 연계되어 가로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고층부는 금속, 유리재의 규칙적인 반복으로 하이테크 이미지를 유도하였으며, Eco-Box,

Green Balcony 등의 오브제는 Green Building 으로서의 상징성을 통해 성남공단내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수행과 기업이미지를 일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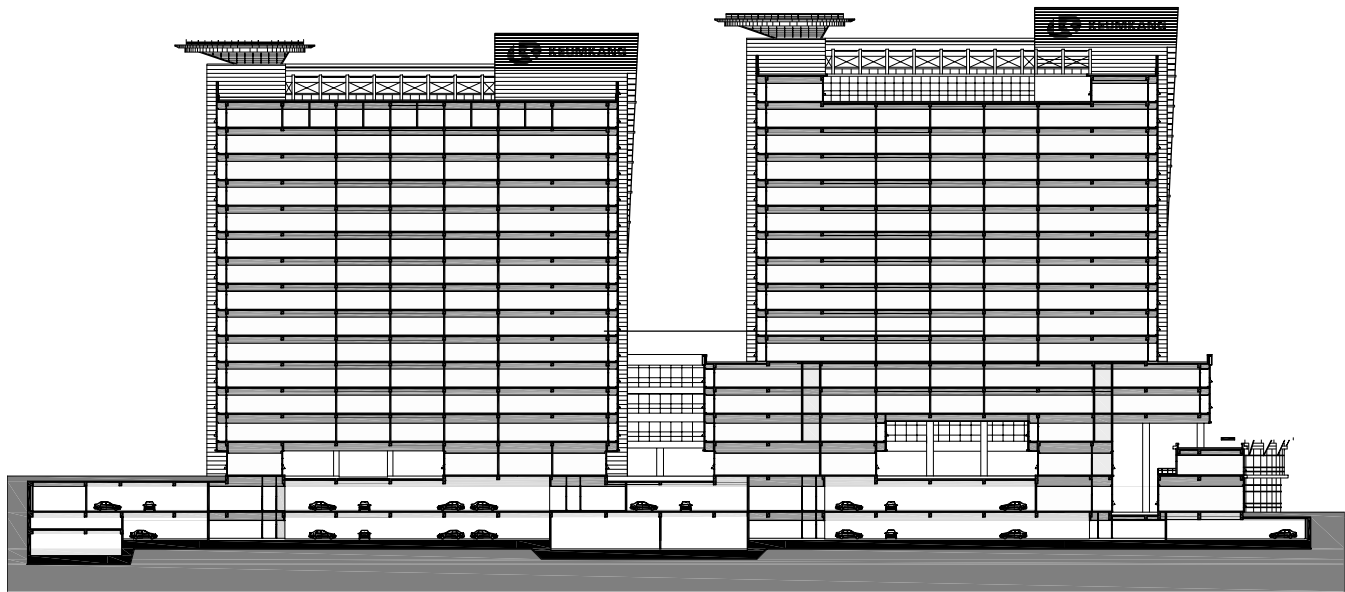


• 다양한 접근로 대지레벨차이를 이용한 효율적인 동선분리 및 원활한 접근 유도



• Green Network
—필로티를 이용, 대지내 자연 산책로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벤트 공간과 연계해 흥미로운 옥외공간 구성
—광장동에 관입되어 있는 Green Zone을 통해 건물내부로 녹지자연축을 연장, 쾌적한 공간 구성





단면도



조경계획



• 수직성/상징성
Solid패턴을 수직으로 구성하여 시각적 인지도 및 정면성 강조



• Green Network
광장동에 관입되어 있는 Green Zone을 통해 건물내부로 녹지 자연축을 연장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차별화된 재질
저층부에는 목재패널과 목재루버 등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기존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한 친근하고 편안한 이미지 구현



• Object
여러 방향에서 인지되는 최상층에 Eco-Box를 설치하여 Green Building으로서의 상징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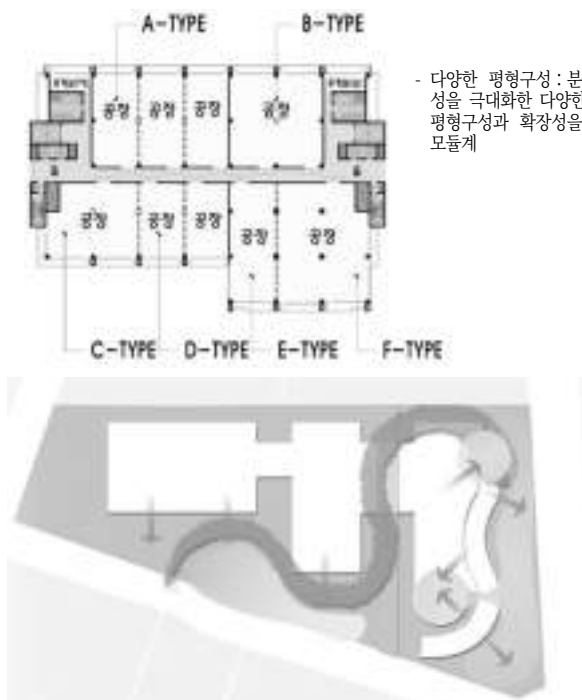
• Activity
역동적 사선형태의 기단부는 전면 Open Space와 연계되어 가로변 활성화 도모

■ 배치계획



- 두개의 타워 : 성남 2,3공단의 특성을 반영,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기업과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기업동으로 두개의 타워를 구성
- 다양한 접근 구조 : 경사대지의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 다양한 레벨(B2F, B1F, 1F)에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
- Open Space : 대지내 자연산책로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벤트 시설을 가미하여 풍성한 옥외공간 구성

■ 차별화 전략



- 다양한 평형구성 : 분양 효율성을 극대화한 다양한 타입의 평형구성과 확장성을 고려한 모듈계

- 지원시설의 평면 확장성 : 열린 잔디광장, 선큰광장, 진입마당 등 다양한 옥외공간과 연계된 계획으로 평면확장성 증대. 분양성 향상

■ Mass 구성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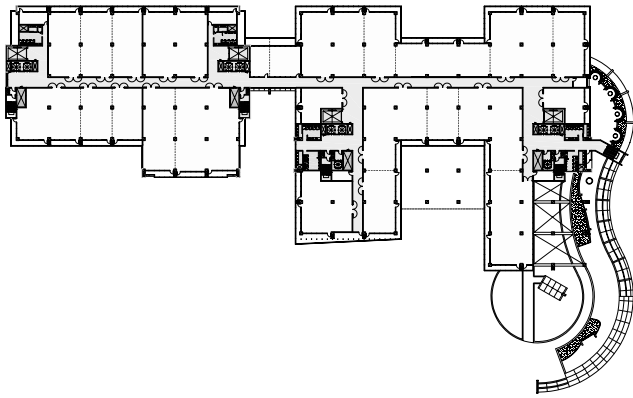
- 기숙사동 : 공장동 최상층에 내부중정을 중심으로 병렬배치하여 최고의 조망권과 프라이버시 확보
- 선큰광장 : 대지 특성상 생기는 레벨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큰광장을 구축, 지원시설군의 중심적 보행축 형성
- 공장동 : 인지도가 강화된 두개의 첨단 그린빌딩으로 구성하여 성남공단내의 대표 Land Mark로 역할
- 지원시설동 : 구내식당, 근생, 화이트니스 센터 등 공장동의 지원기능 및 지역활성화에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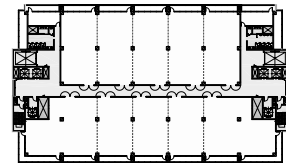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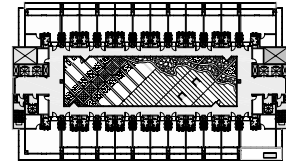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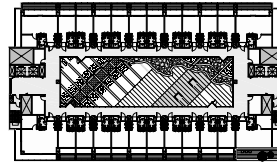
- 주변지역의 Land Mark : 2, 3공단의 대표적 이미지 구현과 첨단 하이테크빌딩 및 친환경 그린빌딩 이미지 구현, 공장동의 수직 상승감으로 인지도 및 상징성 확보, 지원시설의 곡선도입으로 역동성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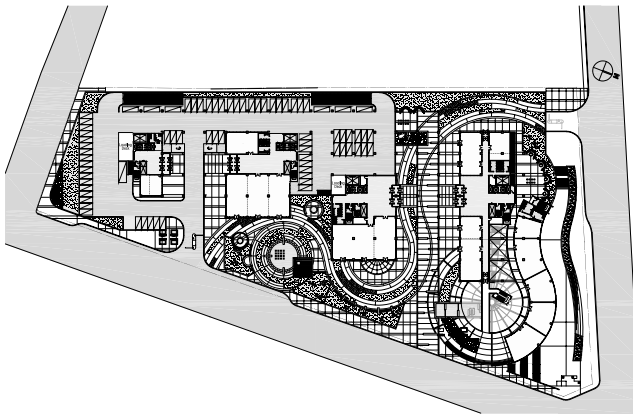
- 편리한 부대시설 : 집약적이고 편리한 코어 계획, 쾌적한 휴게공간 및 덴탈존 설치, 집약적 실외기실 설치, 다목적 세미나실 설치로 입주자의 사용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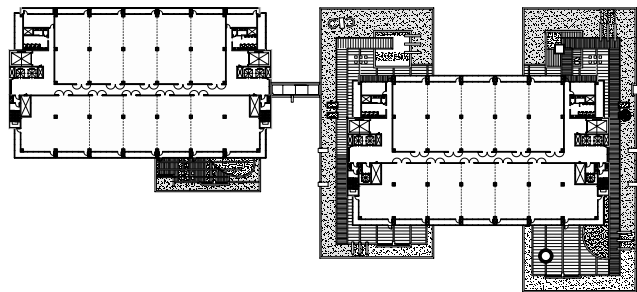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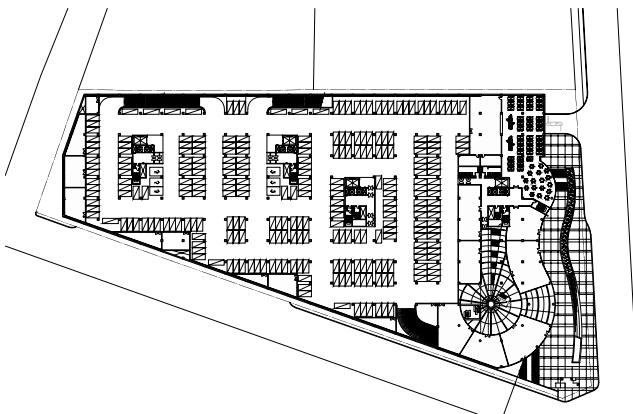
14~15 평면도



1층 평면도



5~13 평면도



지하1층 평면도

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33-7
지역지구	일반공업지구
주요용도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대지면적	17,082.00㎡
건축면적	7,529.01㎡
연면적	87,318.69㎡
건폐율	44.08%
용적률	349.44%
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최고높이	61.20m
조경면적	4,220.42㎡
주차대수	707대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저반사복층유리
설계담당	김동수, 곽동진, 김대영, 박진운, 배형식, 이태현, 임주섭, 황정기, 강동주, 신현수, 김호관, 김용우, 조복남, 유재만, 박동국, 김지희, 석진국, 안은숙

중문퍼시픽랜드 Jungmun Pacific Land

건축 개념

‘자연 우선주의 틀 기본 바탕으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 속에서 종합전시체험학습(돌고래전시, 어류전시, 해양 학습과학관), 관광숙박(콘도), 웰빙휴양(마리나, 해수사우나, 워터파크) 등과 같은 다양한 테마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 창출로 휴양 문화의 품격을 한층 높임을 사업의 목표로 하였다.

이에 각 시설의 배치는 해안선의 흐름을 따라 자연 그대로의 부지형태에 순응하도록 하였고, 건물의 형상은 소라 등과 같은 바다 생물을 형상화한 유선형 Mass 형태로 정형화된 타 부지의 건물과 차별화된 미감(美感) 창출 및 자연으로 동화되는 유기적 형태의 건물로 계획하였다.

‘퍼시픽랜드에서는 가족 및 연인 단위의 이용객들이 구성원 각자의 취향에 맞추어

맞춤휴양을 누릴 수 있다. 아빠는 마리나시설을 이용하여 바다낚시를 즐기고 주변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엄마는 해수사우나와 테라피를 즐기며, 아이들은 수족관에서 살아 있는 바다생물들을 만나고 돌고래공연을 관람하며 해양학습과학관에서는 바다에 대한 지식 학습이 가능하며, 공방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도자기 등과 같은 공예품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으며, 밤에는 공연을 관람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주요시설을 바다에 인접 배치하여 해양 조망권 확보하고, 경사 지형을 적극적으로 건축 계획에 도입하였으며, 주차장은 용도에 따른 주차공간 분리 및 기존 공용주차장과 연계로 성수기를 대비한 계획이 이루어졌다.

시설별 특징

■ 해양과학 · 수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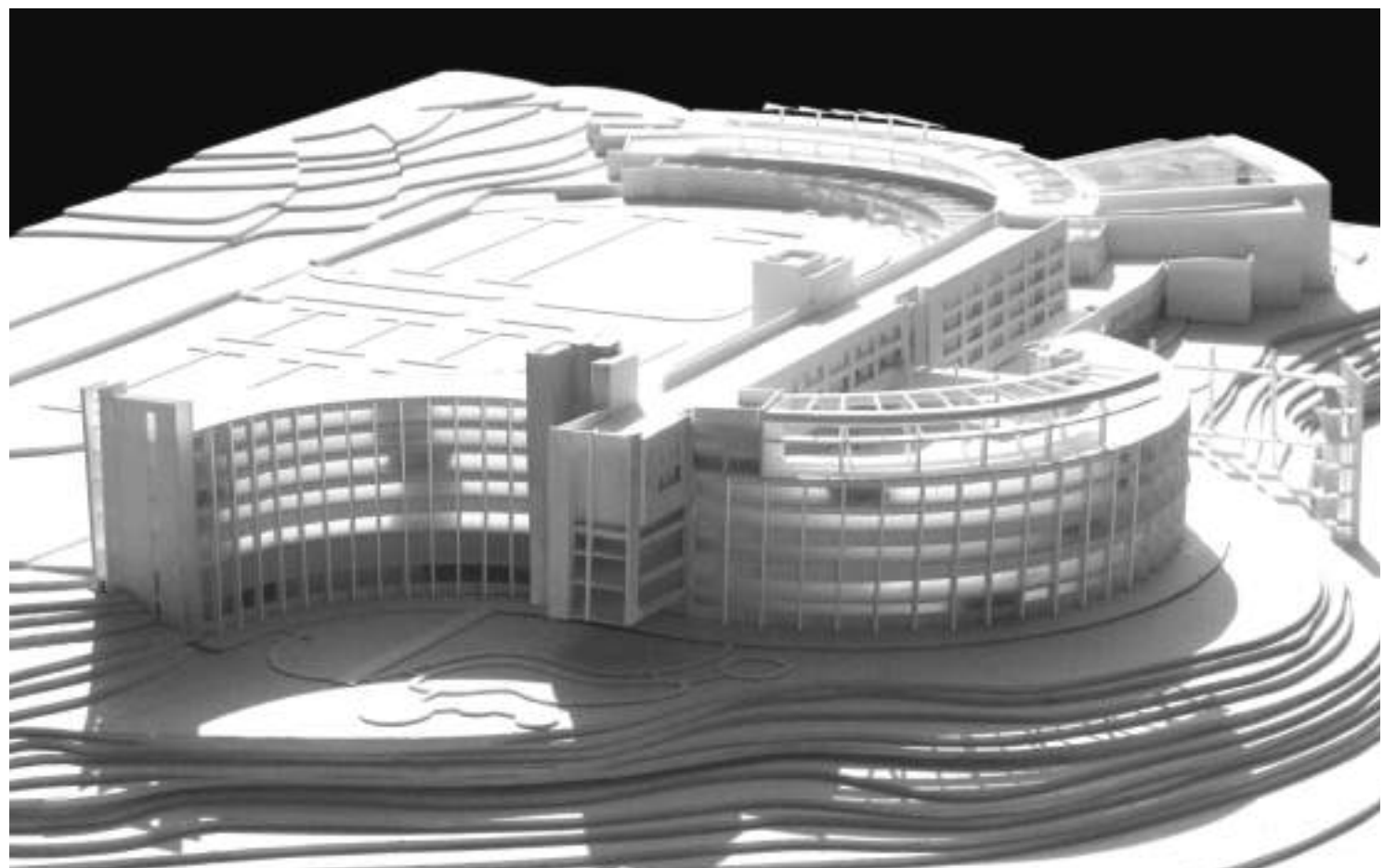
- 휴양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계획
- 자연에 순응하는 유기적 형태의 Mass
- 해양센터 각 시설(어류전시공간, 해양학습관, 돌고래전시공간)간에 원활한 연계로 삼위일체형 관람동선 유도
- 옥외 전시공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으로 해양 학습 및 체험의 장인 해양센터의 목적성 표출
- 관리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시설의 배치

로 통합관리시스템의 실현

- 어류전시공간 부분(수족관)
- 다양한 테마 구성과 실제 살아있는 바다 생물을 이용한 경이로운 공간 창출로 체험 및 학습효과 극대화
- 해양학습과학관과의 연계를 고려한 동선계획
- 자연채광에 대한 차폐성을 필요로 하는 전시공간 특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 온대와 열대가 공존하는 특이한 제주 바다와 화려한 열대 해양생태계를 생생하게 재현
- 국내 최대의 수조용량과 최초로 자연채광을 도입한 오션탱크 설치
- 제주해녀수조, 대형 해저터널, 체험 터치풀 등을 설치하여 이벤트 기능과 생동감을 강화한 미래지향형 아쿠아리움 계획
- 돌고래전시공간 부분(돌고래쇼 장)
- 다양한 공연의 변화에 대처한 설계
- 전면창과 천장을 설치하여 해양 및 하늘 조

망권을 확보하여 드라마틱한 공연 연출

- 자연채광을 최대한 확보하여 에너지 효율 극대화
- 확실한 LSS(Life Support System)의 설치로 최고의 공연 유도
- 해양학습과학관
- 이미 멸종된 바다생물과 현존하는 제주 바다생물이 공존하는 전시계획으로 해양학습 효과 극대화
- 전시공간 특성 및 어류전시장과와의 공간 연계를 고려한 평면계획
- ‘체험과 교육이 있는 전시’, ‘흥미롭고 재미 있는 전시’, ‘변화하며 생동하는 전시’를 Keyword로 하여 타 시설과 연계한 해양관광센터 체험의 완성 구현
-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제주 바다의 과거, 현재, 미래의 표현으로 올바른 해양학습의 방향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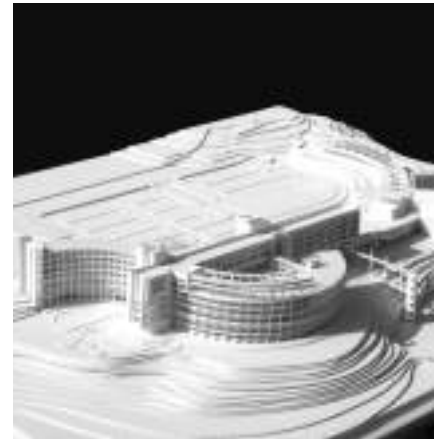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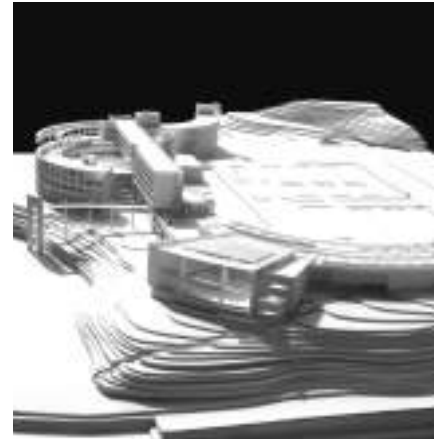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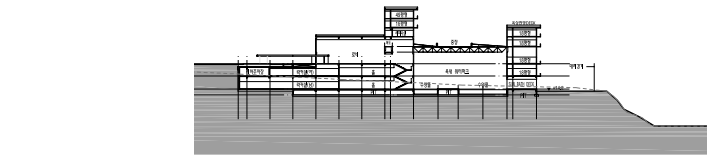
- 해양 Diorama, 체험공간, 영상관 등을 통한 흥미를 유발하는 전시공간 창출

■ 해양테마 콘도미니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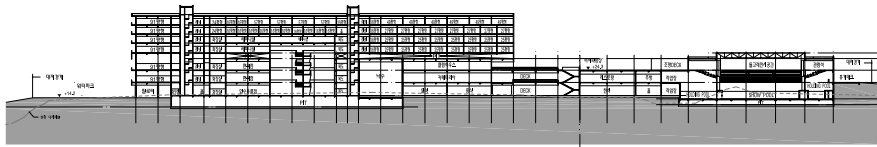
-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부분
- 전체 객실의 해양 조망가능(편복도 평면형태)
- 다양한 형태의 객실계획(총 204개실 이상)
- 부대시설의 해양조망 및 워터파크 등과의 연계. 공연장, 각 식당·해양 조망이 가능한 옥외 DECK와 연계. BEACH BAR : 주간의 해양 조망 확보 및 야간의 조명 등을 이용한 옥내외 워터파크의 극적 연출. 옥상전망 DECK : 해양조망이 가능한 옥상공간을 휴게공간으로 활용
- 숙박시설과 부대시설(사우나, 워터파크, 공연장, 공방, 식당 등)을 수직 연계하여 이용객의 편의 도모
- 해수 사우나 부분

- 바다 조망을 확보하여 타 지역 사우나와의 차별화 전략
- 옥내외 워터파크와의 원활한 연계동선으로 다양한 휴양시설 체험
- 사우나와 관련 부대시설(테라피센터, BEACH BAR, 입수용품상점 등)의 연결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
- 콘도와 수직 동선으로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 추구
- 워터파크
- 옥내, 옥외로 분리 설치하여 사계절 및 주·야간 전천후 이용이 가능토록 유도
- 중문해수욕장과 연계가능한 옥외 워터파크 배치계획
- 바다를 테마로 하는 차별화 실현으로 제주도의 상징적 Resort로 정착
- 담수Pool, 바데 Pool 등 각종 이벤트 Pool 등을 설치하여 다양한 웰빙 체험공간





종단면도



횡단면도

설계개요

대 지 위 치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950-5번지 일원 (중
문관광단지내)

용 도 해양과학·수족관

해양테마 콘도미니엄 마린나시설

부지면적 총 92,342㎡

해양센터+콘도 : 49,950㎡

마린나시설-하천매립지 : 10,107㎡

—공유수면 : 32,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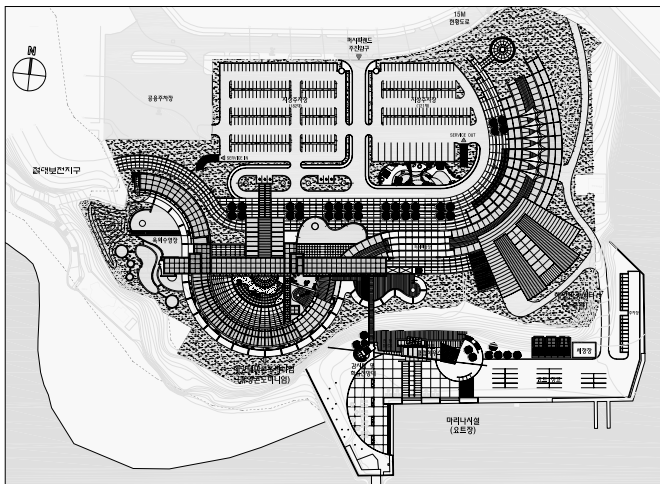
규 모 해양관광센터-지하 2층, 지상 1층

해양테마콘도미니엄-지하 2층, 지상 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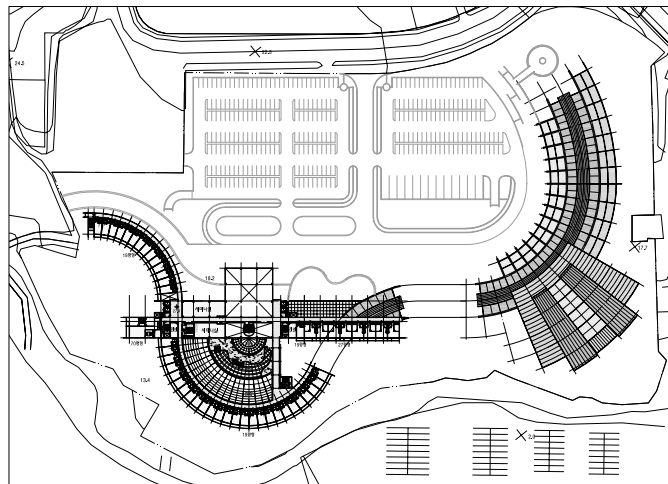
연 면 적 57,090㎡

해양관광센터-21,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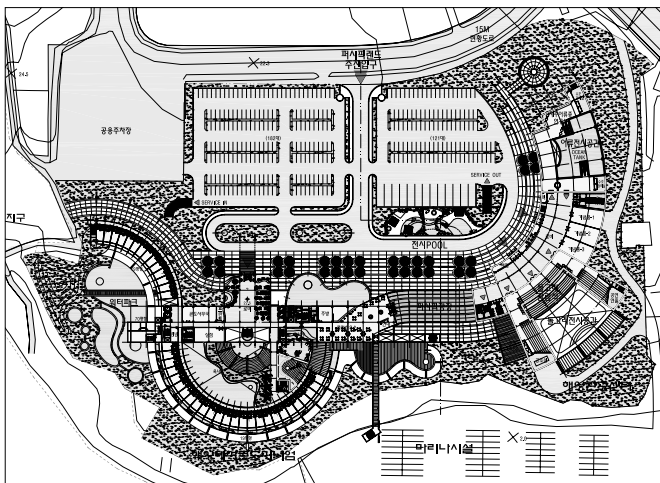
설 계 담 당 김동수, 광동진, 김대영, 박진윤, 배형식, 이태현,
임주섭, 황정기, 강동주, 신현윤, 김호관, 김용우,
조복남, 유재만, 박동국, 김지희, 석진국, 안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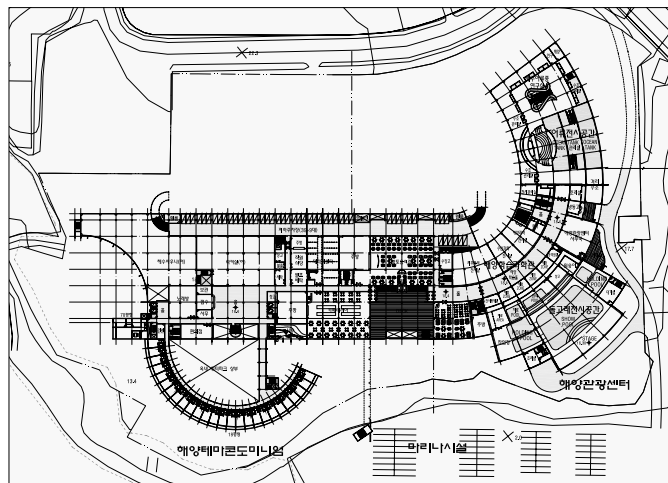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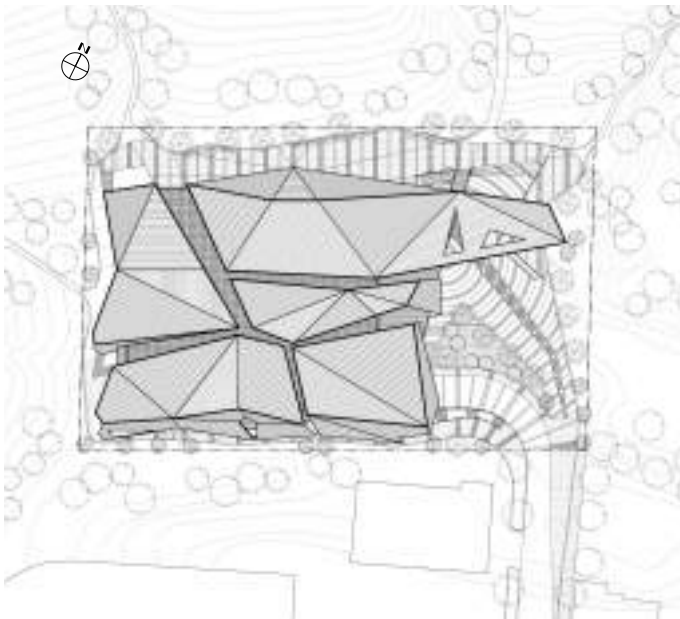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계남근린공원내 다목적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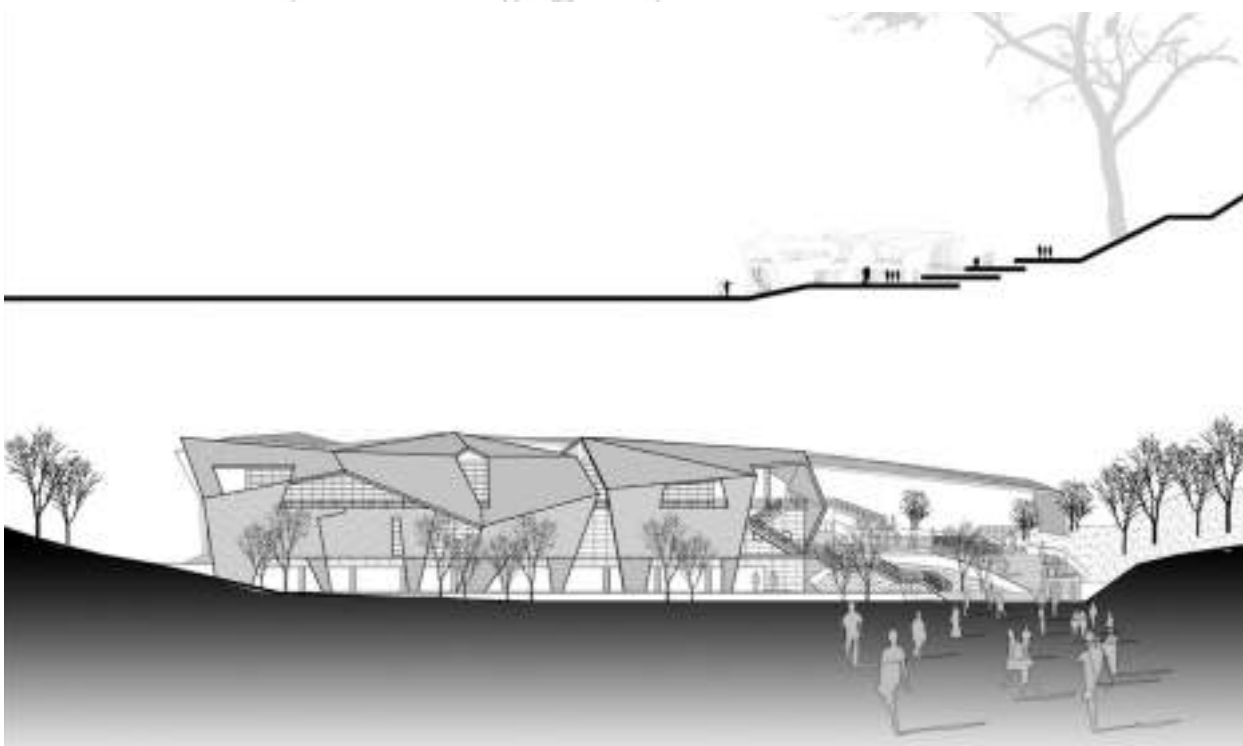
Sports Complex, Gyeonam Park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양천구 신정3동 695-6호 일대 (계남근린공원내)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기타
대지면적	6,400㎡
건축면적	2,970.75㎡
연 면 적	3,403.74㎡
건 폐 율	53.18%
용 적 륜	46.42%
구 조	철근 콘크리트라 멘조, 철골 라멘조, 일부합성가동(CFT가동)
규 모	지상 2층
외부 마감	Wood Strip 패널, 칼라복층 유리, 알루미늄패널
설계담당	김두환, 최지호, 최정인, 김형곤, 조상은



목동신시가지 끝자락에 위치한 계획대 상지는 인근 주민들이 산책, 등산 및 가벼운 운동을 하는 근린공원으로서 무엇보다 는 훼손되지 않는 자연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한 곳이라 여겨진다.

조직만들기

숲속에 여러 갈래로 뻗어있는 등산로를 기준으로 체육관 표피를 여러개의 절편으로 나누었다. 나뉜 절편들은 공원 내 등산로와 연결시킴으로서 기존의 질서와 흐름을 보존토록 하였다. 이와같이 등산로와 연결된 외부계단, 데크, 출입구등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과거부터 서 있었던 것처럼 친근한 시설로서 있을 것이다.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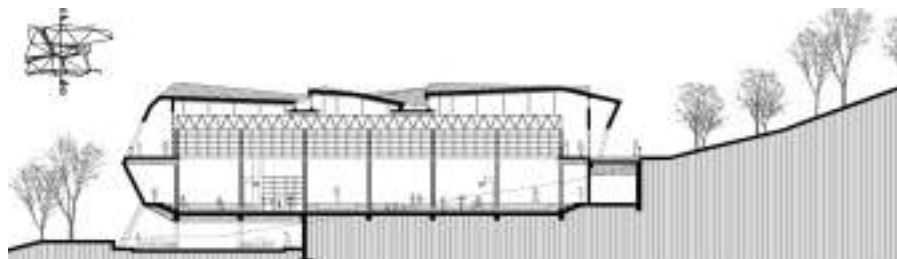
나뉜 각각의 절편들은 체육관 외관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이들의 모양과 형태는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의 선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그 재질은 목재를 사용하였다. 또한, 벽과 지붕의 구별을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접혀진 절편들은 자연스럽게 숲속의 조직과 일체화 되도록 함으로서 연속성을 갖도록 하였다.

자연과 공존하기

공원의 진입부에서 시작한 경사는 자연스럽게 주차장, 진입마당, 휴게데크 등으로 진입되도록 함으로서 자연지형을 이용한 다층적 공간 구성이 되도록 하였다.

등산로에서 차용한 체육관 지붕의 결의 천창과 연속적으로 접혀진 절편들의 틈새는 자연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이 될 것이며, 2층고창과 접혀진 절편의 틈새 공간 데크는 등산로와 연결되어 주민들 상호간 접촉의 빈도를 넓혀주는 매개 공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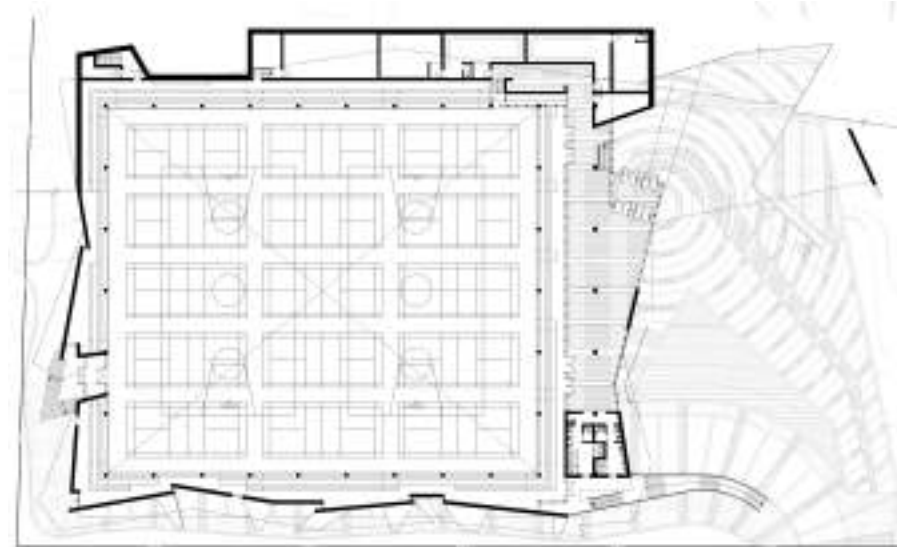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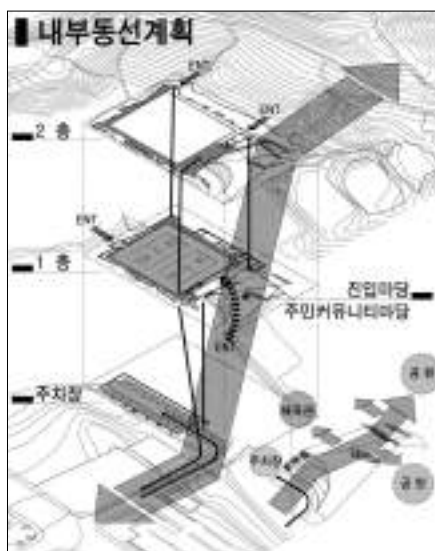
이렇게 함으로서, 숲속에 자리잡은 체육관은 숲속에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서 공원과 체육관을 사용하는 주민들과 항상 친근한 시설로서 조용히 그곳에서 있을 것이다. ㉮



단면도



남측면도



1층 평면도

서울시청사 증·개축 터키

Expansion and Remodeling of the Seoul City hall building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적격자로 삼성물산컨소시엄(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해 9월 시청사 증·개축 사업과 관련 ‘아이디어·터키공모 방식에 따라 ‘서울시청사 증·개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실시설계에는 대림, 롯데, 삼성, 현대 등 총 4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였다.

새로이 건립될 시청사는 총 1,565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89,968.02㎡, 지상 21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5월에 착공하여 2009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건립될 시청사는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하는 서울의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자기, 한복의 소매, 처마선 등 한국적 전통미에서 비롯된 부드러운 곡선의 조형을 보

여주면서 유리에 의한 투명한 외관을 통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시정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세계적인 건축경향에도 부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신청사가 완공되면 사무환경개선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갖추어 시정 생산성 향상과 시민자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임은 물론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시청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사가 건립될 부지의 건물은 이미 지난 3월15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보존되는 본관 등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신청사 건립시까지의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게 된다. ■

서울시청사 건립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대지면적	12,709.4㎡(3,845평)
규 모	지하4층, 지상21층
연 면 적	98,474.40㎡(29,788.5평) -본관동 : 8,506.38㎡ -건립동 : 89,968.02㎡
사 업 비	1,565억원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2개월 (증축동 - 36개월)
설 계 사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시 공 사	삼성물산(주)+SK건설(주)+쌍용건설(주)
추진계획	-2005년도 ▷기본계획 수립 ▷아이디어 공모 ▷공사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2006년도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2009년도 ▷공사준공 및 입주



서울시청사 증·개축 턴키

Expansion and Remodeling of the Seoul City hall building

당선작 /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손명기·김관중)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정영균) + KMD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용 도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2,709.40㎡
건축면적 7,608.00㎡
연 면 적 98,474.40㎡
건 폐 율 59.86%
용 적 륜 581.22%
규 모 지하 4층, 지상21층
구 조 철골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24 칼라로이 복층유리, THK24 칼라복층유리, THK12 S.ST L 스위트, THK3 AL 스위트, THK24 화강석
시 공 사 삼성물산(주), 에스케이건설(주), 쌍용건설(주)
협 력 사 전우구조, 우원M&E, 협인, 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새걸이앤씨, 국보디자인

아시아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세계일류도시로...

인구규모 10위. 세계 경제 규모 11위라는 위상에 걸맞게 서울은 세계 일류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청계천의 복원에 이은 서울시청사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인의 가슴 속에 각인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작업이라고 인식한 디자인팀은 초기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서울시민들이 가진 '도시브랜드 파워' 제고에 대한 열망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세계화 시대에 도시경쟁력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환경의 쾌적성 이외에도 도시상징 아이콘의 필요성은 언론에 자주 언급되고 있다.

세계의 선진도시들은 나름의 고유한 이미지와 아이콘을 갖고 있다.

파리는 '빛의 도시-City of Light', 오스트리아 빈은 '음악의 도시-City of Music', 호주의 시드니가 오페라 하우스로 기억되는 것처럼 '서

울 이란 도시 브랜드를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강렬한 이미지와 아이콘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아이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도시맥락읽기

서울시청사 주변의 도시 맥락을 살펴보면 북측은 조선의 왕도로서 육조관아거리와 종로가 이루는 전통적인 느슨한 격자 패턴이며, 남측은 태평로, 소공로, 덕수궁로 등에 의해 형성되는 방사형 패턴을 보이는 두 가지 도시패턴의 충돌을 목격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가지 패턴의 충돌은 고종황제에 의해 시작된 근대화사업-태평로 일대 도로의 정비-이 좌절로 돌아가고 결국 일제에 의해 서울역-남대문 축선도로가 태평로로 확장되면서 격화된다. 역사적으로 서울 600년 역사의 '생명의 축'은



멀게는 북악과 관악을, 도심에서는 경복궁과 남대문을 축으로 해왔다. 정도전과 무학대사의 외사산-내사산 논쟁이 수도의 틀을 잡는 중요한 지적논쟁이었다는 것도 대단히 흥미로운 상황임을 디자인 과정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에는 ‘경무대-총독부-경성부청-남산신사를 잇는 축’을 도입하여 이러한 전통을 깨뜨리려 시도했다.

계획안은 경복궁과 남대문 중간 위치에 있는 시청사가 이 일제의 축에서 벗어나 다시금 남대문에 경의를 표하게 함으로써 역사의 힘을 회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디자인은 고층부가 덕수궁의 중화전, 원구단이 이루는 방향을 따르면서 동시에 시청사 타워의 간극은 남대문을 향하도록 했다.

이것은 작은 시도이지만 서울의 역사성과 ‘생명의 축’을 회복하려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아이디어 공모와 턴키공모 디자인을 거치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이러한 역사도시와

근대화의 갈등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었다. 1926년에 세워진 기존 청사는 독특한 ‘본(本)자’형상으로 증축부분이 어떻게 디자인되더라도 기존청사와 증축동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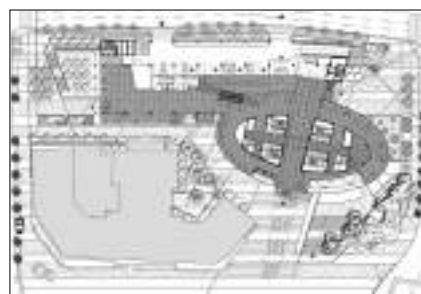
도시패턴의 갈등과 두 신구건축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울시 청사는 이러한 상이한 도시패턴의 충돌점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자연히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타원형의 형상을

가진 디자인이 떠오르게 시작했다.

부드러운 타원형의 디자인은 모든 도로의 축선을 감싸 안듯이 모아서 포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 圖



지상9층 평면도



지상1층 평면도



배치도



좌측정면도



서울시청사 중 · 개축 턴키

Expansion and Remodeling of the Seoul City hall building

참가작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강희성 · 서해천) +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김홍철)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주수웅) + NBBJ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주 용 도 공공 업무 시설
 대지면적 12,709.40㎡
 건축면적 7,609.00㎡
 연 면 적 97,893.49㎡
 건 폐 율 59.87%
 용 적 륜 592.17%
 규 모 증축동 - 지하 4층, 지상 21층
 보존보관동 - 지상 7층
 구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THK 24 칼라(투명)복층유리, THK 24 로이복층유리
 시 공 사 현대건설(주), 동부건설(주)
 협 력 사 다원구조, 삼신설계, 나라기술단, 한석소방, 에이스올, 가원조경

전세계의 많은 선진 도시들은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건축아이콘을 만들어가고 있다. 파리의 에펠탑, 런던 시청사,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에 이어 이제 새롭게 태어날 서울시청은 전세계인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훌륭한 아이콘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한국인의 힘이 반영된 특별하고 개성있는 모습이 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랜드마크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건축물의 최대규모, 최고 높이와 같이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랜드마크가 아닌 대지의 성격을 반영하고 주변과 소통하며 이시대의 다양성을 반영한 랜드마크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설계개념 개념은 'DYNAMIC HARMONY'이다. 도시 · 시민 · 자연 · 역사라는 네개의 힘들이 하나로 화합하며 역동적으로 상승하는 힘! 신명나는 화합과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러한 개념하에 네가지 세부개념을 도입했다.

첫 번째는 역동적인 상징이다. 3·1운동을 비롯해 2002년 월드컵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표출되었던 대지의 힘을 표현했다.

두 번째는 도시와의 소통이다.

다양한 정면성을 가짐으로써 서울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개성을 입체적으로 투영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시민과의 호흡으로 서울시청사는 시민의 공간으로 그 중심에 상징적 시민홀을 계획해 시민과 어우러진 열린시청으로 거듭난다.

네번째는, 자연과의 교감이다.

덕수궁 · 송례문 · 남산 · 경복궁 등... 사방에서 이어지는 녹지의 흐름을 건물 내부로 유입시켜 입체적인 녹지체계를 완성했다.

이러한 계획개념 네가지는 조형계획과정으로 이어진다. 역동성을 상징하는 형태, 도시와 소통하는 다양한 입면, 시민과 호흡하는 메가뜨리움,



자연과 교감하는 녹지계획이 합쳐져 저희의 계획안이 완성되었다.

새로 지어질 서울 시청은 미래 한국의 역동적인 건축 아이콘으로서 전 세계를 향한 한국인의 힘을 대표해야 한다.

다양한 힘들이 하나 돼 조화를 이루는 역동적인 랜드마크, 도시와 호흡하며 입체적으로 인식되는 다양한 정면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통합하며 열려있는 메가트리움 공간, 지하철과 시민문화시설을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쾌적한 생활문화물, 효율적인 업무공간의 중심 Hyper Office, 주변 자연과 교감하는 입체적인 그린존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최고의 업무환경으로, 시민에게는 친근하고 매력적인 생활공간으로 전 세계인에게는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건축아이콘으로 거듭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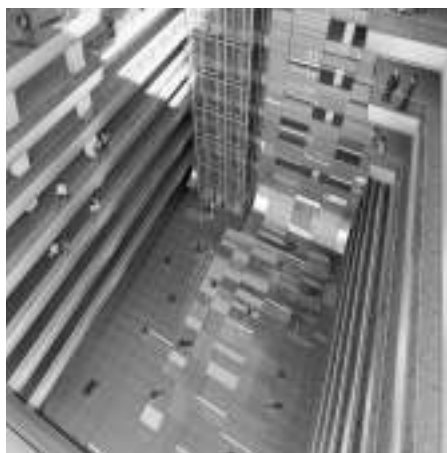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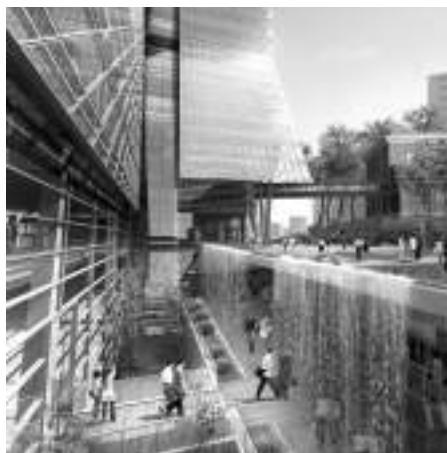
1층평면도



배면도



우측면도



서울시청사 증·개축 턴키

Expansion and Remodeling of the Seoul City hall building

참가작 /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안길원) + 무영아멕스건축사사무소(길기석) + (주)삼하건축사사무소(이석도) + d+p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2,709.40㎡
 건축면적 7,589.63㎡
 연 면 적 96,725.65㎡
 건 폐 율 59.72%
 용 적 륜 557.53%
 규 모 지하 4층, 지상 21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THK24 복층유리 더블스킨,
 THK52 삼중유리
 시 공 사 대림산업(주), (주)한화건설, 태영(주)
 협 력 사 창·민우, 목원ENG, 일신ENC, 덕성알파
 ENG, CA조경, 맥앤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시청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열린 시청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서 상징성과 기능성 두 가지를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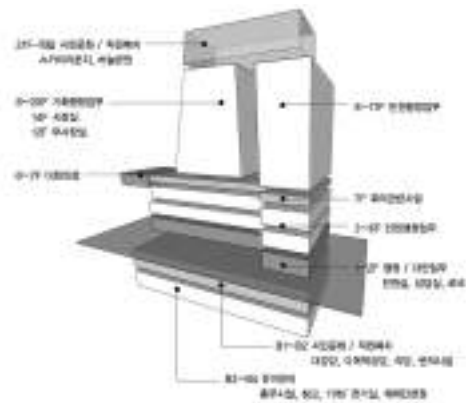
한 국가를 상징하는 시청의 상징성은 관련 법규와 제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55미터 폭원 규정을 준수하면서 미래로의 관문을 상징하고 다이내믹한 에스자 형태의 모양으로 시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친근한 상징성을 갖도록 했으며 전통의 격자 문양을 재해석한 다이아몬드 스킨으로 한국의 전통성을 입면에 반영했다.

기능성 면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열린 시청이 되도록 했다. 지하 일, 이층, 지상 일층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광화문에서 승례문으로 이어지는 걷고싶은 거리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옥상층에는 문화와 휴식이 있는 옥상 정원과 공연장으로 계획하여 명실

상부한 시민 문화 휴식 공간으로 제공했다.

네 개의 옥상정원, 각 층의 실내 정원, 더블 스킨을 이용한 입면 녹화 등을 통해서 친환경 건축의 새로운 모범이 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다.

변화하는 행정기능변화에 적극적 대처가 가능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계획과 첨단 바닥 공조 방식과 더블 스킨, 삼중유리를 도입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며 쾌적한 사무 환경이 이루어지는 첨단 빌딩을 계획했다.

우리는 끝까지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열린 시청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다이나믹한 상징성과 시민 문화, 휴식, 녹지 공간을 계획했으며, 더블 스킨과 첨단 재료를 사용한 기능적인 시청을 계획했다. 圖



배치도



정면도



동서측면도



서울시청사 증·개축 턴키

Expansion and Remodeling of the Seoul City hall building

참가작 / (주)원양건축사사무소(이종찬·성진용)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31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방화지구
 용 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12,709.40㎡
 건축면적 7,614.34㎡
 연 면 적 97,586.66㎡
 건 폐 율 59.91%
 용 적 륜 594.39%
 규 모 지하 3층, 지상 22층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시 공 사 롯데건설(주), 금호산업
 협 력 사 (주)정일구조기술사사무소, (주)한일엠이씨, 대일이엔씨기술(주), (주)한국방재엔지니어링, (주)에스텍 컨설팅 그룹, (주)신화건설링, (주)고미건축 디자인, J+B Studios, 이지건축모형 교육연구소, apoint design

서울의 중심축 바로잡기와 시청사 증축의 의의
 (전통적 도시 구조의 복원)

옛 서울의 영역과 골격의 복원
 최근 문화재청 발표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광화문 광장과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전면개방에 집중되었지만 실상 그 본질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근본틀, 그 골격과 축을 살리는 것에 있다. 그 중 경복궁·광화문 일대, 도심의 상징적인 도심 축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옛 서울의 도시구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도시로서 도시구조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상징적인 도심 축을 회복함으로써 뼈대를 바로 세울 수 있으므로 이것으로 우선 역사도시의 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왜곡된 광화문, 세종로 영역의 중심축
 경복궁은 삼각산(북한산)과 관악산의 축 선상에

위치한다. 그런데 이 본래의 축이 깨진 것이 일제시대의 일이다. 당시 광화문이 옮겨지고 조선총독부가 준공되면서 도시축의 변화가 오는데, 약 5.6 정도 틀어진 작은 지금의 시청인 경성부청을 지나 남산의 조선신궁을 향하고 있다. 여기에 광화문 앞의 육조거리는 직선으로 바뀌고 세종로가 조성되었으며, 그 결과 경복궁 본래의 축 대신 조선총독부와 조선신궁을 잇는 축이 생겨난 것이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광화문 재건립할 당시, 본래의 축을 찾지 못하고 광화문은 조선총독부의 축에 맞추어 건립되고 만다. 두차례에 걸쳐 100m로 확장한 세종로 역시 이축을 기준으로 확장하게 된 것은 자명한 일인 것이다.

역사성과 진정성에 바탕을 둔 상징축의 근간으로의 시청사
 조선총독부가 헐려나가고 경복궁이 복원되면서



전통 축의 어긋남은 더 확연해졌다. 이 축은 대한민국의 상징축이다. 이 축을 바로잡는 것이 도시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대한민국 상징축 복원을 위한 계획으로서 광화문의 축이 제자리를 찾고 그 앞으로 광장을 조성하는 계획과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던 직선도로를 ㄷ자 형으로 구성하며 광장을 확보하고 이후 세종로의 도로 받은 육조거리의 흔적을 따라 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 등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세종로는 다시 한번 국가중심가로로서 조성되어야 하며, 도시의 열린 휴식공간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한다. 이에 총독관저의 대(大), 총독부의 일(日), 경성부청의 본(本) 그리고 조선신궁의(天)등의 개념으로 형성된 일제의 축의 중심에 있는 경성부청(현 서울시청)의 성격규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5.6° 틀어진 민족의 축을 바로잡기 위해 구 경

성부청은 보존하되 증축되는 시청사 건물은 서울의 전통적 역사맥락에 순응하는 축의 근간으로 자리 잡혀야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상징축의 근간으로서의 신시청사 계획 방법론

배치계획 - 경성부청으로 향하는 5.6° 틀어진 민족의 축을 바로잡기 위해 삼각산(북한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축을 경성부청(기존 청사)의 우측 신시청사건물에 적용하였다.

이로써 외사산(북한산, 관악산, 덕양산, 용마산)과 생명의 축의 관입이 신시청사의 분절된 매스 중심으로 가능해 졌으며 삼각산(북한산)과 관악산을 연결하는 곧은 민족의 축을 그 본연의 모습대로 신시청사 매스에 삽입시켰다.

평면계획 - 단순히 시청사 증축문제에 국한되지 않기 위해 향후 문화1번지로 개발될 광화문지역

과 연계하여 세종로에 인접한 문화 콤플렉스 및 거리정원을 저층부에 계획하였으며 이는 공연, 컨벤션, 문화강좌, 전시 및 갤러리, 민원실 등과 함께 복원될 역사가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복원정책 및 문화거리 조성정책에 향후 부응하는 유기적 평면계획이 되도록 하였다.

단면계획 - 행정타워 동의 하늘정원은 분절된 두 동의 매스 사이로 복원된 서울의 상징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여 상징축의 근간이 되는 시청사의 힘을 더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지하철 및 시민광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지하층 민원실 설치로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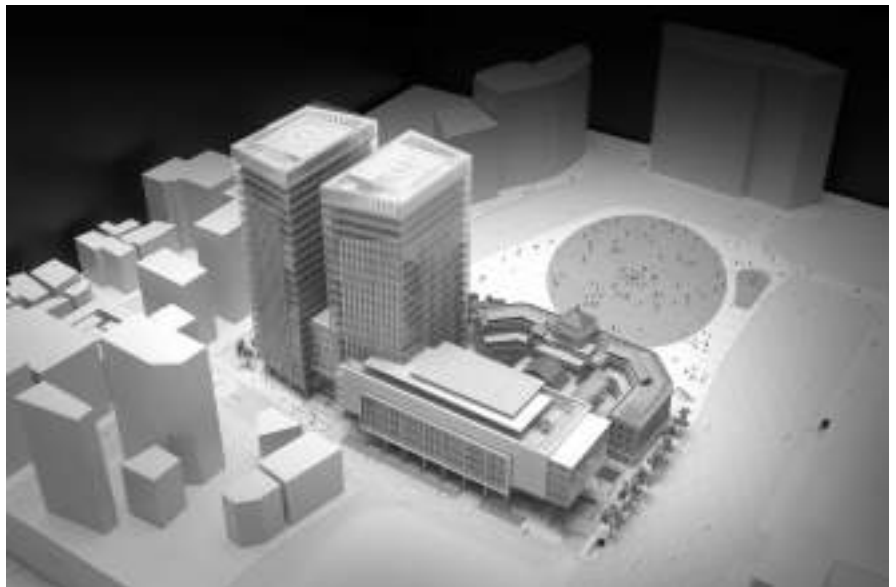
한양의 풍수지리 개념도



경복궁의 축선과 5.6° 틀어진 조선 총독부의 축선



총독부-경성부청-조선신궁으로 연결된 축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경기도는 지난 4월 4일 서울 코리안나 호텔에서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의 당선작으로 니콜라스 데마지에르와 아누크 르장드르(익스-튀아키텍츠/프랑스)의 ‘선사유적지로 통하는 문’을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해 11월 21일에 공모하여 총 48개국 346점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UIA에서 위촉된 심사위원 8인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 1점, 2등작 1점, 3등작 2점, 장려상 5점, 입선 31점을 선정하였다.

선정 작품들은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전곡리 선사유적지와와의 조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제시한 설계지침에 따라 유적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전곡선사박물관 자체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작품들이다.

시상식은 4월 17일 2시에 인사동 학교재에서 개최되었으며, 이날 밤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당선자들과 심사위원간의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당선작 40점이 일주일간 전시되기도 했다.

• 수상작명단

- 당선작 : X-TU Architects(France)
- 2등작 : Paul Preissner(USA)

—3등작 : Lann Combs(USA), Satoshi Matsuoka + Yuki Tamura(Japan)

—4등작 : Amedeo Schiattarella(Italy), Stephane Lagre (France), Lars Spuybroek(Netherlands), Antoine Chaudemanche(France), Adriano De Gioannis(Italy)

• 심사위원명단

- Byung Hyun Kim, architect(Korea)
- Kerl Yoo, architect(Korea)
- Sungjung Chough, architect(Korea)
- Ishiyama Osamu, architect(Japan)
- Hani Rashid, architect(USA)
- Cesare Maria Casati, President of ARCA Publications(Italy)
- Roberto Simon, architect(Brazil) representing UIA
- Alternate : Anca Bratuleanu, Professor(Romania)

- 문의 : 경기도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건립팀 031-288-5447, www.jeongokmuseum.org,

FUNCTION/SPACE	Area(m ²)	%
Exhibition	1,650	33%
Archive / Storage	500	10%
Curatorial	350	7%
Administration	150	3%
Educational	300	6%
Public amenity	250	5%
Mechanical & Electrical Equipment	400	8%
Circulation	1,200	24%
Special Function *	200	4%
Total	5,000	100%

*Speical Function indicates the space allowed for any use to enforce applicant's intention.

**5% variation in Total, and 10% variation in each FUNCTION/SPACE is allowed.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당선작 / nicdas desmazieres + anouk
legendre / x-tu architects(France)

Space Program

public amenity 250m²

exposition 1,650m²

special function 200m²

Curatorial 350m²

administration 150m²

educational 300m²

mechanical & electrical equipment 350m²

archive / storage 500m²

circulation / toilets / stairs etc 1,250m²

On the river side, in a winding landscape, a bridge stretched between two cliffs, a threshold, a bridge spanning a precipice ...

We wished to honour the riverside landscape which saw the birth of the first inhabitants of Korea, and acknowledge the beauty of the two hill curves echoing the river meanders. How to enhance such a pre-existent form and its geological underground chasm?

—by digging the chasm to let the Earth tell its history

—by alleviating the visual hold of the project in order to let the chasm express itself ;

—for this purpose, the building will be enched into the hill which has been hollowed out and the stock-rooms will be located underground ;

—by curving the central part of the building so as to unveil the geological crack (and also the sun, from the edge of the crack)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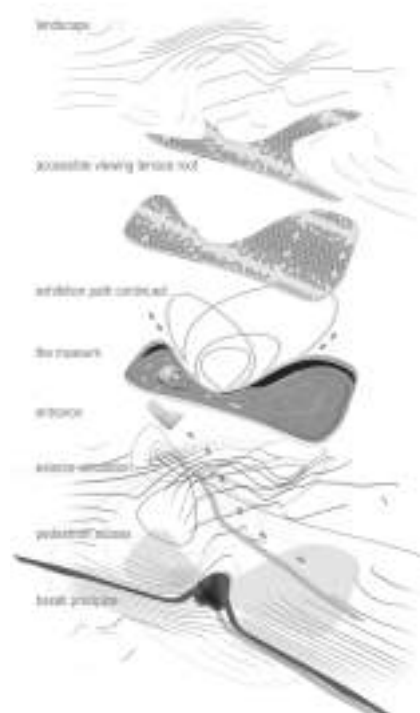
—by clothing it in a 《 shimmering skin 》 which will reflect the precipice from underneath.

Thus set up, the project appears like a bridge stretched between two cliffs which can be seen from a long distance from the motorway.

The precipice as a natural threshold and the emotion it induces, will be used to realize a symbolic threshold

into the <prehistoric era 》 which will also give access to the 《 prehistory park 》 ;

Then we create paths, many paths around the curves of the project and of the cliffs, because the paths which were made by the animals going down to the



Concept

river to drink, belonged to the 《 first human beings 》 landscape.

An immaterial-abstract-shaped 《 time vessel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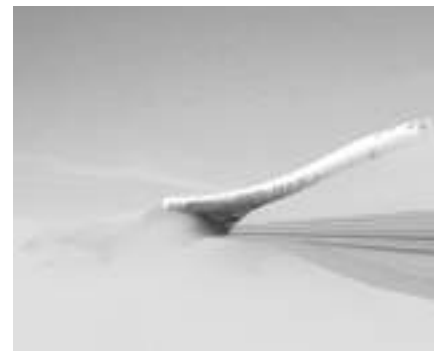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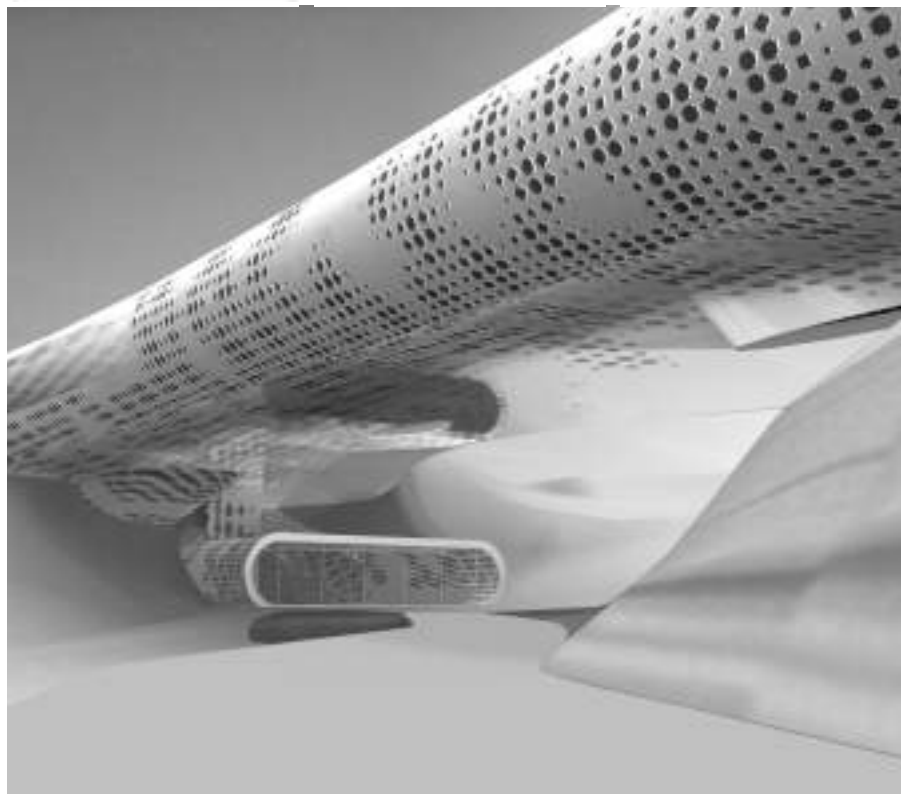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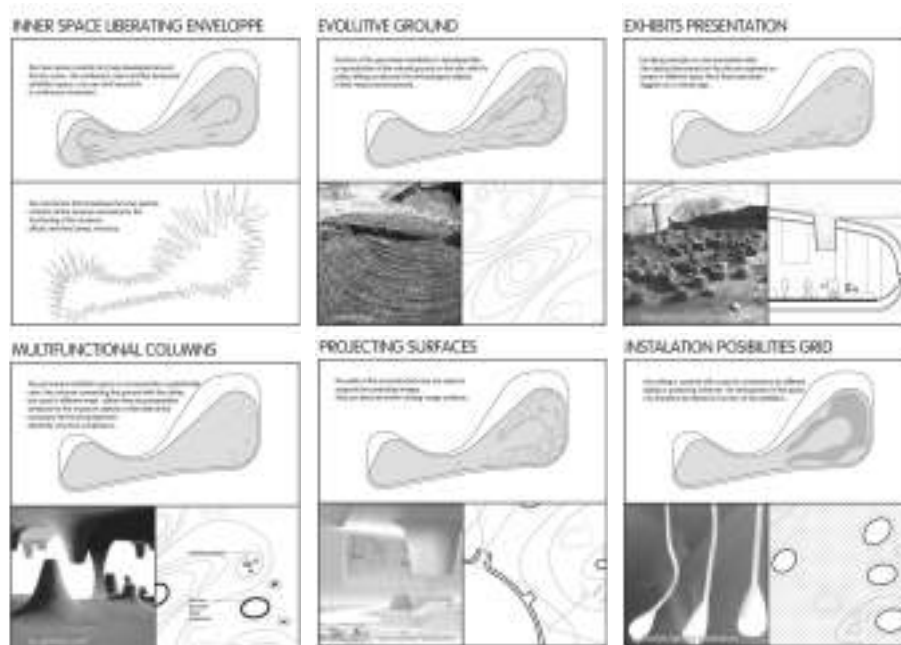
We want to travel through history !

We wished the visitors to live an

experience, to meet primitive mankind and to be introduced into a world different from everyday life, nearer the landscape than the building.

Paleolithic men were not living like us in standardized built places. They kept

moving in the landscape, the forests, the stream valleys, the delta marshes of which they knew every meander. The rocks and the bare ground were their everyday life, as familiar to them as the house floor to us. ㉔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2등작 / Paul Preissner / Qua 'Virarch(USA)

Space Program

administration 397m²

exhibition space 1,916m²

Storage 1,674m²

public amenity 478m²

curatorial 278m²

education 33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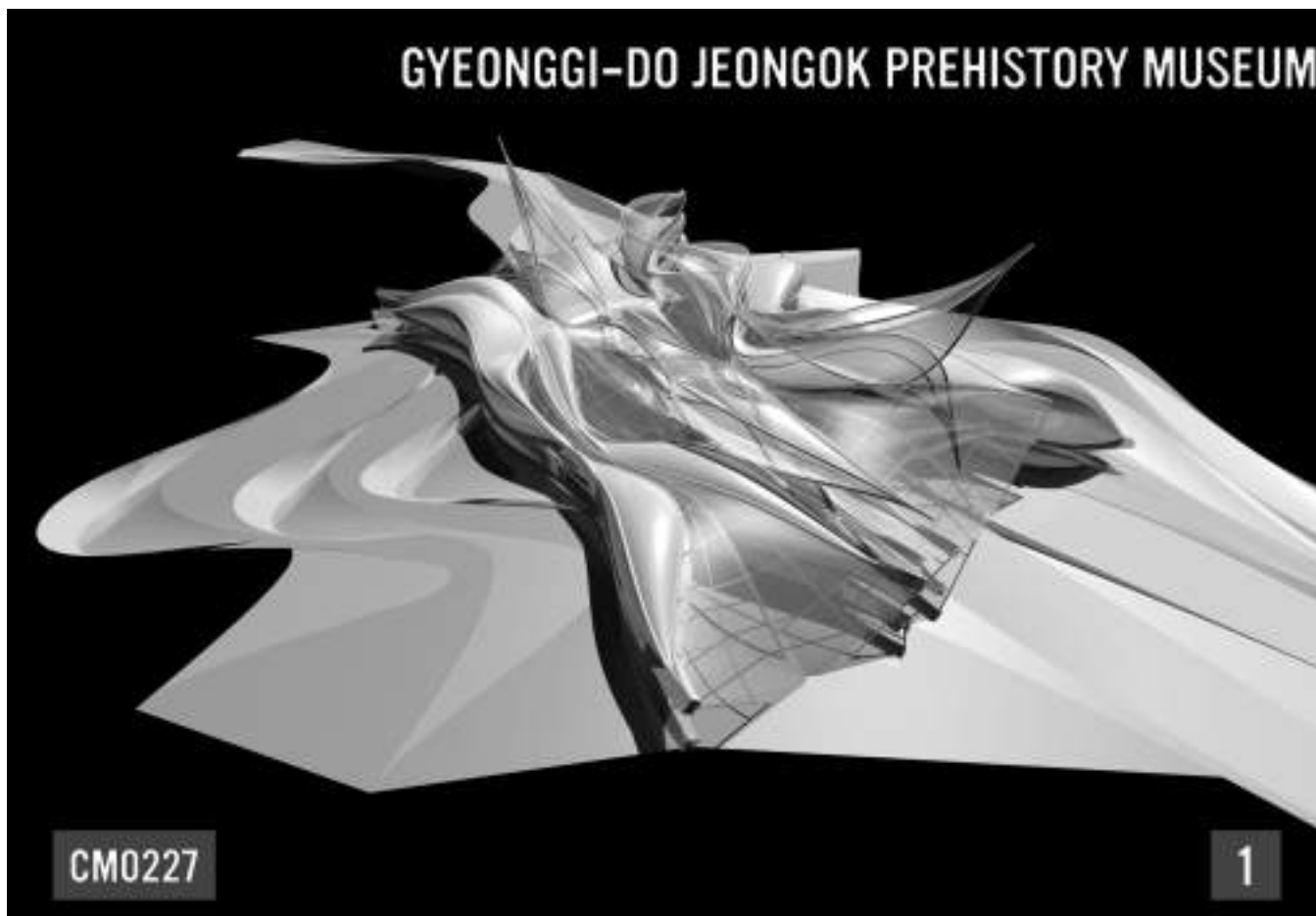
multi-purpose hall 19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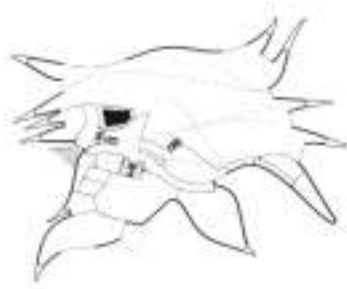
DESIGN CONCEPT

The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is envisaged as an extension of the surrounding terrain and archival sites, and as a fibrous volume, which emerges from itself, expanding onto the site, ferociously changing from a soft and natural surface (terrain) into a strong and foreign material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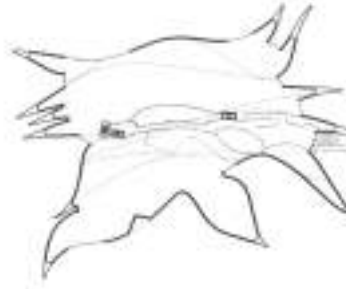
Using a policy to promote cultural and educational activities, our proposal performs as an central character in the play, not only for the users of the facility, but also for the entire culture of Korea; becoming a new Center for the discovery and empathetic learning of history.

The concept for museums of cultural prehistory, particularly those that organizational framing in the process of research, have changed. Our design proposes an open interconnected terracing of exhibition spaces. All rooms of exhibition are separated only through the platform circulation, while visibility is constantly maintained. This new form of curatorial framing allows the entire contents of the museum to be constantly appreciated from every position, reinforcing the magnitude of historical artifacts contained with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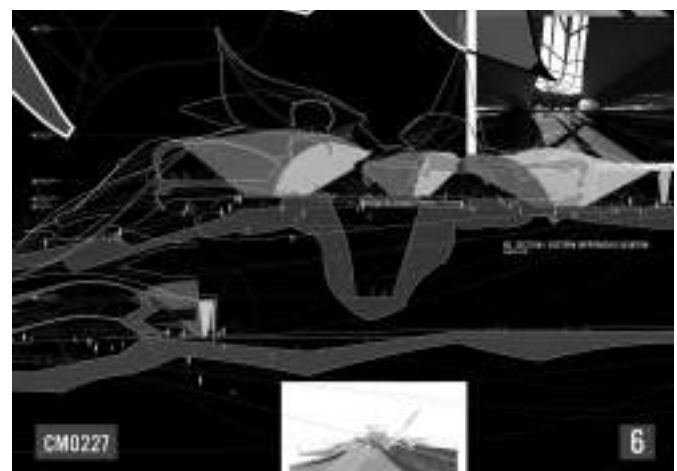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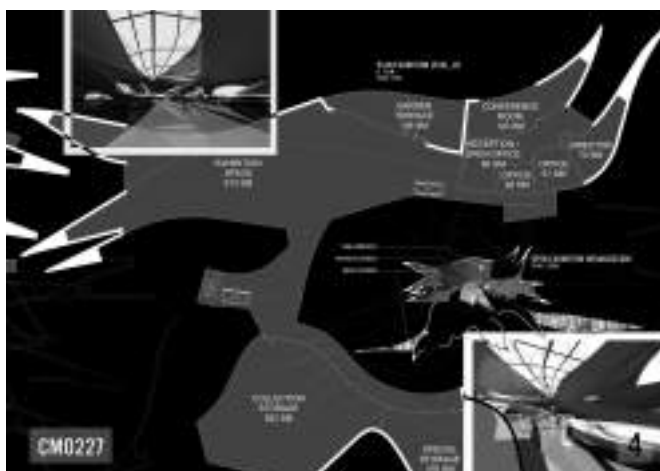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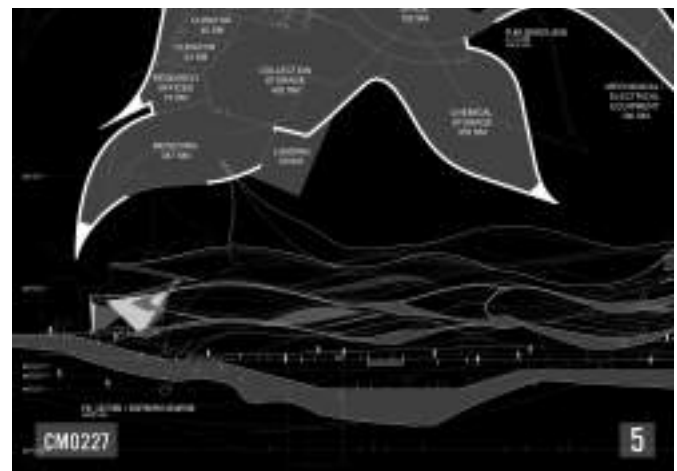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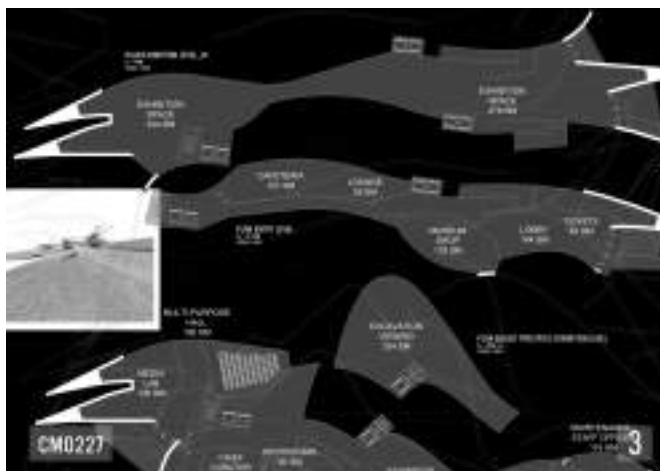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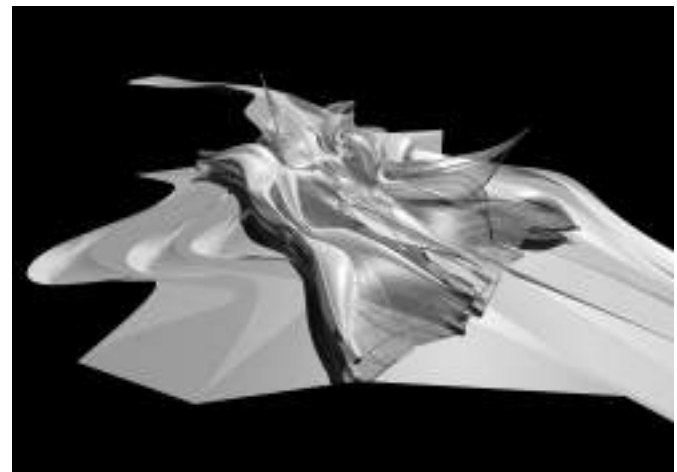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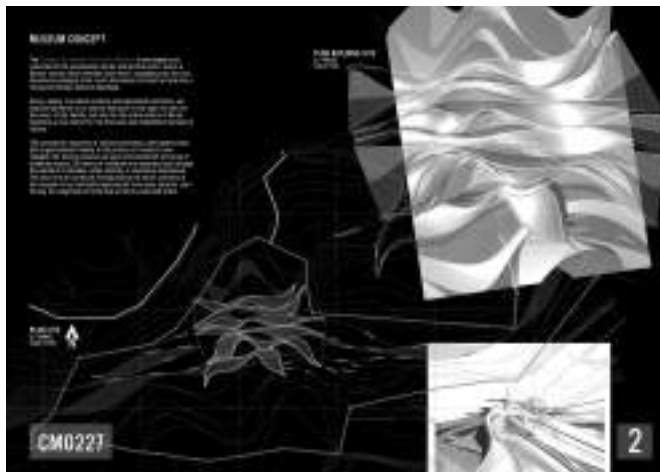
1f plan



1f plan



2f plan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3등작 / Ionn Combs / easton +
combs architects(USA)

Space Program

exhibition 1,800m²

archive / storage 420m²

Curatorial 370m²

administration 130m²

educational 320m²

public amenity 240m²

m & e equipment 300m²

circulation 1,420m²

special function 190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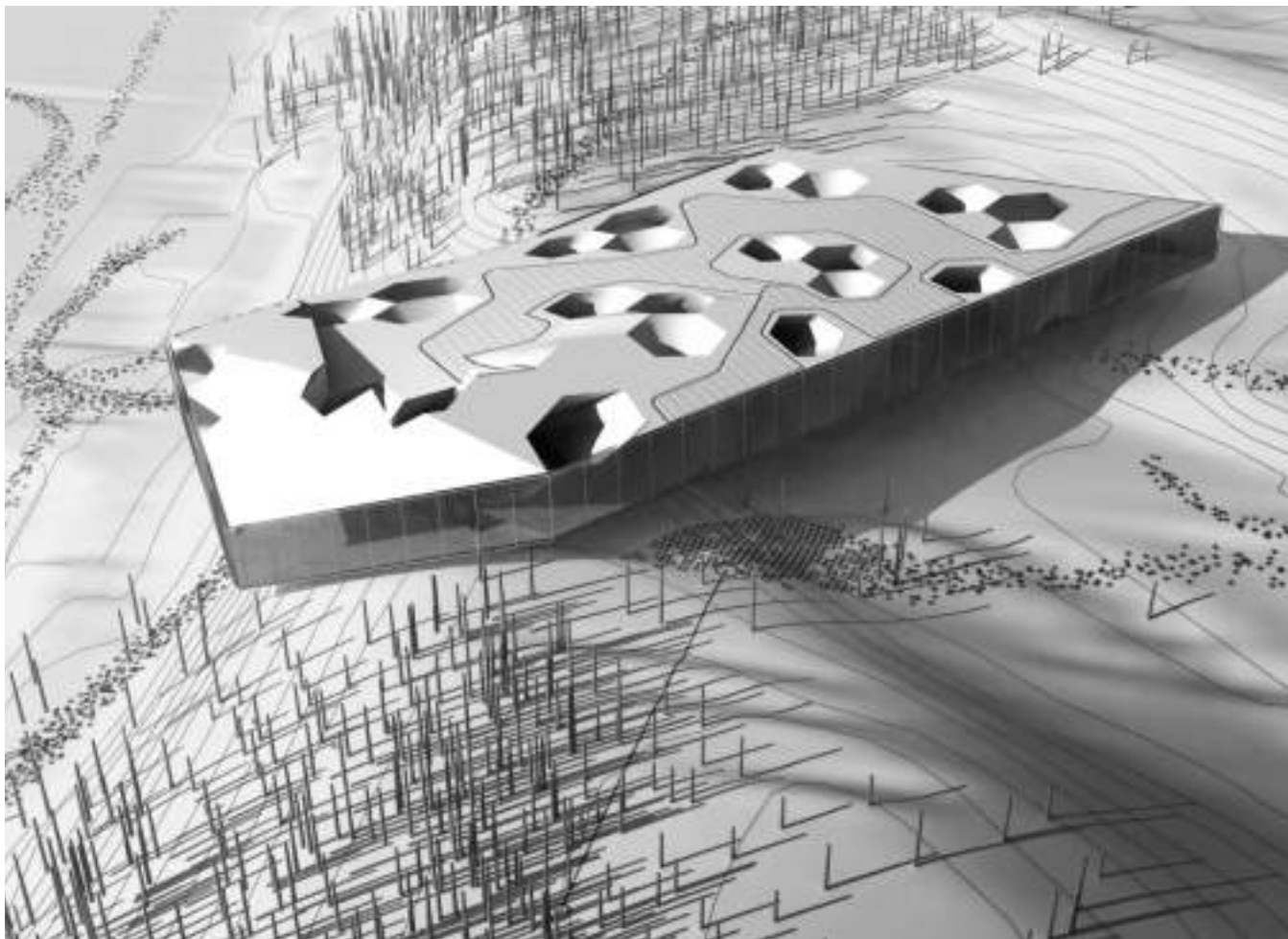
Acceptance Form of Promoter's Terms
I(We), the undersigned competitor(s),
accept the terms of the Promoter,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yeonggi-
do Jeongok Prehistory Museum affiliated
to the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written below :

1. The Competitor abides by the decision
of the Promoter.
2. The Promoter,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retains
the ownership of the submitted design.

3. The Competitor retains the authorship of
the submitted design.

4. The Competitor, in submitting an entry,
agrees to permit the Promoter, th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to exhibit, publish or otherwise
publicize the submitted design in the
media.

Two vectors of consciousness intersect in
this proposal. establishing a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two distinct ideas
about scale and time.





Building plan : main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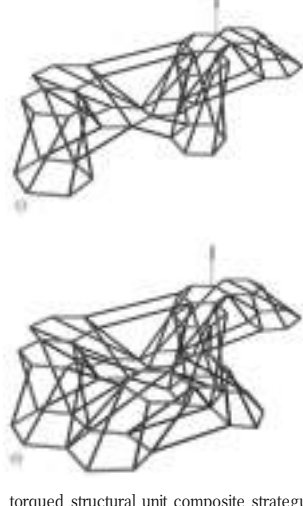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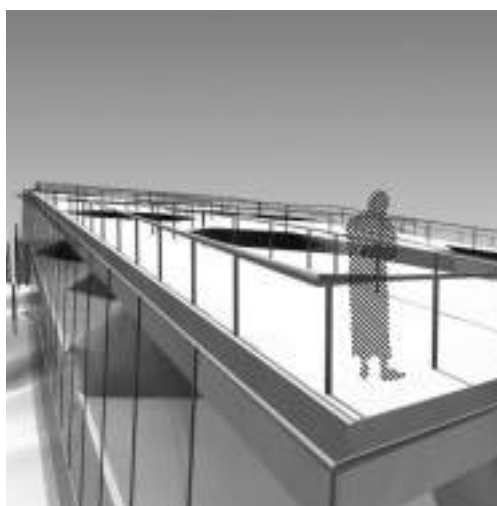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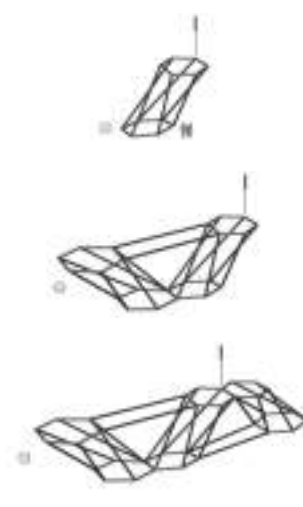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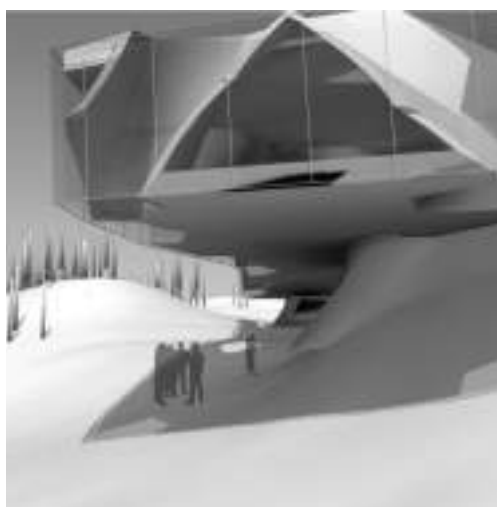
site plan



section through exhibition hall showing collections chambers



site sectional perspective



torqued structural unit composite strategy

경기도 전곡선사박물관 국제현상설계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Gyeonggi-do Jeongok Prehistory Museum

3등작 / Satoshi matsuoka + yuki tamura /
matsuokasaoshitamurayuki(Japan)

Space Program

exhibition 902.5m²

archive / storage 559.5m²

curatorial 254m²

administration 166m²

educational 454m²

public amenity 219m²

mechanical & electrical equipment 261m²

circulation 1,216m²

special function 215.5m²

The site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wide-area masterplan including Prehistoric Site, Outdoor Exhibition, Amusement Park, History Culture Village. We propose to transform the location into an interpark where it is a connecting point for the visitors and a destination for the residents. From the surrounding areas, the building becomes a landmark and a destination to which people are attracted to without spoiling the present landscape.

NATURAL SL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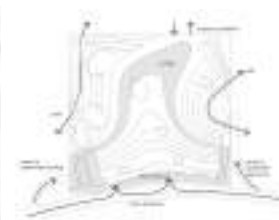
The proposed building is low and follows the shape of the land to respect the local landscape, where the damage to the site is kept to the minimum. The buildings and

site are unified by the continuous floor covered with light and translucent roof so that the visitors feel themselves wandering around the site but without a strong boundary. Single-story structure also works to pack the existing land surface, where the visitors can look at the exhibits in a natural environment as much as possible.

BIG ONE ROOM

Inside consists of a big room. The visitors experience various activities in the spaces divided softly with small vertical interval and gentle slopes in the open landscape while feeling the atmosphere of the whole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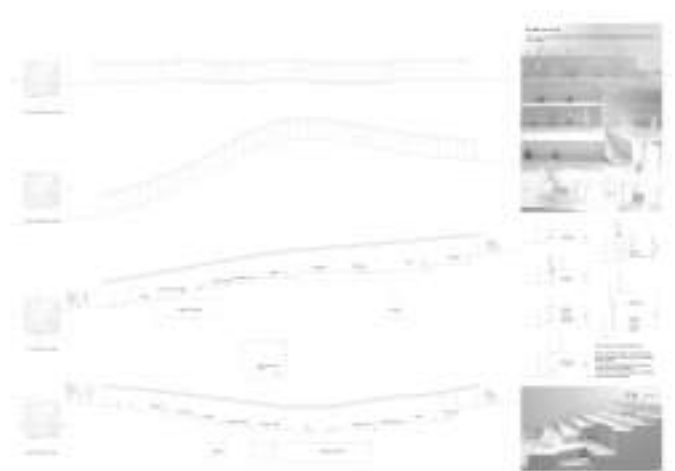
ENTRY
Visitors arrive to the Main Lobby located in the middle of the Jeongok Prehistory Museum through the main entrance of the south side of this building. This is the hearts of the building where one would receive general information, and get an overall perspective of the landscape inside.



INTERNAL ZONES
Contours organize the open landscape into zones of activity. These zones are not physically partitioned so that atmospheres can blend into one another creat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 spaces and people inside.



VIEWS
The visitors get wide view of the surrounding landscape from everywhere in the building. The Public Amenity Zone and Educational Zone are located in the 'valley' area surrounded by the hills on three sides so that people feel themselves comfortable during studying and their break.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

Exchange of Cultures : Foreign Architect-Designed Buildings in Korea

압제자들의 건축

Architecture of Oppressor

01_ 연재를 시작하며

박길룡 / 국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02_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1 양풍건축의 이입

2-2 서양건축가들의 활동

2-3 압제자의 건축

03_ 한국의 근대건축과 외국건축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3-1 전후 복구기 원조경제와 외국건축

3-2 경제개발과 외국건축

3-3 타자를 위한 건축과 우리건축의 모습

3-4 세계를 향한 눈

04- 단편(斷片)적 도시경관의 고고학

구영민 /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4-1 수직의 욕망

4-2 애브뉴 오브 아메리카

4-3 패션게임 - 소비의 사막

압제자들의 건축

윤인석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Yoon In-suk

본 연재는 개항 후 이 땅에 유입되어 온 잡종강세의 건축들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회에는 20세기의 개막을 전후하여 주권 상실과 외교권 박탈로 인해 온전한 국가가 가동되지 못 하고 있을 때 이 땅을 억압하고 행정을 이끌어 가던 압제자들이 만들어 낸 건축에 대해서 살펴 볼 차례가 되었다.

탁지부 건축소의 조직적 침투와 건축

1906년 2월 통감부가 설치되어 장기통치를 위한 관아건축의 신축을 계획하고, 건축소를 개설하여 서양식 공공건축물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건축소의 조직은, 초기에는 조선인이 각 부서의 장이 되고 일본인이 차석이 되었다. 그러나 1908년 제3차 한일협약에 의해 일본인들이 뒷자리로 옮겨 가며 일본인 중심의 조직이 되었다. 이 조직에는 일본에서 근무하던 건축관계기술자도 축약으로 있었다. 고문에 妻木頼黄(일본 대장성 임시건축부장/공학박사)가 있었고, 그 외에 廣井勇(동경대 교수/공학박사), 白石直治(공학박사) 등이 있었고, 타이완 등에서 활동하던 사람도 조선으로 건너왔다. 이로써 탁지부 건축소는 일본 대장성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구가 되었다.

여기에서 주관한 건축은 탁지부청사(1907년), 내부청사(1910년), 농상공부청사(1910년), 건축소청사(1909년), 대한의원 및 의학교(1908년), 광통관(1909년 5월), 인쇄국(1908년), 공소원 청사, 경성재판소, 공업전습소 본관

(1908년), 각급관사, 인천세관(1911년), 부산세관(1911년), 군산세관(1908년), 목포세관(1908년), 벽돌제조소(1907년), 남대문보존공사(1908년) 등이 있다.

탁지부 건축소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설립초기에는 조선인 기술자의 참여가 어느 정도도 가능했지만 1907년부터는 일본인 관리들의 기관이 되었으며 일본 대장성의 부속 기관화 하였다.
- 재정에 관한 일만 탁지부에 귀속되고, 기술적 분야에서는 일본에 이식되어 있던 서양 건축의 전달기관이었다.
- 건축소가 건설한 건축물은 일본에서 명치초기에 있었던 건축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유사서양풍 또는 화양절충식의 건축이 주류를 이루었다.
- 벽돌 제조소를 설립하여 양질의 벽돌, 기와, 토관 등의 건축재료를 관과 민간에 공급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조선의 추운 기후에 견디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

조선총독부의 건축관계조직과 관 주도 건축

1910년 8월, 일제강점기에 들어서자 조선총독부는 본격적인 식민지 경영을 위해 전국적으로 행정관서의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를 순조롭게

1. 탁지부청사 2. 내부청사 3. 농상공부청사 4. 건축소청사
5. 대한의원본관 6. 광통관 7. 인쇄국 8.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





9. 공업전습소 11. 경성세관 12. 군산세관 감시소 13. 군산세관

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1910년 9월 30일 건축 및 토목 직원을 채용하였다. 기사 7명, 기수 90명에 달하였으며, 총독부 회계국 영선과에, 토목기술자들은 총독부 내무부지방국 토목국 또는 토목출장소에 속하였다.

1910년-1911년에는 총독부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에서 건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직편성이 되었으며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이 기구는 총독관방 토목국 영선과로 개편되면서 총독부 서무부 회계과(총무부 회계국 후신)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축업무를 담당하였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는 토목부 영선과가 되고 1924년부터 1929년까지는 내무국 건축과로 되었다. 여기에서 조직의 명칭이 영선과에서 건축과로 바뀐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 시기가 조선총독부청사를 비롯하여 대규모 관청 건축의 건설이 전국적으로 절정에 달할 때였기 때문에 그 명칭도 영선이라는 소극적인 것에서 건축이라는 적극적인 것으로 바꿨다고 여겨진다. 조선에서 서양식 관공서의 건설이 어느 정도 채워진 후,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종래의 건축관계업무는 재편성되어 총독관방 회계과 건축계가 담당하였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건축과 토목이 관의 조직에서 항상 같이 따라 다니며, 때에 따라서는 건축이 토목의 산하기관으로 편성된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일본이 건축에 대해 이해하고 있던 내용과도 관계가 있지만, 특히 식민지 경영에서 건설에 치중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이

종속적인 조직으로 있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건축을 건설의 한 보조수단과 부수적인 영역으로만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태생적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총독부의 건축관계 조직과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자. 1910년 총무부 회계국 영선과로서 출범했을 당시에는 사무관 1명, 기사 2명, 촉탁 9명, 기수 35명이 일하고 있었다. 기사 2명은 岩井長三郎과 國枝博이었다. 岩井은 영선과장이었으며, 1929년 사임할 때까지 20년간 조선총독부의 건축관계부서의 책임자로서 활동하였다. 당시 직원 중에 조선인 기술자는 아직 없었고, 전원 일본인이었다. 이 조직은 1945년까지 관계개편에 의해 그 명칭은 바꾸지만 언제나 2~5명의 건축기사, 10~20명의 촉탁, 평균 60명의 기수로 이루어진 규모로 운영되었다. 이 조직의 기술자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기사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었고, 기수는 일본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었다. 위의 岩井을 비롯하여 1945년까지 이 조직에



부산세관

14. 마포벽돌 제조소 호프 만식 가마 축조공사 15. 마포벽돌 제조소 16. 남대문주변 도로준고후 17. 조선호텔
18. 경성우편국 19. 경성역 20. 총독부박물관 21. 신의주역사





22



23



24



25

22_ 조선총독부 건설 전의 광화문 23_ 조선총독부 투시도 24_ 조선총독부 건설 전의 경복궁 25_ 경복궁과 총독부의조감(1935년경)

서 일하였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 岩井長三郎(재직기간 : 1910년~1929년)-1905년 동경대학 졸업/대장성기사/1910~조선총독부 기사/퇴임 후 귀국. 3년간 일본 엘리베이터 주식회사 동경지점장/1935년부터 3년간 경성에서 자신의 사무실 운영
- 中島猛矣(재직기간 : 1922년~1929년)-1911년 동경대학 졸업/총독부 근무 후, 경성공업고등학교 강사
- 笹慶一(재직기간-1922년~1930년)-1913년 동경대학 졸업/岩井 퇴임 후 그 후임이 됨/퇴임 후 多田工務店 고문
- 岩槻善之(재직기간 : 1922년~1930년)-1921년 동경대학 졸업/1931년 6월 병사할 때까지 경성에서 총독부 기사로 활동/경성공업고등학교에서 시공공법과 계획강의
- 齋藤忠人(재직기간 : 1930년~1945년)-1924년 동경대학 졸업/1930년부터 총독부 기사/長井 퇴임 후 기구축소된 총독부 건축계에서 笹慶一과 둘이서 건축업무 담당
- 萩原孝一(재직기간 : 1937년~1945년)-1921년 동경대학 졸업/1937년 총독부 기사/ 笹慶一 퇴임 후 齋藤忠人和 총독부 건축계 이끔.
- 寺師通尙(재직기간 : 1938년~1945년)-1926년 동경대학 졸업/1938년부터 총독부 기사

• 井上鴻太郎(재직기간 : 1938년~1945년)-1926년 동경대학 졸업/1938년부터 총독부와 체신국 기사.

1916년에는 조선총독부청사를 건설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복궁 건축출장소를 설치했는데, 여기에서는 富士岡重一, 野村一郎, 國枝博 등이 있었다.

그 외에 관의 건축관계조직으로는 철도국 공무과 건축계와 체신국 경리과 영선계가 있었다.

총독부 건축과를 비롯한 관의 건축관계 조직에서 세운 건축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조선호텔(1914), 경성 우편국(1915년), 총독부박물관(1915년), 경성역(1925년), 조선총독부청사(1926년), 경성상공장려관(1929년) 등이 있다. 이 건물들은 앞에 언급한 바대로 조선총독부 건립 이전까지 양식주의로, 그 후에는 모더니즘의 건축물을 만들어 내었다.

민간의 일본계통 건축계 사람들과 건축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동안 조선에 설립된 건설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소규모 회사를 포함하여 1939년 304개사, 1943년에 340개사였다. 그중 조선인 소유는 32개사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清水, 鹿島 같은 일본회사도 17개사가 조선지점을 개설하고 있었다. 민간분야에서 활동한 설계분야의 일본인은 也田賢太郎, 中村興資平, 中村誠, 星野秀次, 宇佐川知彦 등이 있었다.

26_ 조선총독부 27_ 조선은행본점 28_ 총독부도서관 29_ 조선은행 군산지점 30_ 천도교중앙회당 31_ 중앙학교 동관 32_ 중앙학교 본관 33_ 숙명여학당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4_ 이왕가 미술관 35_ 경성공회당 겸 상공회의소 36_ 총독부상공 장려관 37_ 삼일백화점

- 池田賢太郎 : 1896년 동경대학 졸업/1904년 육군기사/1915년 조선주둔군 경리부 근무/건축설계사무소 개설/1930년~1934년 조선건축회 회장
- 中村興資平 : 1905년 동경대학 졸업/1908년 조선은행 공사를 계기로 조선에 옴. 1922년까지 설계사무소 운영/대표작-조선은행 군산지점, 천도교중앙교당, 중앙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등
- 中村誠 : 1909년 동경대학 졸업/1914년 궁내 기사로 조섭에 옴/조선건축회 일 적극적으로 돌봄

일제 강점기의 건축계를 구성하였던 사람들이 대하여 알아 두는 것도 당시의 건축을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여러 자료를 통해 당시에 활동하였던 건축기술자들을 살펴보면 1930년대 후반에는 약 250명이 건축계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들은 대개 전문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출신학교는 경성공업고등학교 출신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대학 41명을 시작으로 동경대학, 동경공업대학, 와세다대학, 교토대학과 나고야, 센다이, 코베, 후쿠이, 요코하마, 교토, 동경 등의 고등공업학교(전문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전역에서 골고루 조선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근무처로는 총독부 철도국이 36명으로 가장 많고 총독부 건축계가 25명이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건축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그리고 조선국 경리부를 비롯하여 관계 기관에서도 25명이 일하고 있었다. 민간 기업

에서는 총 31명이 활약하고 있었으며, 교육기관에 1~2명 정도의 강사가 있었다.

본적에 의한 출신지별로 살펴보면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 일본의 전역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으로 건너왔음을 알 수가 있다. 전체 건축인구 중 조선인은 29명에 그쳐 10%에 지나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은 경성고등공업학교 출신이었다. 조선인들의 근무지를 보면, 총독부 건축과, 지방행정관서의 회계과, 영선과 등에서 설계나 감독일을 보던가 아니면 설계사무소 근무 등이었다. 다른 분야(정책결정, 현장 등)에서는 정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건축행위가 일어났다. 일본인 기술자들의 분포를 보면, 총독부를 비롯하여 관의 부서에는 동경대학 출신들이 점하고 있었고, 다른 대학 출신



38

종로백화점

39_ 전라남도평의회 회의실 40_ 총독부체신국 분관 41_ 인천부청 44_ 아사히 빌딩
42_ 경성의학전문학교부속학병원 43_ 경성일본기독교청년회관 45_ 경성중앙전화국



39



40



41



42



43



45



44



46_ 최창학씨 저택 48_ 금천역 49_ 내금강정차장 50_ 수원역

들은 민간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건축가, 건축기술자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뭉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는 창구를 만들어 내는데 이 것이 ‘조선건축회’이다.

조선건축회는 1922년 3월,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를 중심으로 ‘조선건축계의 건실한 진전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설립초기 회원 수 122명이었던 것이 1931년에는 516명으로 늘어났다. 사업내용은 조사연구, 강연회 개최, 새로운 건축 소개 등 여러가지 있었지만, “朝鮮と建築”이라는 잡지를 1922년 6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월간으로 발행한 것이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잡지는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서양인의 건축활동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점이 있어 편중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시의 건축상황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1876년 개항이후 양식주의에 기반을 둔 서양건축이 줄곧 세워진 조선에 1920년 후반부터 모더니즘 스타일의 건축물이 세워지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조선총독부 청사 건축(1926)때 까지 초기에는 식민지 지배를 위하여 관청건물을 권위적인 양식주의로 건축하였는데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의 자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상업건축이 속출하였고 당시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모더니즘 스타일의 건축이 주로 세워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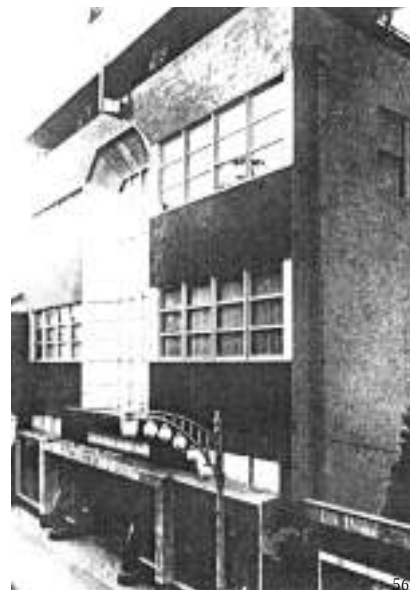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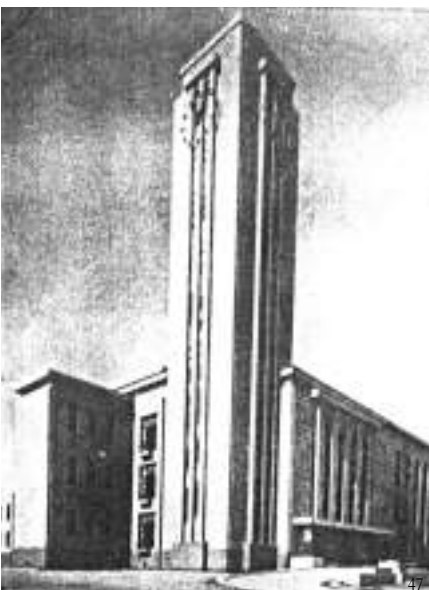
관청건축의 탈양식주의 경향은 경성부청(서울시청) 청사에서 나타났다. 1929년 완공한 총독부상공장려관 이후 조선의 건축은 모더니즘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26년 준공된 경성부청은 거의 같은 시기에 세워진 조선총독부와는 달리 무장식의 외관을 하고 있다. 3년 후 인 1929년, 극히 추상적인 건물이 남대문 바로 옆에 세워지는데 바로 총독부상공장려관이다. 이 건물은 긴 발코니를 가진 정면이 남대문을 향하고 있어 고전건축과 새로운 풍조의 건축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은 동아시아 전역을 통틀어 살펴봐도 상당한 수준급의 현대건축이라고 평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남대문 주변의 성벽을 다 헐어내어 큰 도로를 내고 문을 로터리 가운데 가두어둔 채 압제자의 공산품을 전시하는 최신식 건축물을 나란히 세운 그들의 심보를 우리는 알아 챌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건물로 인하여 지금까지도 남대문 주변에 위압적인 고층건물이 속속 세워지는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1932년 7월 전라남도 평의회실이 모던한 스타일로 만들어졌다. 정면중앙부의 계단실 외벽을 전면 유리로 처리하여 상당히 세련된 설계였다. 1933년 9월 완공된 일본적십자 조선지부와 1934년 11월 완공된 일본기독교청년회관은 직선과 평탄한 입면을 기본으로 매스끼리의 비례를 세련되

47_ 경성부민관 51_ 조선총독부미술관 56_ 카네보 경성 서비스 센터 57_ 후지빌딩
52_ 평양박물관





53_ 조선총독부미술관 투시도 54_ 조선빌딩-반도호텔 55_ 카네보 코베 건립관 58_ 조지야 백화점

게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측면에 설치한 좁고 긴 계단실 창은 국제주의양식의 대표적 표현이다.

1933년 완성된 경성의학전문학교 부속병원은 평탄한 입면에 수평선을 강조한 창, 무장식의 외관 등이 모더니즘 건축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1935년 총독부채신국 영선과에서 설계한 경성중앙전화국은 건물의 목적에 걸맞는 기능주의적 표현을 하고 있다. 카네보 경성 서비스 스테이션은 요코가와 공무소에서 설계하였는데 일본의 코베에 세워던 같은 회사의 건물을 카피한 것이었다.

이러한 건축적 상황에서 건축교육기관이 몇 군데 세워졌는데 국립 경성고등공업학교, 사립 대동공업학교 등이 있었고 여기를 졸업한 조선인 건축학도들이 총독부를 비롯한 관 계통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훗날 광복 후 이 땅의 건축계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이 되었다. 하지만 압제자의 교육은 이 땅의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보다 원활한 식민지 통치를 위해 중간 수준 정도의 지식인,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시기에 등단하는 한국인 건축가에 대한 기사는 건축사 잡지 1996년 시리즈에 게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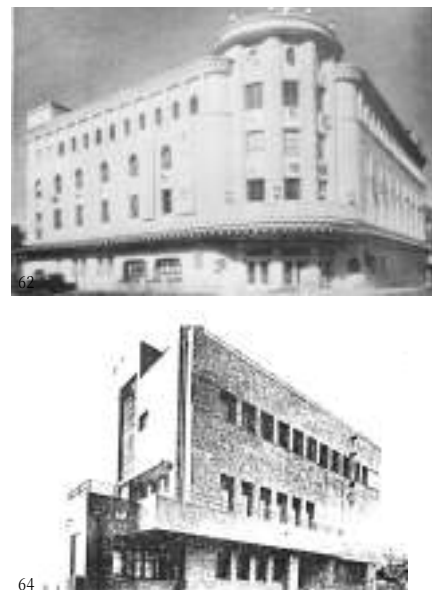
이 기간 동안의 건축에 대하여 정리해보자. 압제자들은 그들이 앞서 받아

들었던 서양의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었던 수준의 건축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다. 공공건물을 비롯하여 규모 있는 건축에서는 과거와 달리 근대화하는 사회 시스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변하는 데에 이바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건축이 활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첨단의 표현으로 동원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일본국내 건축계의 층층시하에서 젊은 건축사들은 새로운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답답해하던 차에 그들의 뜻을 마음대로 펼쳐 볼 수 있는 자유천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 건축적 신개척지 식민지 조선이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된 이 땅의 근대건축 흔적은 오늘날 까지도 남아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 할 것이나, 그 범위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하겠다. 즉 큰 틀의 사회적 변화에 수반되는 건축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였으나 주거건축과 마을 또는 도시형성에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강제력을 동원하였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일본내에 세워졌던 건축을 카피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마음가짐으로 세워진 건축은 큰 힘을 지니지 못 한 것이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주권을 되찾은 한국에서 지긋지긋한 일본이 쫓겨 나간 후 외국건축이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영향을 미쳤는지 또 다른 세상에서 펼쳐지는 잡종강세의 이야기를 기대해 볼 차례가 되었다. ■

59_ 동경화재보험주식회사 경성지점 60_ 동경화재보험주식회사/코베지점 61_ 조선저축은행 62_ 명치와 63_ 황금좌 64_ 일본적십자조선지부



이 규 환
건축전시준비위원회 위원
by Lee Kyu-hwan, KIRA

한국건축산업대전 - 03 전시회의 참가목적과 준비...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 03
Participating Purpose and
Preparation for the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지금까지의 건축전시회는 공모전과 같은 일정한 행위의 결과이거나 특정 집단의 건축이념을 보이기 위한 수단 등으로 사용되어져 왔었다. 그러다 보니 참가조건이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전시방법 역시 결과에 치중하는 작품전의 성격을 지녀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건축의 작품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자칫 건축의 산업적 특성을 간과한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들게도 한다. 이 부분에 있어 한국건축산업대전(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은 매우 색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즉, 작품 및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전문가들 모두에게 참가기회가 열려있으며, 그 참가목적도 달성하는 방법도 분명하게 차별화되고 있다. 작업의 결과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객과 함께 현장에서 대화하며 새로운 건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생생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 현장마케팅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전개하느냐에 따라 전시회 참가의 성패가 달려있다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전시회 참가의 성공을 위한 목표설정과 그에 걸맞는 한국건축산업대전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시회 참가목적

먼저 전시회에 참가하여 이루고자하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이는 첫 번째 글에서 언급한 전시회 목적을 상기하면서 검토한 일이나 간단히 정리하자면 첫째, 매출증대와 둘째, 홍보효과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두가지의 목적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야 전

사회 참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이해를 위해 두가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다.

첫째, 매출증대를 위한 판매기능(selling function)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유망예상고객의 확인 및 신시장 개척
- 현재고객 및 잠재고객 또는 핵심적인 의사결정권자와의 접촉기회의 확보
- 제품, 업무서비스 및 회사와 판매원에 관한 정보의 전파
- 실질적인 제품판매 또는 업무용역수주
- 고객과의 접촉을 통한 문제점 인식 및 이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둘째, 홍보효과를 위한 커뮤니케이션기능(nonselling function)은 다음과 같다.

- 경쟁기업, 고객, 산업, 언론에 대한 기업의 이미지 유지
- 경쟁기업의 업무, 제품, 가격 및 기타 마케팅 변수에 관한 정보수집
- 회사 조직원 및 전시요원의 사기 진작
- 제품 및 서비스의 도입 및 고객의 반응에 대한 사전정보파악

이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산업전시회가 지니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번 전시회는 위의 내용에 추가되는 몇가지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한국건축산업대전만의 독특한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겠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의 특징

첫째,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하는 전시회라는 점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국내 유일의 법정 최고 건축전문가단체에서 주최하는 전시회라는 말로써 다양한 정보가 집적되고 교류되는 곳으로 전시참가사들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혜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름만 주최라 하는 여타 협회 주최전시회와는 달리 직접 전시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보다 나은 전시회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서 충분히 전시회의 성공을 예측하게 한다.

둘째, 국내 최초의 건축전문전시회이다. 겉으로는 쉽게 표현되지 않지만 대중전시회와 전문전시회는 참가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된다. 즉, 전시참가사는 유력한 고객과의 상담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중전시회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가 매우 어렵다. 아무리 관람객이 많더라도 실질적인 고객과의 만남이 어려운 전시회에 비한다면, 우리의 전시회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장소가 될 것이다. 기존 건축관련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특정분야에 편중된 구성방식이나 참여 및 관람의 비전문성을 탈피하여 전문가들 간의 진정한 건축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의 목적이 있다.

셋째, 참가사가 바로 고객 및 협력사가 되는 전시구조이다. 이것은 여타의 다른 전시회와 확연히 구분되는 내용이다. 기존의 전시회는 경쟁사들

의 참가를 유도하여 부스유치를 촉진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참가사가 모두 협력사이며 고객이 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참가사들간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참여 자체만으로도 전시 참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전시회에 참가한 여러 협력사들과의 교류만 충실히 한다면도 관람객을 통한 고객확보 이전에 충분히 유망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넷째, 새롭고 생동감있는 전시방식으로 구성된다. 이것을 좀 더 현실감 있게 느끼기 위해서 기존의 건축자재전시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매년 같은 전시품이 출품된다는 실망감으로 한번 방문한 전시는 그 다음부터 관심을 잃게 되는데, 이번 한국건축산업대전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해마다 새롭게 설계된 건축물이 출품될 것이며 또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방식인 관계로 전시품을 통한 생생한 현장감을 그대로 산업마케팅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방식은 건축전시회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이번 전시회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기존 고객을 위한 최상의 홍보 및 서비스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시말해서 기존 고객에 대한 배려로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전시회에 초대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객서비스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좀 더 쉽게 이해를 돕자면 전시장이란 현장의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고객은 초대받은 사실만으로 전시참가사의 노력을 인정할 것이나 막상 전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분위기란 노력의 인정 그 이상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과 거래하는 건축전문가가 작업의 결과를 갖고 공개현장에서 검증받으려는 노력에 감동할 것이며, 수많은 건축관련 전문가들 중에서 일부만 참여하는 전시회에 자신이 아는 전문가가 그 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 차별성을 느끼게 되고 자부심도 얻게 된다. 이처럼 긍정적인 차별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기업의 신뢰성, 영업능력, 높은 품질 등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시회 참가효과다.

여섯째, 건축전문가가 총집결하는 종합전시회가 된다. 즉,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건축자재회사 및 기타 건축관련업체들이 총망라하여 참여하고, 주요 관람객 역시 다양한 건축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건축전반에 걸친 종합전시회가 될 것으로 이는 국내 어느 전시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한국건축산업대전만의 특징이다. 각자의 업무상 평소에 만나기 힘들었던 관련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와중에 전시회의 중요 목적인 정보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전시회가 단순 교역의 장 이상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일곱째,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축제전시회가 된다. 일반적인 산업 전시의 목적을 넘어서 문화와 산업이 자연스럽게 공존하며 행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은 바로 건축전시회에서만 가능한 축복이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의도된 이벤트 행사가 아니라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공간과 산업적인 분위기를 엮어서 전시회를 구성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은 바로 우리 건축전문가들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에 우리들이 흔히 해왔던 건축작품전도 그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미술전, 사진전, 음악회 및 어린이 건축학교 등도 좋은 모습으로 어울릴 수 있다. 건축전문가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심분발휘하여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2006년 9월 13일 코엑스 전시장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여덟째, 판매 및 영업비용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는 산업전시회의 고유한 기능으로 한국건축산업대전에서 그 효능이 더욱 발휘될 수 있는데, 여타의 산업분야보다 건축관련산업에서 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은 건축의 독특한 특성 때문일 것이다. 즉 이미 언급된 내용이지만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협업을 해야만 하는 업무구조로 이에 대한 영업관련비용을 전제적으로 산정해보면 엄청난 비용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산업전시회는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는 마케팅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전문가들의 종합전시회를 이루고 있는 만큼 직접 고객이나 협력사를 방문하거나 만나는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산업전시회의 기능에 추가되는 특성들을 살펴보았는데, 실상은 좀 더 세분화하고 연구하여 더 많은 특성과 혜택이 회원인 건축사 및 참가사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능한 많은 전문가 단체를 참여시켜서 업역확대의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주최측인 협회의 권한과 능력으로 참여사들에게 보다 나은 홍보마케팅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등 결코 이전의 어느 전시회에서도 느껴볼 수 없었던 기회들이 주어질 것이다. 부디 건축사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시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전시회 참가를 계획하는 회원사들이 전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전준비항목을 간략히 적어보도록 하겠다.

전시회 참가준비

매년 수많은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업체들은 전시회에 참가해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고군분투 하지만 업체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협력업체들의 정보를 입수하며, 고객이 직접 방문을 해주는 전시회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가사도 그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리미리 참가전시회를 결정한다. 전시회는 준비한 만큼 성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전시회 성격을 미리 파악해 독창적인 디스플레이와 영업 전략을 짜기 위해 참가전시회를 일찍 결정해 두는 것이 좋다.

둘째, 기존 참가업체의 조언을 구한다. 최소한 참가경험이 있는 2~3개 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부득이하게 기존 참가업체의 조언을 구할 수 없다면 전시주최자에게 전시준비항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 입수가 예상고객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할 수도 있다. 이는 자사의 홍보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타사 및 협력업체의 동향을 알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업무 및 제품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공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전시회장으로 다른 어떤 조사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시회 운용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보통 전시회 마케팅에 성공하는 회사는 모두 자체적인 운용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상담 상황에 따른 대응법 등 사전준비가 철저할 수록 성공적인 전시회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시회 참관객이 제품과 회사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시간은 1주일에서 1개월 이내라 한다. 늦어도 1개월 이내에 모든 참관객에게 관심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섯째, 다양한 자금지원책을 활용한다. 이는 전시회 참가에 따른 단기적인 자금부담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관을 이용한다거나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일곱째, 전시회 정보와 사후보고서를 파일화 한다. 이렇게 수년간 전시회의 정보를 파일화하면 효과적인 전시회 마케팅은 물론 관련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여덟째, 관련업체의 정보를 입수한다. 최소 폐막 2일전에는 경쟁사 및 관련사의 카탈로그 등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아홉째, 전시회 체크리스트를 만든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사 전시담당자가 변경된다해도 전시준비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보다 쉽게 전시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회 진행 매뉴얼 중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바로 전시회 준비 및 진행 업무 체크리스트이다.

열 번째, 전시회 주최측을 최대한 이용한다. 최근 참가사에 대한 주최측의 서비스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주최측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받아내는 기술은 참가사의 몫일 것이다.

이상 3회에 걸친 글로 간단하지만 한국건축산업대전의 소개를 마칠까 한다. 부디 지금까지 이 지면을 통한 만남이 회원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해 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산업전시회의 특성상 현장을 체험해 보는 것이며, 그 체험의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방법은 이미 판단하셨겠지만 참가신청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외에 추가되는 부담들에 대해서는 매우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음을 이전 글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있다. 지난날 우리에게 주어졌던 ‘차려진 밥상’이라는 말은 이미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제는 스스로 나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건축산업대전,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21세기 굴뚝없는 황금산업’이라는 산업전시회가 우리에게 다양한 기회를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전시장’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영역이 되고 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회원여러분의 발전을 기원한다. ■

김 석 환
터·울 건축사무소
by Kim Seok-hwan, KIRA

훈데르트 바서의 환경과 건축

The Environmental and Architectural Works of Hundertwasser

feature

글머리에

지난날 평소 모르던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훈데르트 바서를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화가, 환경운동가, 건축사로서 그의 세계적 명성에 비해 한국에서는 너무 모르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자료를 우리 협회에 보이며 한국 건축사들이 그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소개할 것을 제의했다고 했다. 그리고 협회 관계자와 상의한 끝에 나에게 전화하게 되었다고 했다. 전에 협회지에 실린 글을 읽고 필자를 알고 있었다면서 만나고 싶다고 했다.

수화기를 내려 놓고 나에게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던 차에 몇 일후 다시 연락을 받고 만나서 자료를 건네받았다. 그 분은 조경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생태 건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훈데르트 바서의 위대함을 역설했다.

그 날 자료를 받고 헤어진 후, 이번 일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러 날 생각하게 되었다. 받은 자료에 나타난 바서가 만든 건축의 환경에 관한 화두야 공감에 가지만 그의 건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우선 훈데르트 바서의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난 후 그의 생애로부터 전해오는 울림 같은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의 환경에 관한 신념과 활동 에너지가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이 환경을 중시하게 된 현대에 건축사들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훈데르트 바서의 생애와 활동

훈데르트 바서는 1928년 12월 15일 비엔나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이듬해인 1929년, 장교로 근무했던 부친이 1차 세계대전중 사망하였다. 1936년 비엔나 소재 몬테소리 학교에서 1년간 수학하였는데 '색채와 형태'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지닌 학생 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938년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됨으로 인해 오베르 도나우스트라세(Obere Donaustrabe)에 있는 할머니와 이모 집으로 강제 이주되고 1943년 한 해 동안 그의 이모와 할머니를 포함한 외가 유대인친척 69명이 추방, 죽임을 당한 끔찍한 일을 당하였다.

1948년 비엔나에 있는 미술학교의 로빈 크리스찬 앤더슨 교수 아래서 3개월간 수학하였고 그 해 알버티나에서 있었던 발터 캠프만과 쉴레의 전시에 깊은 감화를 받았다. 1949년 오스트리아 남부의 레오폴트스크론, 나폴리, 이태리 북부, 토스카나, 시실리에 등 여러 지역으로 여행 중 르네 브로(Rene Bro)를 만나 그를 따라 프랑스로 가서 자신만의 양식을 개발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Friedrich Stowasser에서 Hundertwasser로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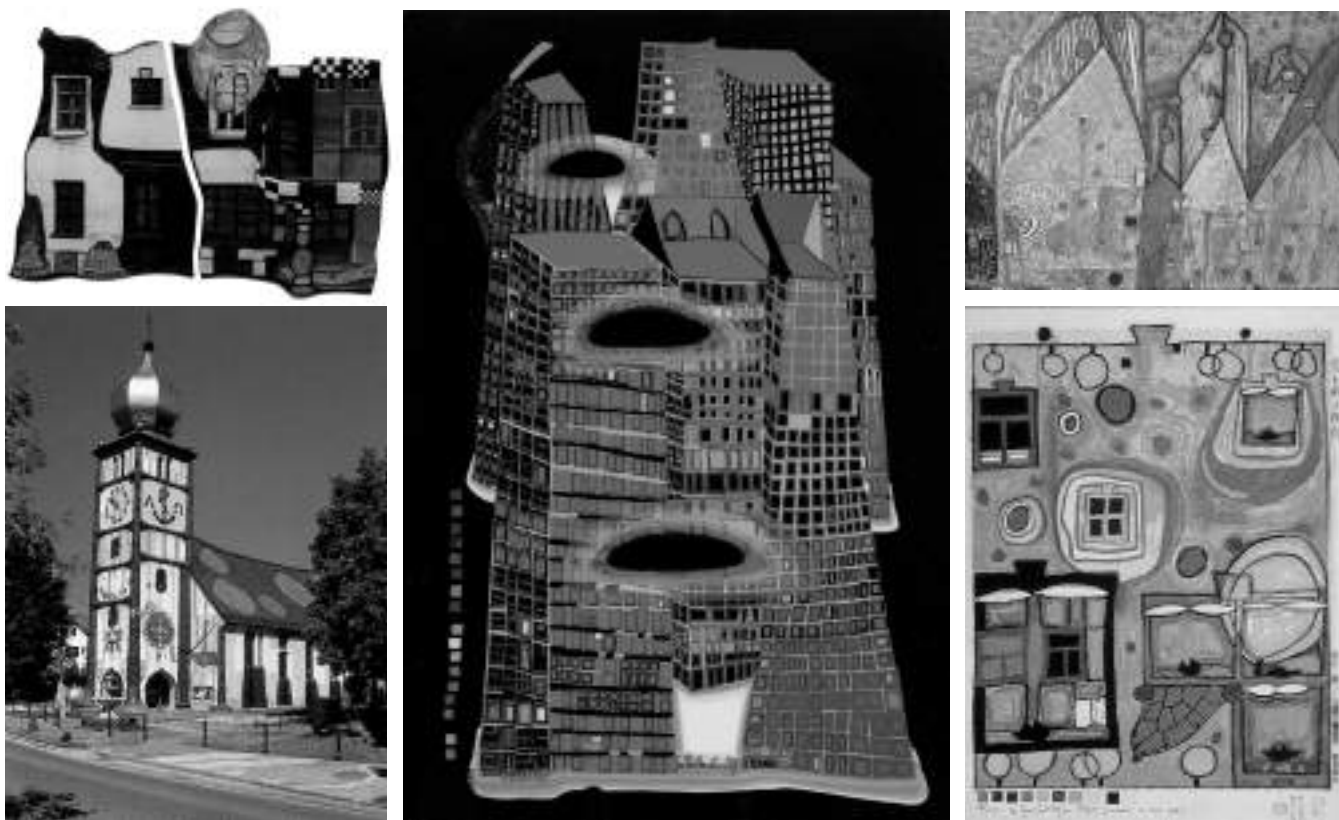
1950년 브로와 뒤마그씨 가족들과 함께 파리에 머물면서 성 망데(St. Mande)에서 브로와 벽화 2개를 공동 제작했고, 그 해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에 들어가지만 입학 첫날 자퇴했다. 1951년 비

엔나 미술 클럽(Art Club of Vienna) 회원이 되었고, 1952년 '그의 콧수염을 잡고 있는 유럽인(European Holding His Moustache)' 제목의 첫 전시, 1953년 비엔나 미술 클럽에서 '99개의 머리(99head)' 제목의 두 번째 전시를 열었다. 1954년 파리에서 '행복한 죽음의 정원' 제목의 전시를 가졌으며, 트랜스 오토마티즘(Transautomatism)이론을 발전시켜 자신의 작업에 적용했고 작품에 번호를 매겨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후 수많은 세계 순회전시 등을 통해 그의 명성이 확고해지게 되었다.

그는 일생동안 20여차례의 환경 관련 강의와 선언문 발표 그리고 대부분이 리모델링인 15개 건의 건축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2000년 2월 19일 세상을 떠났는데,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수목장을 유언하였고 뉴질랜드에 있는 그의 땅, 행복한 죽음의 정원에 툼립나무 아래서 자연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다.

활동력의 원천, 그림과 사상적 화두로서의 환경

바서가 펼친 다양한 활동의 원천적 힘은 화가로서의 감각과 명성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일생동안 40여차례의 전시를 했고, 그 중 10여차례 세계 각국의 순회전을 가졌다. 또한 여러 나라로부터 각각 그 나라의 우표나 화폐 등 디자인을 의뢰받았다. 또 1979년 세네갈을 위한 우표 3장 제작, 비엔나에서 5개 주화 오브제 제작 책 디자인, 1983년 유엔 우표 6개



디자인, 1984년 유엔-제네바 우표(1.25Fr) 디자인으로 이태리 퍼티니(Pertini)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우표에 수여하는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오스트리아 우체국의 전화카드를 디자인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환경 운동가로서의 선구자적 활동을 펼쳤다. 그의 환경에 관한 발언은 1968년 두 번째 나체 연설 ‘관념적인 건축의 거부 운동’이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현대적 화장실로부터 벗어나자는 ‘화장실로부터의 탈출(Los von Loos)’ 낭독에서도 같은 맥락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생각은 1982년 워싱턴DC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에서 ‘당신은 자연에 들른 손님입니다(You are a Guest of Nature)’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손님은 주인이 갖고 있는 것들을 쓰되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하듯이, 인간도 자연의 손님으로서 예의를 지켜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그 혜택에 감사하고 조용히 머물다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현대 문명이 인간의 이기를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데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훈데르트 바서의 회화, 환경, 건축 등 모든 작업에는 그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은 자연을 화면에 압축적으로 표출한 그의 회화에 녹아 있는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의 인식은 최종적으로 인간의 평화와 결부되어진다. 그는 평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베니스에서 흰 바탕위에 다비드의 푸른 별과 녹색 아랍 초생달로 된 중동의 평화의 깃발을 제작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에 대한 인식은 그가 어린시절 겪었던 삶의 체험으로부터 비롯

된 듯 보인다. 가족의 참화로부터 평화는 그의 내면안에서 갈구하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을 것 같다. 그리고 바서가 평생동안 열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정신적 힘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자신이 겪은 아픔을 자조하는 대신 인류 평화의 추구로 승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한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생명의 존중과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길을 추구한 그 신념의 힘이 크게 느껴진다.

그의 건축적 성격과 의의

바서 건축의 의미는 직업적 건축인보다 포괄적 범주로 환경운동가로서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표출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집은 인간성을 함양하는 환경을 지녀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구조는 건축은 일정 규모로 유통되어지는 상품과 같이 취급하기 쉽다. 인간의 삶터가 더욱 더 삭막한 환경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경제적 가치에 몰두하여 자연의 파괴의 문제를 망각하기 때문이다. 바서는 그로써 파생된 환경 문제를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자신의 사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바서의 건축에 대한 견해는 1958년에 발표한 ‘건축에서 이성(합리)주의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거기서 그는 근대 이후 도시와 건축에서 건조하기 짝이



없는 현대 건축의 면모 그리고 표출되는 환경의 악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화가로서의 명성과 주목받는 환경운동가로서 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었고, 건축적 전문성을 갖지 않은 상태였지만 교훈적인 작업을 하게 되었다. 훈데르트 바서가 건축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은 비엔나 시영아파트(Lowengasse/Kegelgasse의 시범 집합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부터이다. 1980년 비엔나 시당국이 이상적인 주거 공간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갖고 디자인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파사의 안을 채택하였다. 비엔나 시는 그의 안에 사람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공모 단계에서부터 건축 과정에 이르기까지 우려와 걱정을 하였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지금은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 있다. 그 비엔나 시영 집합주택은 나중에 바서하우스로 불리게 되었다. 바서하우스는 근대 건축에 대한 바서의 대안적 시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를 통해, 그의 주장이 실험이 아닌 현실적으로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

바서하우스는 진입할 때 마주 대하는 외부 공간은 마치 공원처럼 느껴지도록 해 놓았다. 그 곳에 설치된 맑은 분수대에서, 시골에서 아이들이 개울가에서 놀때처럼 맑은 물소리를 듣고 물장구를 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무를 심어놓은 지붕은 마치 야산을 올랐을 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뿐 아니라 각 층의 발코니나 로비 등에도 화분에서 수목이 자라게 해 놓았다. 그러한 건물 주변의 숲들에 의해 공기 맑은 숲 내음과 새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녹음이 우거진 그늘과 각양각색의 꽃과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다. 흙으로 덮힌 지붕 아래층의 주호는 마치 자연 동굴로 된 아키토피아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의 건축에 나타나는 인상은 그의 회화에 사용된 조형 어휘와 일맥상통한 것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색채와 선이 화면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이미지에서 화가로서의 탁월한 감각을 엿볼 수 있다. 분할된 면의 비례, 유기적인 선, 감각적인 색채, 추상적 질서로부터 즐거운 활력이 느껴지는 그의 그림은 칸딘스키나 클레로부터 받은 영향도 엿볼 수 있다. 그러한 이미지는 환경적 요소와 함께 근대 건축에 반발하는 일관된 생각의 작용인 듯 하다. 그리고 그가 건축적 조형에 스스로없이 그의 회화 세계를 연관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활동에 일관된 사상적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건축 및 도시 모든 부분에 대해 자연적인 환경과 디자인의 손길에 의해 활력 있고 친근한 공간으로 바꾸려는 생각인 듯 하다.

그의 건축이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된다는 그의 개성과 함께 그가 주로 다룬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 경우 처음부터 새로 짓기보다 이미 지어져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의해 디자인이 작업의 중요 테마로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로써 건축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게 되겠지만, 쓰임과 연관된 공간적 감각을 이루어내는 의미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바서의 건축에서 드러나는 환경과 회화적 이미지는 그의 건축적 개성을 갖게 하는 요소지만, 그것이 진정한 건축적 가치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돌아보는 기회를 기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 또 근대 건축이 금기시해온 장식성에 의한 즐거움이 유발하고 있는 건축 이미지는 자칫 디즈니랜드 건축같은 성격으로 비춰보일수도 있다.



건축에서 환경의 중요성이 분명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건축적 가치를 대신하기는 어렵다. 그의 선구자적 활동을 존중하지만, 그의 건축적 양상이 이 시대 보편적 건축 가치로 적용하기는 어렵게 느껴진다.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도 세상적 요구속에서 불가분의 관계로 수용되어진 현실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바서 건축의 의미는 환경을 토대로 이 시대 건축에 대한 반성적인 생각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그가 한 작업을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점이다. 당장의 비현실적으로 비춰지는 문제도 언젠가 사회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오히려 더 보편적 수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중시하는 환경은 효율성의 관점보다 더 큰 화두로서 건축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실제로 환경은 오늘날 도시와 건축의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으며 건축의 질적 측면에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도 커질 것처럼 보인다. 한 사람의 생각이 처음 발표될 때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대중적 공감을 얻으면 보편적 의미의 힘을 갖게 된다.

• 훈데르트 바서의 건축경력

1982-‘ 건축물의 의사로서 로젠탈 공장(Rosental Factory) 정면부 디자인 수정

1983-비엔나 시당국이 지명한 비엔나 시영아파트 리모델링 프로젝트 Lowengasse/Kelegasse의 시범 집합주택을 위한 5개의 구상안을 발표

1983-Krems 항구 저장소 외벽에 모자이크 작업

1987-산타 바바라 교회의 디자인 수정, 어린이 탁아시설 설계, 프랑크푸르트 헤덴바임(Heddernheim) 브랜바흐

1988-재건축한 배른바흐의 St. Barbara 교회가 9월에 헌당됨, 헤덴하임의 어린이 탁아시설의 초석이 12월 20일에 놓임

1989-일본을 상징하는 ‘비상하는 용’ 제작. Hugelwiesenland 건축 모형 설계

1990-KunstHausWein(훈데르트바서 미술관, 비엔나), 고속도로 휴게소(Bad Fischau), Agip 주유소 건물, Spittelau 쓰레기 소각장(비엔나), Wiesen(오스트리아)와 Bad Soden(독일)의 쇼핑몰, Naga Valley 와인농장(캘리포니아)

1991-KunstHausWein 완공 및 개관 : Rogner Austria를 위한 온천장(Blumau, Styria)은 Hundertwasser의 “In the Meadow Hills (Rolling hill)”를 기초로 함. 독일 Plochingen 의 빗물 타워 아래 있는 주거생활지

‘ 21세기 카운트 다운 시계 기념탑 ’ (도쿄)

1995-Blumau 온천 마을 작업. 독일의 비텐버그(Wittenberg)에 있는 마틴 루터 입문학교 재디자인

1997-건축프로젝트 Die Wald -Spiral von Darmstadt 발표 Blumau, Styria 에 있는 Rogner Thermal Bath(블루마우 온천장)의 개관식. 건축프로젝트 MOP city of Osaka(일본), ‘farmers's market in Altenrhein(스위스) 위한 건축디자인과 모형제작

1999-[건축] 건축프로젝트 : 오사카 폐기물 센터 Sludge Center, Magdeburg의 녹색 성

The Green Citabel of Magdeburg(독일), Uelzen 철도역(독일), 새로운 Kawakawa 공중 화장실을 위한 복원 작업(뉴질랜드)

2000-독일의 Teneriffa와 Dillingen/Saar 건축프로젝트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4회 이사회

2006년도 제4회 이사회가 지난 4월 18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APEC Architect Central Council 가입에 관한 건, 제2차 APEC Architect Central Council 참가계획 승인의 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지원금 지급에 관한 건, 정부위탁업무 관리 개선 승인의 건,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부산유치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건과 건축사등록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APEC Architect Central Council 가입에 관한 건
 - 앞으로는 ‘APEC건축사’ 또는 APEC건축사제도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APEC Architect Project(AAP)’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함.
 - 지금까지는 AAP 관련 국제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했기 때문에 등록기준 등을 정하는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하여 정식 이사국으로 가입하기로 함.
 - 향후 발생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국내의 “AAP위원회”는 정부에서 위임받은 바에 따라 협회의 조직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다른 정부위탁업무처럼 별도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여 운영하기로 함.
- 제2호의안 : 제2차 APEC Architect Central Council 참가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지출금액(600만원)에 대해서는 세입재원이 확보된 이후 환수하기로 함.

▷ 기 간 : 2006. 5.22(월) ~ 25(목)

▷ 장 소 : 멕시코 멕시코시티

▷ 지출금액 : 6,000,000원

▷ 지출과목 : 국제사업비

- 관련위원회에서 세부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지원금 지급에 관한 건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2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 지원금 : 20,000,000원

▷ 납부처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지출과목 : 예비비를 보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

• 제4호의안 : 정부위탁업무 관리 개선 승인의 건

- 정부위탁업무를 본협회 또는 다른 건축사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함.

▷ 06. 5. 1 : 방문 증명발급

▷ 06.10. 1 : 인터넷 증명발급

▷ 07. 1. 1 : 무인증명발급기 설치

• 제5호의안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부산유치에 관한 건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를 2008년도에 대한민국 부산에서 유치하기로 함.

▷ 주최/주관 : 대한건축사협회

▷ 후원 : 부산광역시(예정)

- 대회 유치와 관련한 홍보영상물 등은 부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국제위원회에서 담당하여 제작하기로 함.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건

- 노영민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법률(안)에 관계없이 황우여 의원 등이 발의한 건축문화 진흥법(안)이 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등록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의 등록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우리 협회가 먼저 실무수련 및 계속교육 등에 관한 운영체제를 갖추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06.4.26 개최예정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포럼의 패넬선정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최 측에 강력히 항의하기로 함.
- 건축자재인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자재생 산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브로슈어 제작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젊고 능력 있는 건축사들이 협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함.

위원회 회의

■ 제2회 국제위원회

2006년도 제2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16일 오후 4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국제행사 계획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관련 발표자 추천에 관한 건,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책자발간에 관한 건, Architecture Asia 작품 제출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 2006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건 등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국제행사 계획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일부 업무만 조정하여 업무분장을 하기로 하고, 아카시아 부산 유치 등과 관련하여 부산 회원 중에서 국제위원 1인을 충원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
- 제2호 :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관련 발표자 추천에 관한 건
 - 기조연사(Keynote Speaker)에 유길 건축가, 김종성 건축사, 김성국 홍익대 교

수, 윤장섭 건축사 중 참가가능여부를 파악하여 결정하기로 함.

- Sub-Session 발표자에는 본 협회 이영수 이사를 추천하기로 함.
- 국제회의와 관련한 발표자의 선정 및 추천이 있을 경우,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함.
- 제3호 :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책자발간에 관한 건
 - 책자 발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최종 취합된 자료는 민규암 국제위원이 검토하기로 함.
- 제4호 : Architecture Asia 작품 제출에 관한 건
 - 아카시아 회원국들의 작품 제출이 저조한 관계로 Architecture Asia 발간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국내의 우수한 작품들이 게재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함.
 - ▷ 홈페이지 및 건축사지에 홍보를 철저히 함.
 - ▷ 본협회 홍보편찬위원회에 작품 추천 등을 위한 협조요청을 하기로 함.

▲ 기타사항

- 2006년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건(몽고 및 일본건축단체와의 재협약 절차 누락 관련)
 - 일본건축사회연합회와는 차기 교류행사에서 재협약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함.
 - 몽고건축사협회와의 상호교류는 아래의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협의하여 재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개선방안>
- ▷ 교류 인원 및 일정의 축소
 - ▷ 내실있는 교류행사 프로그램 작성
 - ▷ 상호교류는 계속하되, 정기적인 초청·방문행사 없이 특별한 경우 초청 또는 방문을 하는 방안 등
 - 추후 국제교류는 형식적인 교류행사보다는 외국강사 초청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실질적인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제3회 정보관리위원회

2006년도 제3회 정보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31일 오후 2시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업무용소프트웨어 공동 구매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업무용소프트웨어 공동 구매에 관한 건
 - 공동구매 추진은 1년에 3회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하며, 1회 시행 시 3주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함.
 - 공동구매 대상 판매사마다 별도의 전략을 세워서 시행하는 것으로 함.
 - 2006년도 첫회 공동구매 시행일은 2006. 5. 1일로 정하고 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는 것으로 함.

이 · 취임식 |

신인기 신임 상근부회장 취임



우리 협회 상근부회장에 신인기(申仁基) 전 건설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취임했다.

지난 5월 16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이철호 회장과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대한건축사협회 상

근부회장 이 · 취임식 이 개최됐다.

이 · 취임식에서는 이철호 협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지난 8년 여간 상근부회장직을 수행해 온 윤준섭 전 상근부회장이 이임사를 끝으로 퇴임했으며, 신임 신인기 상근부회장이 취임사와 함께 업무를 시작했다.

신인기 상근부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의 주요현안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협회의 중점사업들의 원만한 추진으로 협회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모든 힘과 정열을 보태도록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약력>

1990 서울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졸
1992 한양대학교 환경과학대학원 석사
1975~1979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지역계획과, 도시국 녹지공원과
1979~1993 녹지공원과, 지역계획과, 수도권 정비과
1993~2000 제주개발소장, 건설관리과장, 건설지원과장
2000~2003 기술정책과장, 지원축지과장, 원주청장
2003~2006 정책지원단장, 한강홍수통제소장, 국토지리정보원장

취 임 사

존경하는 이철호 회장님과 임원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직을 맡게된 신인기입니다.

먼저, 협회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신 이철호 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나라 건축문화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서 건축사업계 및 협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건축계는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전문직서비스 시장개방과 FTA협상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는 건축사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건축사업계의 양극화 문제와 건축사의 과다배출 등으로 가뜰이나 어려운 시점에 건설업체의 설계검열 등이 겹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과거 어느 때에도 지금처럼 건축이 문화로 인식되어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 조직이 구성되고 건축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되고 있던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기회야말로 우리나라가 건축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협회에서는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건축사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한국건축산업대전, 건축자재인증사업, 건축사회관 준공 등 여러 중요한 사업들을 회장님과 임직원을 중심으로 역동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협회의 주요현안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또한 협회의 중점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됨으로써 협회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모든 힘과 정열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7여년 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임원과 건축사회원 그리고 직원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협회가 하나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회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간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신 윤준섭 선배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하게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 5. 16

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신 인 기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6년 4월 30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06. 4월중 진행된 우리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지상 4층과 지상 5층의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고, 골조공사와 병행하여 지하 1층의 옹벽 방수공사 작업이 진행되었다.

06. 4월말 현재는 지상 6층 바닥 철근배근 및 형틀설치 작업이 완료되어 콘크리트가 타설되었으며, 06. 5월초 지상 7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가 타설될 예정이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6.4월말 현재 51.0%(계획 83.8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06. 4.24일 개최된 회관 지표면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가 원안 가결되어 후속 인허가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06. 4.28일에는 시공사와 1차 설계변경 및 토목가 시설공사 증액분에 대한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 증액(약 9억원) 및 준공예정일을 06. 11.20일로 연장 조정하였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2006년도(제4기) 회관건립위원회의 재구성 이후 ' 06. 4.28일 개최된 제6회 위원회에서 회관 2차설계변경(지표면조정) 추진 등의

향후 회관건립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협찬자재의 품목 확정과 회관 임대 및 사용계획(안) 수립에 대해서는 차기위원회에서 논의기로 하였다.

또한 회관 지표면조정을 위한 도시계획심의 원안가결에 따라 회관공사를 예정공정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설계자에게 ' 06. 5월말까지 설계변경도서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후속 관할구청 인허가 행정업무를 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였다.

그리고 회관 최종 설계도서에 대해서는 협회 집행부의 설계도서(마감상세 등) 검토요청에 대해 설계자로부터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출받아 차기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키로 하였다.



지상 5층 벽체전기배관



지상 6층 바닥철근배근 및 전기배관



주출입구 전경



공사 전경



투시도

2006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06대한민국건축대전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이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건설되는 학교복합시설(Community School)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가 한국건축가협회와 함께 교육시설 중심의 복합시설에 관한 국제아이디어 공모전으로 개최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가상의 부지위에 문화·복지·보육·체육 등의 시설을 학교와 입체적으로 통합하여 주민들에게 윈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복합시설의 설계아이디어를 얻게 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복지 수요를 한 곳에서 충족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센터이다. 따라서 문화·복지시설을 교육자원으로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계의 인식제고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장차 학교복합시설 후보 사업 발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제는 '최적혼합(Max-Mix)-Community School'로 학생과 실무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주거특성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UIA 소속의 각 국 건축사협회를 통해 동시에 공모되며, 건축과 도시에 관심있는 국내외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격 : 건축과 도시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모든 사람

•일정

- 4월 24일(월) ~ 5월 26(금) : 1차 원서교부 및 등록(온라인)
- 6월 23일(금) : 주제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개최
- 7월 28일(금) : 1차 작품 접수
- 8월 4일(금) : 1차 결과발표
- 8월 7일(월) ~ 8월 11일(금) : 2차 등록(1차 합격자에 한함)
- 9월 28일(목) : 2차 작품접수(1차 합격자에 한함)
- 10월 13일(금) : 2차 결과발표(공개심사대상자+입선자)
- 10월 18일(수) : 3차 공개심사(공개심사대상자)
- 10월 20일(금) : 최종 결과 발표
- 12월 초(2006 대한민국건축제 기간 중) : 시상식 및 전시(삼성동 코엑스)

•시상

- 대상(기획예산처장관상) : 상장,상패,상금 500만원 및 해외건축투어
- 우수상 3점 : 상장, 상패 및 상금 각200만원(한국건축가협회 회장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상 각1점)
- 특선 약간점 : 상장, 상패 및 상금 각100만원
- 입선 다수: 상장 및 상패

•심사위원

- 김승제(광운대 교수), 박경립(강원대 교수), 박길룡(국민대학교 교수), 박호건(주.건축사사무소 당건축 대표), 여영호(고려대 교수), 유현준(홍익대 교수), 이영근(기획예산처 민간투자기획관)

•문의 : 02-744-8050, max-mix.kia.or.kr

문예아카데미 '건축 History, 다시 보는 명강좌' 개최

문예아카데미에서 개최하는 '건축 History, 다시 보는 명강좌'는 10여년이 훌쩍 지나버린 옛 시간, 좁은 골목길 안의 비좁은 강의실에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던 그 강의들을 찾아 변하지 않는 혜안(慧眼)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건축 강좌이다.

지난 3월 31일 개강한 이 강좌는 오는 6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제1강의실에서 열리며, 정신(精神)과 건축, 건축가(建築家)와 건축, 상상(想像)과 건축 등 3가지 테마로 총 10강좌가 열린다. 담당교수는 서혜림, 진형준, 송효상, 공철, 송인호, 정진홍, 정기용, 배형민 교수이다.

•정신(精神) & 건축

- 1강(3/31)-종교와 건축 : 종교에서 바라보는 종교읽기-정진홍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 2강(4/7)-20세기 철학과 세기말의 지적 교류 -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04/07]
- 3강(4/14)-정신성 그리고 건축가 - 송효상 이로재건축 대표 [04/14]

•건축가(建築家) & 건축

- 4강(4/21)-건축가로서의 삶 - 정

한양대학교 건축대학·대학원 2006년 상반기 특강



한양대학교 건축대학과 건축대학원에서 2006년 상반기 특강을 개최한다.

‘도시의 전망(Urban Perspective)’이라는 제목으로 현대도시의 좌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도시의 미래 모습을 그려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일정(매 7시)
 - 5월 12일 : 강홍빈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 5월 23일 : 김영준 건축사 / 김영준도시건축연구소
 - 6월 2일 : 이종호 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 장소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과학기술관 5층 전시실
- 문의 : 02-2220-0301

공간문화 아카데미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재생’ 기획자 대상 단기강좌

2006년 상반기 (사)문화우리 공간문화 아카데미에서는 문화예술 기획자와 예비기획자를 대상으로 총 6회 분량의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재생’ 단기강좌를 개최한다.

강의는 토론회 강의를 지향하여 전문가와 기획자간, 기획자와 기획자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교류, 협력을 도모함. 코디네이터가 직접 인솔하는 현장탐방과 강의를 통해 커뮤니티 개발 프로세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술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보다 현실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대상 : 문화예술관련 매개자(총 40명)
- 시간 : 총 6회 24 시간
- 장소 : 일석기념관 6층 세미나실, 파주 출판도시, 헤이리 예술마을
- 일정
 - 5/17 : 문화환경정책과 도시재생(박은실, 추계예대 예술경영대학원)
 - 5/23 : 문화예술교육으로 커뮤니티는 숨는다. (전효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 5/27 : Culturescape-파주북시티 현장강의(김영준, 김영준도시건축)
 - 5/28 : 헤이리 예술마을 자유탐방(이종재, 멀티 아티스트)
 - 5/31 : 도시에 대한 권리, 공공미술 (박삼철, 아트컨설팅서울 대표)
 - 6/7 : 문화적 공간조성 및 형성에 의한 도시재생(오민근, 문화부 공간문화과 전

문위원)

- 주최 : (사)문화우리, 서울문화재단
- 문의 : 02-737-1877, www.culturec.org

2006 선진 세미나 개최



2003년부터 시작된 선진세미나는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동주)에서는 매년 개최하는 건축세미나로서 2006년에는 이영범 교수를 초청하여 일년간 총 8회에 걸쳐 ‘2006 선진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 : 매월 마지막 화요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주)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1층
- 일정
 - 5월 : Santiago CALATRAVA
 - 6월 : leoh Ming PEI
 - 9월 : Architecture of Young Bum LEE
 - 10월 : Steven HOLL
 - 11월 : Zaha HADID
 - 12월 : Samuel Mockbee
- 문의 : 02-6333-3000

제2회 대호(大虎)건축상 당선작 발표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대호(大虎) 건축상’의 당선작이 지난 4월 23일 발표됐다.

대상에 윤성원(경기대학교)과 김정환(국민대학교)의 ‘Square of Continuous Activity’가 선



당선작 ‘Square of Continuous Activity’

정되었으며, 우수상으로는 정우석, 서윤원(인하대학교)의 ‘Silver Nearby Nature’와 이재창, 박종래(광주대학교)의 ‘Community Scape’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행복한 노후시설(The Blessed Silver Town)’로서 울트라 건설의 설립자인 이영범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노인들을 위한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국내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실시되었다.

시상식은 5월 8일 울트라건설 본사 사옥에서 열렸으며, 같은 장소에서 13일까지 당선작을 전시했다.

- 문의 : 울트라건설 02-2642-0831, www.ultracons.com

제3회 삼우 디자인 워크숍

작년에 이어 삼우설계가 주최하는 제3회 삼우디자인워크숍(SDW)이 개최된다.

학교나 작업실 등을 떠나 한정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다양한 강사진과 함께 새로운 건축을 경험해 보는 마당이 될 것이며, 건축설계에 재능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조기에 채용 확정하는 기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시행기간 : 7월 3일 ~ 7월 6일
- 시행장소 : 청평 마이더스 리조트



- 참가대상 : 건축관련학과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이상
- 진행방식 : 7인 이내로 1조를 구성하여 1인의 인스트럭터와 작업
- 제출형식 : 1인 1작으로 모형 및 판넬 작업
- 모집일정 : 6월1일~6월12일 SDW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 모집 및 선발 예정
- 문의처 : sdw@samoo.co.kr
- 홈페이지 : <http://www.samoo.co.kr/sdw/2006/main.asp>

‘선유도 공원’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김진애)는 첫번째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유도 공원을 선정하였다.

05.12월 출범한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건설기술과 건축문화에 대한 범정부적 선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좋은 환경·좋은 건축’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혁신과제와 현장 실천운동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일환으로 매달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를 선정·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는 일반국민,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은 건축·도시·SOC시설물을 대



상으로 작품성, 창의성, 환경성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고 작품해설과 함께 알리으로써 우수한 공간환경 모델에 대한 일반의 공감대를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선유도 공원’은 서울에서 지난 2000.12월 정수장을 폐쇄하고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 설계경기를 진행하여 조성된 건축사(주.건축사사무소 조성릉도시건축 대표)와 정영선 조경가(서울시와 설계팀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폐기된 정수장을 수생식물이 서식하고 원형극장, 놀이마당 등이 갖추어진 친환경공원으로 조성하여 2002. 4월 개장하였다.

위원회가 ‘선유도 공원’에 대해 높이 평가한 데는 효용을 다한 기존 정수장 시설의 흔적을 보존하고 재생하여 역사성을 살렸으며, 영역별 테마가 절제된 디자인으로 세련되게 표현되었을 뿐 아니라 각각의 공간이 연속적이고 긴밀하게 연계되었고, 산책로 등 휴식 공간 뿐만 아니라 생태체험장이나 교육장 등 환경과 조화되는 다양한 공간계획이 세밀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031-436-8900~1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 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 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3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9152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2-88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32-9200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88 · 논산지역건축사회/(041)736-2117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 335-13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건축사회/(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8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6 · 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 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아카시아(ARCASIA) 임원회의 참석 보고서

우리협회가 회원단체로 가입되어있는 아시아건축사협의회(ARCASIA :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의 임원회의가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06. 2월 21일, 중국 북경에서 '06. 3. 23일 각각 개최되었다. 아카시아 회장 당선자 자격으로 이 회의에 참석하였던 본 협회 이근창 부회장의 참석 보고서이다. - 편집주

■ 제6차 아카시아 임원회의 ('06. 2. 21. 스리랑카 콜롬보)

제6차 아카시아 임원회의가 2006년 2월 21일 스리랑카 콜롬보 Galadari Hotel에서 개최 되었다. 참석자는 아래와 같다.

- Chairperson Yocanda D. Reyes
- Deputy Chairman
- Zone A : Balbir Vema
- Zone C : Nobuaki Fruya
- Honorary Secretary Robert S. Sac
- Treasurer Ana Mangacino-Ling
- Immediate Past Chairman Bary Will
- Advisors: Richeto Allordo, Syed Ziagham

Jaffery

ACAE Chairman : Jayantha Perera
Chairman-Elect : Kun Chang Yl

주요의제로 다루어진 내용과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현재 BCI Asia가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와 계약에 의해 발행 중인 『Architecture Asia』는 지난 제 26차 이사회에서 결정한대로 말레이시아 건축사협회에서 BCI Asia 도움 없이 계속 발간한다.
차기 회의에서 지속적인 발간 여부와 잡지사 변경 건은 논의하기로 한다.
(주기 : 태국 잡지사에서 발간 의향을 보였다는 정보가 있음)
- 2) ARCASIA 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ARCASIA를 필리핀에 법인등록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 임원회의에서 결의한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홍콩건축사회(HKIA)에서 약 US\$20,000를 등록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함.
- 3) 각 회원국으로부터 건축물의 Timeline chart Project는 완료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차기 이사회에 결과물을 보고하기로 함.
- 4) Zone A 부회장 Balbir Vema는 3월말 까지 건축물 유산보호(Heritage), 인재에 의한 재난 Program(Disaster Program) 및 WTO에 대한 ARCASIA 입장을 정리한 Position Paper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5) 건축사 상호 인정(MRA)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APEC과 더불어 ARCASIA 회원국간 활발한 의견 개진을하기로 함. 현재 Professional Commission을 구성하고 싱가포르 건축사협회 Rita Soh가 차기 중간 회의를 계획하고 있음.
- 6) ARCASIA 회원국간 긴밀한 유대를 위해 특별한 Program을 적극 개발하기로 함.
현재 진행 중인 한(KIRA)·일(JIA) 축구경기와 같은 운동경기를 통한 Skin-ship

Program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

7) 차기 임원회의를 몽고에서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함.

8) ARCASIA Website가 3~4주 후에 OPEN 할 수 있도록 함.

9) ARCASIA History Book 발간을 위해 각 회원국에서는 보관되어있는 자료와 함께 회원협회의 역사와 각국의 국기, 지도, 일 반정보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 말 레이시아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 기 위해 사무국에서 방문하기로 함.

10) ARCASIA Newsletter에 많은 회원단체 의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협조바람.

본 회의와 더불어 UIA 신입 회장 Gaetan Siew와 함께 UIA와 ARCASIA의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기구별 진행하고 있는 교육, 전문 용역 업, 계속교육, 국제현상설계, 건축물 유산, UN Habitat 등 서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 계를 정립하기로 하였다.

■ 제7차 아카시아 임원회의 (06. 3. 23. 중국 북경)

2006년 3월 23일 중국 북경 중국 건설부 회 의실에서 아카시아 임원회의가 개최되었고, 회 장 Yolanda D. Reyes, 고문 Barry Will, 사무 총장 Robert S. Sac, 재무비서 Ana Mangalino-Ling, 교육위원장 Jayanta Perera, 중국건축사협회 회장 Song Chunhua, 이외 중국 관련 이사와 차기 회장인 필자가 참 석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9월에 개최되는 제 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와 제27차 아카시아 이사 회 준비 상황 점검이었다.

중국 측에서 제시한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아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 1) 이사회 전에 개최되는 고문단 회의와 UIA 4 지역 회의를 위한 장소 제공과 참석자 확인.
- 2)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Convener 선임.
- 3) 학생 켐버리를 위하여 대략 70~80명 학 생이 기숙할 수 있는 숙박시설 제공과 Convener 선정.
- 4) 건설자재 전시회의 Ribbon Cutting 행사 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시간 조절.
- 5) 공식 호텔과 저렴한 호텔과의 이동 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고려.
- 6) 테마를 나누어 진행하는 소위원회의 참석 자 사전확인.
- 7) Keynote Speaker의 사전 교섭 및 Confirm 주제를 미리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 8) ARCASIA 시상식 준비와 누가 Medal을 만들어 제공하는지를 전 회의 개최국인 태 국과 조율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9) Sub-Session(4개 주제) 참석자와 토론자 발표내용을 사전 점검하여 중복되지 않도 록 조치.

10) 등록비 면제 참석자와 초청인사에 관한 사전 확인.

11) 건축물 관람(Official Excursion)에 가능하 면 2008년 개최하는 올림픽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포함.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가능한 5 월 중 제1차 홍보물이 회원국에서 송부 될 수 있 도록 요구.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건축 소프트웨어 업계동향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물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린 인증제인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시스템이 확립되었으며, 오피스 건물에서의 최초 인증이 수여되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학술대회에 많은 참가자들이 등록을 하였다. 풍력, 태양 에너지 등의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들의 저장 방법 등에 관한 발표와 워크숍이 있었다. 풍력 에너지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의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논리 개발에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 건축설계 부분에서는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뉴욕의 환경인증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오피스 건물은 과다한 에너지 소비의 대표적인 경우이며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 받아 왔다. 그러나 그린 건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주자의 건강과 환경 보존이 설계와 개발의 주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뉴욕 시는 2000년에 그린 인증제인 LEED 시스템을 확립하고 최근 새로운 두 곳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였다. LEED 시스템은 건물의 에너지 및 물의 소비량, 실내 공기의 질, 자원의 재활용 등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지수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여 인증, 황금인증, 플래티늄 인증의 세 단계로



최초로 그린 인증을 받은 Hearst Tower와 Seven World Trade Center.

구분하고 있다.

처음으로 인증된 건물은 뉴욕의 Hearst Tower와 Seven World Trade Center이다. Seven World Trade Center는 52층 건물로 9·11사태로 무너진 World Trade Center를 대신하여 지어진 건물로 미국 그린건물위원회로부터 황금인증증을 받았다. 다른 건물은 Hearst Tower로 Norman Forster에 의하여 리모델링된 건물이다.

뉴욕에서 그린 빌딩으로 인증 받을 경우 주 정부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개발에 따른 인증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뉴욕시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주거 공공 건축물과 정보보조를 받는 공공건축물의 LEED 인증을 내년부터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그린 인증의 분위기는 다양한 형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뉴욕의 Arts & Design 박물관 전시에서 이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렸다. 또한 공영방송인 PBS에서도 세계의 지속가능한 건축 시리즈를 6부작으로 방영하였다. 대부분의 새로 지어지는 유명 건축사의 건물의 경우 LEED 인증을 만족하도록 설계가 되고 있다.

트렌드: 에너지에 대한 고려

2006년 3월 미국 보스턴에서 건물에너지 '06 학술대회가 사상 유례 없는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는 유가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이 대회에서는 풍력, 태양열 생체 에너지 등 대체 에너지 부분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관한 주제의 토의가 있었다. 또한 디자인 부분에서는 태양광의 활용 디자인과 함께 LEED

인증과 건물생애주기 비용 등에 관한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주광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와 함께 설계분야에서의 고려 사항에 대한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이 밖에 대체 에너지로써 풍력발전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미국 북동부 등 주민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국산 풍력 발전기 개발

효성 중공업 연구소는 국내 기술에 의한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였다. 대부분 덴마크 제품을 설치하여 사용하여 왔던 기술적 한계를 벗어나 국내 기술로 750kw급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였다. 5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이며, 풍력발전기 1기는 가동률을 27%로 하였을 경우 690가구의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이다.

유비쿼터스

국가적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왕성한 실험 정신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유비쿼터스 환경과 관련한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하나는 디지털 유목사회의 개념이다. 도시와 연관된 DynamiCity 전시회와 Living in Motion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또한 물리적 경계가 모호한 유비쿼터스 공간을 연상케 하는 Blue Darkroom 전시회이다.

홈네트워크 인증제 도입 추진

정부는 홈네트워크인증제 도입안을 확정하고 4월 말 공청회를 통한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 중이다. 이는 관련 기술 표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홈네트워크 서비스에 필요한 대내통신 인프라 인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인증은 대내의 가스밸브 차단, 조명제어, 홈뷰어, 방범, 방문자 확인, 난방제어를 인증한다. 대외의 서비스는 원격 검침, 공동현관의 방문자 확인·출입통제, 차량출입 알림, 단지내 영상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인증은 'u시티 인증제'와 연계될 예정이다.

유비쿼터스 도시의 중국 및 중동 수출 추진

우리나라 정보화 기술의 집약이며 국토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이 중국 및 중동으로의 수출이 추진되고 있다. 현지 개발업자는 중국 상하이 푸둥 인근지역 대단위 인텔리전트 단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푸둥지역의 첨단 이미지를 살리기 위하여 LG CNS와 협의 중이다. LG CNS는 새로운 단지 개발에서 유비쿼터스 개념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KT 또한 바레인과 두바이 등 중동국가에 계획도시 건설에 유비쿼터스 도시 개념 적용을 위한 참여를 추진 중이다. 중동의 경우 특정지역의 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관행이 있으며,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는 제도가 유행하고 있어 건설사와의 동반진출과 함께 유비쿼터스 도시 구축 및 운영 모두가 가능할 전망이다.

U홈 건설협의회 출범

지난 4월 국내 대기업과 통신 및 건설분야 사업자들의 유비쿼터스 주택 건설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었다. 이 협의회는 대한주택공사,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주요 건설사와 삼성전자, LG전자, KT 등의 가전 통신업체가 참여하였다.

전시회: DynamiCity - 변화하는 도시 변화에 대한 대응

네덜란드에서는 도시의 빠른 동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제시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네덜란드의 Noord-Brabant 지역의 문제는 건물은 활력이 없는 반면 도시는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지역 주민과 협력을 통하여 변화를 제어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네덜



란드의 Chora, 스페인의 Actar Architectura, 이태리의 Stalker/ON과 일본의 Atelier Bow-Wow(Japan)의 4개 그룹이 출품하였다. 이 전시는 현대 도시의 동적인 현상을 가설물, 새로운 지도 기법 등 건축사사무소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법으로 전시하고 있다. 일본의 Atelier Bow-Wow 그룹은 동경에서 빠른 운송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인근에 카페가 없을 경우 커피 테이블이나 라운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회: Living in Motion- 가변성 주거를 위한 디자인과 건축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이 전시회는 주목 받는 디자이너 Noguchi, Marcel Breuer, Charles and Ray Eames, Philippe Starck 등이 참가하였다. 150개의 작품과 영화 그리고 500개의 판넬이 출품되었으며, 주거 생활과 관련된 가변성과 이동성에 관한 건축과 디자인에 관한 전시이다. 가변성과 다기능성을 위한 가구, 집 그리고 소도구가 소개되고 있다. 이 전시회는 다양한 화에서의 이 개념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다. 유럽의 다락방 계단으로부터 북아프리카 텐트 그리고 미국의 해먹도 전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의 변화와 기술적 진보는 주거 생활의 가변성을 요구하고 있다. 집, 직장 그리고 생활 스타일이 보다 다양하게 되었으며, 일반 건축사들과 디자이너들은 주거 환경에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야만 한다. GPS 기술을 이용한 핸드폰 등의 기술은 유동성과 이동성 그리고 다기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전시는 운송, 조립과 해체, 접이와 펼침, 적응, 복합, 현대의 6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회: 동지- 푸른 암실

이 전시는 공간의 벽체에 형광물질을 칠한 벽체를 전시하고 있다. Jasper de Haan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실내 공간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음산하며 냉소적이다. 이 암실과 같은 이 방은 공간의 깊이는 인지할 수 없으며, 천장과 벽과 바닥의 경계가 없다. 이 전시는 건축 분야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간의 질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물리적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그리기 능력

미국에서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른 학생들의 수작업에 의한 표현 능력의 감퇴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버클리대학교 건축과 교수인 Marc Treib는 전자시대의 그리기에 관한 최근 회의에서 날로 감퇴하는 학생들의 능력 감퇴에 대하여 우려를 하였다. 건축을 포함한 예술분야 학생들은 컴퓨터 그래픽 활용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점점 더 스케치 등 종이를 매체로 한 그리기 능력이 최근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컴퓨터 그래픽의 활용은 빠른 결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전통적 방식의 종이 위에서의 표현은 보다 많은 집중력과 반복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는 예술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기능과 감각 그리고 작가로서 개성을 갈고 닦는 수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디지털 기술 활용에 뛰어난 학생들은 작품 활동에 필수적인 직관과 집중력이 부족하며, 결과적으로 감동적 작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건축소프트웨어 업계소식

Autodesk 2007 시리즈 발표

Autodesk사는 건축사와 구조 그리고 건물

시스템을 위한 종합적 솔루션 발표를 하였다.

Revit Building 9, Autodesk Revit Structure 3, Autodesk Architectural Desktop 2007, Autodesk Building System 2007과 Autodesk VIZ 2007의 시리즈가 발표 되었다. Revit Building 9과 Autodesk Revit Structure 3은 3차원 설계(BIM)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Autocad 2007은 일반용 CAD로 2D 제도 디테일, 디자인 문서작성과 기본 3D 디자인을 위한 제품으로 아직 BIM을 활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다. ADT 2007은 건축사를 위한 제품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유연한 적용 가능한 옵션, 제도와 시공문서 작성이 보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 밖에 Autodesk VIZ 2007은 3D 모델링과 렌더링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위한 시각화를 위한 도구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3DX Max와 호환성이 확보되어 있다.

ARCHIBUS/FM Uses Autodesk DWF to Manage Building Lifecycle

시설관리 분야에서 유명한 ARCHIBUS/FM은 최근 발표된 버전에서 Autodesk사의 DWF 파일 형식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AutoCAD 기반 프로젝트 전체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RCHIBUS/FM은 건물의 생애 주기의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건물의 완공 후 ARCHIBUS/FM에서 DWF 파일을 건물의 위치 정보에 대한 지원, 회의실 예약, 공간에 대한 사용 권한 및 사용료 부여,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 지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ArchiCAD와 구조데이터의 호환

Graphisoft사는 이 회사의 대표 제품인 ArchiCAD(r)와 구조 디자인 소프트웨어인 AxisVM(tm)간에 가상 건물 모델 데이터의 호환성을 발표하였다. 이 두 시스템간의 호환성은 IFC2x2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의 결과 ArchiCAD 모델에서의 응력 부재들은 AxisVM으로 직접 변환이 가능하다. 구조 엔지

니어와 구조 디자이너들은 이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구조 디자인을 수정할 수 있다.

ArchiCAD에서 프리폼 작성

Graphisoft사는 건축 디자인에서 자유로운 형태를 만들 수 있는 ArchiCAD 플러그인 프로그램인 MaxonForm을 발표하였다. 이를 이용할 경우 유기적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Graphisoft사와 MAXON사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이는 건축사가 정형적인 형태 그리기의 한계를 벗어 프리폼의 형태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의 건축사 네덜란드 MacBouwDesign의 작품. ArchiCAD와 플러그인 MaxonForm을 이용한 건물 디자인

무료 IFC Viewer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는 3D CAD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제 표준이며 국제 기구인 IAI(International Alliance for Interoperability) 의하여 개발되고 있다. Data Design System사는 IFC의 개발에 관여를 하여 왔다. Data Design System은 무료의 IFC 모델의 뷰어를 개발하였으며, 이는 3D 모델 데이터 호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0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1. 응시자격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사법부칙 제2조(2급건축사에 관한 특례법 제324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건축사법시행령부칙 제2조(대통령령 제987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시험과목	가. 건축사예비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법규 (객관식 선택형) 나.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 건축계획, 건축구조 (객관식 선택형)
3. 시험일자, 시험장소	가. 시험일자 : 2006년 6월 25일(일) 나. 시험시간 및 장소 : 2006년 6월 13일(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4.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받습니다. 1. 기 간 : 2006. 4. 17 ~ 4. 26 (시작일 09:00부터, 평일(토·일포함) 00:00~24:00, 마감일 18:00까지) 2. 방 법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ia.or.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건축사시험응시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3. 기 타 : 응시수수료(35,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결제이용수수료)이 소요됩니다.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자는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합격예정자 발표 및 제출서류	가. 합격예정자 발표 : 2006년 7월 5일(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대한건축사협회 및 각 시·도 건축사회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 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 1. 접수기간 : 2006. 7. 11 ~ 7. 14 (평일 09:00~18:00) 2. 제출서류 - 응시표사본, 주민등록초본, 학력(재학)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며,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 - 호적초본, 갈라사진2매, 2급건축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 합격예정자에 한함)
6. 응시자 주의사항	○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2006. 6.24)까지입니다. ○ 시험당일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사진 1매,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고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응시표를 재교부 받아야 함.) ○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용 수정용인펜을 지참하고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 후에는 시험장에 절대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실 내에서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소지할 수 없으며, 흡연·담화·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합니다. ○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시험답안지의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답안지는 일체 열람·확인할 수 없습니다. ○ 부정행위자는 건축사법 제15조의2에 의거 시험을 무효로 하며,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 4)이나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02-2110-8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사예비시험 및 건축사자격특별전형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공고문

건축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5월 12일
 건 설 교 통 부 장 관
 대한건축사협회 회 장

구 분	건 축 사 자 격 시 험
1. 합격예정자 명 단	별 첨 ※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자격 및 경력에 대한 심사 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
2. 제 출 서 류 접 수	가. 제출서류 접수기간 : 2006. 5. 16~5. 19(09:00~18:00까지) 나. 제출서류 접수처 : 대한건축사협회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3. 제 출 서 류	가. 3과목 합격자 ※ 전년도 과목 합격자로서 금년도에 최종 3과목이 합격된 자는 아래의 서류 중 1)응시표사본 1부, 3)호적초본 1부, 7)갈라사진 2매, 8)우편봉투 1매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응시표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호 적 초 본 1 부 : 본적, 호주가 명시된 것. 4) 졸업증명서 1 부 :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발행일자가 명시된 것. 5) 경력 증명서 1 부 :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06. 3. 18)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6)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건축분야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7) 갈라사진(반명함판) 2 매 : 사진 뒷면에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 8) 우편봉투 1 매 : 수취인 주소, 성명, 우편번호 기재(우표 미부착) 나. 과목 합격자(2과목 또는 1과목 합격) ※ 전년도 과목 합격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응시표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졸업증명서 1 부 :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발행일자가 명시된 것. 4) 경력 증명서 1 부 :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일의 전일(06. 3. 18)까지로 하며,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5)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 건축분야기술사·기사·산업기사 및 기능사 자격증, 외국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 외국건축사자격을 소지한 자 중 건축설계1, 건축설계2를 합격한 자(전년도 과목합격 포함)는 3과목 합격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 2006. 6. 21(수) 본회 및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 예정 나. 자격증 및 자격수첩 교부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고
5. 주의 사항	○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심사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합니다.
6. 기 타	○ 시험성적열람은 06. 5. 12 ~ 5. 18 인터넷 홈페이지(http://exam.kira.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 시험성적은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시험답안지 및 채점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02-581-5711~4)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02-2110-8548)으로 문의바랍니다.

<2006년도 건축사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 3과목 최종합격(전년도 과목합격자 포함)

00035	최주성	00107	김현아	00139	엄태성	00438	공웅일	00446	김유경	00479	신동희
00627	강혁진	00755	신병호	00972	남효정	00996	한조동	01056	권희호	01220	김용현
01339	조창덕	01350	김민우	01393	송은정	01458	임철환	01463	이대진	01571	정명주
01595	서동준	02112	강남용	03249	조영학	06193	오장환	06228	김남현	06280	임흥순
06367	조미정	06501	김민수	06527	이종혁	06570	조시연	06578	성유석	06590	고정순
06612	김천우	06624	이정남	06635	홍승규	06667	이재하	06706	이응석	06813	안기성
06862	최윤영	06875	남궁영	06902	김태성	06904	오영균	06934	서정석	06979	김용균
06990	신구섭	07037	김종우	07058	류병욱	07223	박문수	07238	이재만	07435	김태순
07480	정봉찬	08068	원명숙	08152	천진우	08645	박성만	08789	이재익	09029	유재근
09030	김수진	09034	윤현기	09038	하임수	09041	최종찬	09097	임준혁	09098	류성필
09099	고영목	09109	강태웅	09113	곽진구	09121	한종규	09145	정낙현	09153	김장섭
09164	길윤경	09173	이상석	09182	김성재	09195	송영팔	09211	박미영	09216	김동훈
09233	이병호	09237	한민수	09239	김창중	09283	나민수	09289	양창렬	09308	김경태
09319	한수원	09330	나한성	09342	김지선	09363	이윤정	09367	안수연	09383	정진섭
09389	황병완	09410	김무홍	09420	박종혁	09444	이정민	09452	정태영	09456	김영규
09465	고광식	09476	전용해	09493	유영욱	09495	김승욱	09498	이현진	09512	김충기
09522	김찬길	09523	이선경	09524	박기원	09526	정성현	09527	황정화	09539	이희선
09545	이동호	09554	이명호	09567	김지호	09568	김금석	09571	김택빈	09572	정소영
09576	정윤식	09582	강호운	09593	오필록	09608	류무열	09609	방인섭	09616	이수미
09629	채순화	09630	김진성	09645	이광준	09652	김명기	09658	정재룡	09659	이윤창
09712	전선미	09721	손정민	09733	임은정	09764	신재건	09779	이승원	09795	맹성윤
09801	김현주	09808	김관규	09818	신동준	09830	이능원	09854	박지용	09856	안성철
09857	김남혁	09881	이완철	09883	최장영	09890	박은미	09895	김희정	09905	이은성
09907	김명숙	09909	김수진	09910	김진상	09922	손 욱	09927	오종상	09928	이정륜
09937	김팽식	09943	김유경	09952	이평주	09956	정은영	09962	최진웅	09964	정달원
09966	이운기	09969	김윤철	09971	서지영	09973	이진호	09977	김도영	09990	김현우
09992	이기환	09998	황하석	10768	정상호	10989	남상환	16584	김일호	16997	서성덕
17282	한영숙	17410	송영일	19205	이상민	19328	정연호	19497	이승재	19528	윤지형
19561	노혜영	19604	최해천	19668	이철용	19709	김주상	19975	권두혁	21665	윤석진
21671	김은영	26723	우병용	26872	문정원	26972	전남진	27075	김기태	29382	곽창섭
29587	김기범	29593	김종명	29654	하정수	29680	정현욱	29750	이성배	29808	장용수
29998	최성민	31530	김유신	36064	신태용	36550	정광수	36801	진수성	36881	오순철
38291	민남기	39088	하기성	39147	최봉휴	39211	정효준	39218	이현조	39241	강낙훈
39433	문현희	39513	황현하	39565	김경은	39610	문인호	39664	박현진	39815	박종호
39818	강성일	39861	범 정	39866	정용균	39925	노동호	39948	강석도	39971	추현호

□ 2과목 합격

○ 대지계획, 건축설계1

00639	강춘호	00707	정현석	01066	윤재중	01153	박순미	01933	민경원	10523	성출기
21755	김형규	31749	손주열								

○ 대지계획, 건축설계2

00333 이승무	00797 오호봉	01238 유연숙	01240 오성진	01300 정재훈	01574 유철수
01740 이후성	01745 권혁대	01871 황만택	01966 최길림	03945 이주리	21530 김정찬

○ 건축설계1, 건축설계2

00171 최여경	00220 이기원	00260 이한모	00582 양희존	00708 이규호	00815 이종근
00907 이윤규	00968 류근의	00969 고정만	01128 김동현	01222 정현석	01355 이태영
01536 김기창	01780 전윤덕	01781 김영석	01932 김정훈	01967 구분관	01986 이재웅
02191 정미영	02377 함은아	02604 허택진	03187 박혜경	03812 오기석	11125 강신도
11696 이철식	20312 이종관	30651 정재성	31476 정원석		

□ 1과목 합격

○ 대지계획

00005 김성수	00038 김성수	00051 박완순	00060 조용철	00066 김종일	00145 임희정
00169 이범신	00287 정상근	00368 이규홍	00534 주동완	00660 김광수	00725 이순형
00861 김승범	00881 이소연	00884 정현성	00914 정미조	01027 양동권	01084 이상기
01086 이지은	01194 최인철	01253 김태현	01266 정수현	01271 최일광	01354 이지은
01438 김춘래	01441 김상언	01451 김기정	01671 서동일	02648 허철한	02703 박형환
03814 황원서	03830 박상진	06030 채석중	06078 최현영	06095 한용목	06143 이장무
06147 방재성	06158 송기황	06166 광양자	06204 정용길	06232 신미경	06257 류재웅
06268 이우영	06333 서동곤	06371 오강석	06434 강하룡	06444 김상식	08139 박기석
08155 성기배	08184 이준희	08266 한종훈	08282 김용선	08284 김형준	08341 우성웅
08383 이희정	08413 이진경	08485 고순만	08500 주영환	08564 서광우	08619 인정환
08641 허성희	08690 양원혁	08802 이용일	08837 이효범	08848 박민주	08856 이종성
08863 박효종	08920 오지현	08928 이상민	08935 구 · 혁	08967 이주원	08978 김진환
11890 이상찬	11970 김상복	18298 정순재	18963 김상진	20549 김수정	20630 권중숙
21093 김홍태	21583 이해원	21964 김용수	26147 하성목	26316 최영호	28574 허영재
30764 한만호	31118 조연수	31157 염경식	31512 이재중	36192 이재현	38487 오치광
38511 박종영	38586 김선홍	38750 강석관	38797 백수현		

○ 건축설계1

00044 홍순만	00050 장명희	00103 김용국	00112 강동주	00126 이동화	00141 이진우
00167 정귀용	00200 김도우	00214 강희정	00275 천세봉	00278 광용재	00302 조용호
00360 최재원	00362 이용희	00393 심규훈	00405 김주황	00423 고군석	00426 전병욱
00441 최승돈	00457 박원배	00482 양우진	00487 문부훈	00493 유현선	00506 이경환
00575 호대혁	00592 정기홍	00601 정진호	00649 김민선	00653 오은정	00662 이병찬
00700 이정호	00717 김용우	00739 이선미	00796 정민구	00819 이대영	00865 박경룡
00872 황장선	00876 박재운	00887 이상호	00918 이래정	00928 김정은	00929 박민수
00943 홍승섭	01015 양덕희	01017 김대용	01020 김재학	01025 홍선희	01062 윤영길
01079 이민석	01141 김병구	01185 김정곤	01192 박태식	01193 조수미	01261 원금희

01302	조현범	01322	이동수	01326	조용학	01333	이정환	01351	용웅식	01365	김순집
01368	강희선	01381	안영옥	01387	김태환	01407	윤귀호	01420	고명호	01446	박종현
01452	김정란	01471	오소민	01484	백선영	01491	최순섭	01497	김대중	01505	성기수
01534	김석용	01558	박상옥	01575	오연경	01584	한동석	01606	유영희	01616	김대용
01625	손종근	01655	김광일	01662	배상운	01670	김종현	01688	권병곤	01702	김병우
01715	민병국	01716	이용주	01735	이원철	01756	조성현	01762	김태형	01766	정환성
01777	박동근	01789	주 성	01807	황준호	01823	조석훈	01852	김윤석	01864	윤성중
01901	조찬목	01917	이중학	01929	이 선	01930	한기용	01950	유재홍	01951	유은정
01952	변치중	01971	김대동	02142	박종민	02218	배병철	02298	강 석	02543	손승우
02607	허진성	02685	류선자	03053	김창환	03083	최 호	03175	김한규	03284	서민훈
03293	김상동	03373	조호균	03448	류웅열	03551	박기동	03566	박성일	03623	유종수
03627	김남수	03628	오민수	03643	안일정	03729	유 선	07080	김진복	07111	윤태웅
07179	김영석	07227	김복열	07337	김병철	07390	김중인	07618	정재춘	07694	이현승
07792	유승호	07816	김남식	07822	권영근	07854	김한아	07882	이연복	07898	전용식
07917	김형만	07941	김병관	07973	이현재	08022	왕창수	08045	김주연	08089	김 현
08127	한대용	08130	김혜영	08132	이은호	08134	이수영	08142	나정운	08170	윤선영
08171	황세준	08175	전세덕	08190	김범중	08195	배연수	08234	고용수	08241	전영오
08245	성주제	08250	양동익	08268	이길도	08269	주양규	08309	남준희	08320	이세영
08330	신관철	08339	김태엽	08361	장은영	08367	이택근	08491	김경순	08499	신귀현
08513	신상준	08553	임희상	08558	정경숙	08567	강동수	08616	안현정	08624	이동식
08635	이범진	08663	윤재환	08673	김윤환	08691	유종욱	08711	심명철	08730	김종익
08733	이승태	08766	이대선	08768	하상훈	08843	김용이	08868	박동현	08882	한현석
08892	이희경	08902	김동열	08924	신청수	08936	이명오	08937	황규진	08946	김영기
08952	최영식	08960	김진기	08961	박문신	08999	정연기	10183	이재희	10247	김인용
10265	정남선	10375	황성태	10440	박성열	10449	이상호	10602	김현석	10714	박태후
10773	정병선	10816	최신국	10925	이정민	11116	임재현	11144	김용국	11187	공용훈
11384	조은주	11468	김기범	11572	하대인	11596	김원일	11657	김윤아	11877	김창민
11999	이대석	17001	박민수	17212	안태금	17250	송석호	17378	김덕성	17496	송현석
18140	허원석	18155	박종원	18305	김남국	18490	이성일	18568	한전기	18593	강문철
18693	이수명	18796	서승극	20325	백혜원	20540	강봉찬	20629	지창호	20722	정길수
20803	성호근	21153	이도경	21221	윤찬윤	21345	금영도	21362	이성도	21457	신일진
21639	양진욱	21785	김용섭	21829	손대운	21850	이상문	21904	박몽섭	21952	김태완
21960	박기범	27103	김도수	27278	허영원	27719	우창호	27975	최승모	28059	김치년
28439	고경환	28476	남상철	28536	박태환	30148	윤미숙	30181	김태영	30257	정영법
30319	홍성운	30357	황민하	30422	이성연	30446	배예환	30601	정선영	30798	남정록
31036	김영일	31057	도한영	31210	윤종석	31260	장영호	31368	김희란	31636	심학택
31667	김형환	31849	이도산	31956	김형준	37077	온혜영	37169	신정훈	37793	김효중
38013	구국현	38045	최진목	38056	김익희	38138	유형두	38231	황선대	38237	이승현
38248	서봉욱	38472	박영국	38669	윤경희	38778	조용섭				

○ 건축설계2

00018	국현아	00029	안주만	00055	천종만	00064	장근순	00097	김창수	00104	정명수
-------	-----	-------	-----	-------	-----	-------	-----	-------	-----	-------	-----

00120	박판수	00124	송치환	00130	김제관	00132	이상현	00155	신규식	00173	박경관
00207	이종성	00218	노은희	00284	반병재	00309	김호정	00324	이태호	00325	최만억
00340	강한성	00453	조광철	00481	남용희	00485	최영석	00588	홍민기	00606	박종욱
00611	어지선	00624	김용호	00647	박상규	00658	김명수	00672	양동수	00684	이재영
00685	김운태	00694	한형욱	00710	홍성원	00716	박해영	00719	마은아	00774	이상호
00795	백창환	00801	김종원	00809	허 한	00813	양우균	00826	이상운	00836	강준성
00853	유명순	00855	김명근	00858	유완종	00859	박병훈	00906	박현모	00924	이종선
00932	유연교	00942	곽연호	00947	박구완	00980	조대근	00984	차상모	01016	김영민
01031	이익수	01051	정문환	01061	변승철	01064	최오봉	01067	홍창표	01085	김정환
01115	정은아	01160	문진수	01174	성정일	01204	이승재	01224	박종범	01260	김규성
01276	안효진	01287	강익수	01296	유대웅	01312	차배환	01324	최상준	01428	배금아
01448	박수혁	01462	강신태	01465	이승훈	01488	배승오	01495	박지영	01510	이경철
01535	권준규	01544	정순호	01585	유수철	01633	김지현	01634	홍종배	01646	공진표
01679	이승훈	01697	최재영	01743	김병학	01746	전보영	01747	권영일	01798	이승대
01830	이재혁	01876	박홍근	01892	정지봉	01938	정조일	01953	방희정	01954	전창배
01955	오세갑	01985	방성엽	02030	장지호	02054	강성암	02078	박봉준	02284	김종철
02381	류공식	02387	이성호	02453	이희찬	02488	김 철	02514	김유연	02515	배성록
02599	정일입	02661	김태현	02818	임승남	03105	심상철	03156	임경국	03205	김창수
03252	박용식	03253	임주현	03260	이종선	03316	유승일	03376	김형대	03378	유정환
03392	윤기성	03395	김철우	03414	양재영	03465	공만호	03774	이영창	03965	이정봉
03981	문용주	06009	황정열	06013	우병호	06015	박재성	06027	박혜정	06057	유재정
06059	김현석	06074	최용현	06084	김도훈	06105	신충환	06212	이종숙	06218	김창섭
06239	이원우	06244	조은석	06264	이상열	06265	김대성	06326	박정양	06335	박성숙
06361	박성철	06374	석순주	06397	이승규	06402	조상환	06429	윤성민	06443	강민구
06479	오명훈	06494	김영배	06497	이승훈	07057	고상규	07114	조원형	07115	김성호
07146	장대원	07184	안순용	07193	이성섭	07194	김응호	07230	배익성	07296	서무현
07303	정연거	07315	노순석	07347	김은미	07371	서영주	07373	김재문	07415	김필식
07572	김진근	07602	박관영	07612	강성철	07678	김두경	07702	변정훈	07706	강신명
07844	하상금	07858	박준섭	07869	김종범	07875	양수웅	07896	표세능	07903	김학규
07924	이재철	07974	방일석	07995	최재형	10155	박재영	10166	황영호	10175	박경원
10261	김정하	10343	오세봉	10383	강석진	10389	정진우	10483	이현기	10581	박수정
10692	김영옥	10693	이정훈	10756	유명주	10804	장기연	10829	정안채	10859	윤병도
10911	남승복	10965	김종백	11056	박재현	11067	황수근	11137	박정곤	11286	서성곤
11376	윤영철	11427	천일원	11522	정영삼	11773	이상규	11940	문정이	16430	손만오
16447	하수성	16492	정종태	17097	김윤화	17150	서익환	17372	박미경	17902	최동률
20181	민정식	20359	김희찬	20604	강정수	20665	이훈우	20847	김한진	21344	변문근
21616	최준학	21778	윤용식	26035	박도호	26058	정재준	26282	신영철	27150	이정삼
30039	김광식	30068	김광천	30110	윤문수	30307	김대운	30341	양기철	30360	류충렬
30373	안병일	30382	조호준	30713	천준필	30753	이병재	30782	박항수	30879	최성수
31131	오기진	31222	김승환	31360	전홍주	31798	김성중	31896	박미라	31915	이경아
31938	최병구	36018	이은영	36427	김수진	36455	서지훈	36476	김윤석	37436	주병준
37579	조원철	37586	김은희	37881	신정호	37975	이선룡				

신건축

2006년 1월호

이번 호에
서는 이토오
토요가 작년
'TOD'S빌딩'
에서 보여준
구조와 표피
가 일치된 형
식의 건물인
'MIKIMOTO



Ginza 2',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공장시설인
'록 필드'의 시즈오카 및 고베의 공장 등이
눈에 띈다. 동경대학 교수인 후지모리 테루노
부의 온천장 건축인 '라무네 온천관'이나 우
즈미 토모유키+구웨나엘 니콜라가 설계한
스튜디오 겸용주택 C-1도 흥미로운 작품들
이다.

■ MIKIMOTO Ginza 2

(설계 : 이토오 토요+다이세이건설)

'MIKIMOTO Ginza 2'는 이토오 토요가 설계한
'TOD'S 오모테산도 빌딩(2005)'과 마찬가지로 스
트럭처 자체가 그대로 파사드를 형성한다. 9층으로
높이 50m를 넘는 도심의 빌딩에 있어서 커튼월시
스템을 채용하지 않고 스트럭처가 표층을 형성하
는 예는 참으로 흔치 않다.

이 건물이 'TOD'S'와 다른 점은 'TOD'S' 빌딩
의 스트럭처는 노출콘크리트로 만들어진데 반해
여기서는 철판콘크리트구조, 다시 말해 두 장의 철
판 사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이 시도되었
다는 점이다. 철판을 사용하기 때문에 벽두께는 겨
우 20cm밖에 안된다. 여기서 외벽의 철판은 도장
마감을 한다. 이 방식에서 어려운 점은 높은 곳에
서 불량없는 현장용접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에
서 행해지는 도장 또한 얼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점이다. 줄눈 없이 평탄하고 매끄러운 표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까다로운



MIKIMOTO Ginza 2

수작업을 필요로 한다. 'TOD'S'의 경우에도 마찬
가지였지만 결국 시공자의 기술과 사명감이 작품
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설계자인 이토오
는 이런 점에서 이번 작품의 현장 엔지니어들에게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이처럼 어려운 난제를 무릅쓰고서라도
왜 스트럭처와 건물의 표면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도 단순한 모양이 아
니라 각기 다른 형태와 크기를 갖는 개구부를 다자
인해 놓고 말이다. 그것은 커튼월에서는 얻을 수 없
는 스트럭처의 강인함을 표현하고 싶어서라고 이토
오는 말한다. 20세기 건축에서 계속 생산되어 왔던
균질함에 대한 대항으로서 보다 표정이 풍부한 건
축을 추구하는 것이다. 건물의 몸체가 파사드를 이
루게하는 방법은 이 건물이 설계자의 표현의 장을
파사드에서 밖에 구할 수 없는 상업적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정말로 절묘한
건축적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C-1

(설계 : 우즈미 토모유키+구웨나엘 니콜라)

도심의 주택지에 서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이
건물은 디자이너인 건축주를 위한 주거겸용 스튜
디오이다. 설계자의 역할은 건축주의 공간적 시나
리오를 건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기능이나 장소의 고유성보다도 우선되는 명확한



C-1

전체성이 요구되어지는 가운데 먼저 건물의 내측에서부터 발생하는 공간이 직접적으로 건축의 형태가 되는 방법론이 검토되었다.

인테리어를 단순히 건물내부의 마감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건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요소로서 중요한 것이 외주부를 따라 배치된 경사진 회랑이었다. 그곳이 돌아가도록 만든 이 동선은 이동행위를 인테리어의 주요한 공간으로 승격시킬 뿐만 아니라 공간정위의 지각에 변화를 발생시키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SI방식(Skeleton-Infill 방식: 건물의 골조가 주어지고 그 공간에 자유로이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것)과는 달리 인테리어(건물 내측)로부터 시작되는 건축을 지향했지만 이는 단독주택에서는 그리

생소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아니다.

그러나 건물의 외주부를 돌며 올라가는 이 회랑(램프)을 따라 4개층에 걸친 주택 공간에 대한 수직적 체험은 극도로 얇은 슬라브에 의해 신선했을 안겨준다. 램프를 통해 건물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공간은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슬라브의 두께를 최대한 얇게(두께 25mm 스틸 패널)하여 위·아래층을 구분하는 슬라브가 표리일체의 관계에 놓이게 하였다. 슬라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공간은 회랑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층마다 다른 공간 구성을 보여 연속성과 단절성의 양면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 이들의 작품이 돋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배려 때문일 것이다.

a+u

2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콘크리트 건축'이다. 여기서 콘크리트 건축이라 함은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을 의미한다. 1960년대 말 이후 그 사용이 적어지기 시작한 노출콘크리트는 1990년대 이후 다시 부활하였다. 자하하디드의 작품을 비롯한 최신작들을 통해 오늘의 노출콘크리트 건축의 특징을 알아보고 그 경향을 살펴보는 구성이다.



■ 노출콘크리트 건축의 부활

근년의 콘크리트 건축을 평론하고자 하면 오

늘날 콘크리트의 사용방법은 무엇인가 새로운 점이 있는가 하는 의문과 마주하게 된다. 20세기에 확립된 건축에 있어서의 콘크리트가 갖는 통상의 사용법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행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 최근 10년에서 15년 사이 콘크리트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논의는 거의 보기 힘들며, 우리들은 그 해답을 완성되어 있는 건축물에서 찾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것이다.

콘크리트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20세기의 초반에는 콘크리트가 건축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 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같은 기대는 1960년대에 이르러서 더욱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었으며, '콘크리트 건축'은 명확히 구분된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인식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시 되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1960년대의 초두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축이 그 외의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건축과는 다르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일본의 건축사 단계겐조는 1950년대 후반에 미스 반 데 로에와 회담하며 철과 콘크리트의 차이는 무엇이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미스는 '양자(兩者)는 근원적으로 같다'고 답했다. 이것은 단계겐조에게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었다. 직접적인 않지만 프랑스 구조합리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단계에 있어서는 커다란 쇼크였으며, 그것도 기술에 대해 철저하다고 알려진 미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데 더 큰 놀라움이 있었다. 이와 같은 대답을 했던 미스는 인생의 끝을 맞이해 가면서 건축작품의 질은 그것이 만들어지는 소재와는 별개라는 생각에 다다랐던 것 같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흐른 지금, 사람들은 미스의 발언을 그다지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며, 콘크리트는 여러 건축의 소재 중 한 가지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초부터 가져온 재료와 건축형태에 관한 관념, 즉 건축의 소재는 그것이 만들어내는 건축을 규정짓는다는 생각은 아직 남아 있는 듯 하다. 우리

는 아직 ‘콘크리트 건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 콘크리트의 노출과 숨김

‘콘크리트 건축’이라는 용어는 콘크리트가 노출된 건축을 지칭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전 세계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을 다 ‘콘크리트 건축’이라고 일컫지는 않는다). 최근 콘크리트 건축의 부활이라는 것도 노출콘크리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콘크리트는 노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숨겨져야(다른 치장재에 의해) 한다는 주장은 서로 엇치락뒤치락하며 이어져 왔다. 콘크리트의 선구자 오키프의 작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가 처음 사용되던 20세기 초에는 콘크리트는 숨겨져야 할 재료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초두부터 콘크리트가 노출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향이 전환된다. 이 같은 경향은 뮌헨의 알베르트 슈피어의 작품등에서 잘 보여졌으며, 1950년대와 60년대의 브루탈리즘에 의해 다시 한번 반복되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보편적 소재로서 콘크리트를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한 반동이 일어나 이후 이어지는 20년 동안에는 석재나 유리, 혹은 금속의 외장 시스템으로 콘크리트를 숨기는 경향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노출콘크리트는 1990년대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 최근 노출콘크리트건축의 두 가지 특징

1990년대 이후의 (노출)콘크리트 건축은 1960년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날의 경향은 적어도 2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크게 다르다. 첫째로 노출콘크리트는 현재 주로 실내의 인테리어 마감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5, 60년대에는 건물의 내·외장재로 사용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외장재로서의 사용은 드문

편이다. 콘크리트 표면의 오염 등 잘 알려진 외장재로서의 노출콘크리트가 갖는 문제점들을 피하기 위해 외피는 유리나 다른 재료로 감싸고 내부에만 노출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노출콘크리트는 건물의 일부분에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건물 전체를 노출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노출되고 일부는 숨겨지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콘크리트를 그 밖의 다른 재료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그와 같은 사용법은 콘크리트가 완전한 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자, 보편적인 소재라는 주장을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건축사들은 콘크리트는 건축의 궁극적인 완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재로 인식했으며, 콘크리트의 구조가 갖는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구조적 모험과 실험 또한 감행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건축사들에게는 이와 같은 콘크리트에 대한 맹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콘크리트는 경이롭고 도전적인 구조물을 만들어 보여주는 데 사용되기 보다는 밀도와 매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데 더 자주 사용된다(최근의 구조적 실험은 콘크리트가 아닌 경량한 소재의 사용에 관한 것이거나 혁신적인 외피시스템의 개발 등에 집중되고 있다). 콘크리트라는 재료에 매료되어 콘크리트의 보편성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5, 60년대의 건축사들과 달리 오늘날의 건축사들은 콘크리트를 여러 재료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오히려 콘크리트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면의 마감이 말할 수 없이 매끈한 것에서부터 매우 거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와 같은 경향을 말해주는 하나의 예이다. 우리들은 얼마지 않아 ‘콘크리트 건축’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다른 재료로 이루어진 건축물과는 다른 것으로 여기는 일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른다.

■ 작품의 소개

이번 호에 소개된 작품은 위와 같은 오늘날의 콘크리트 건축의 현주소를 잘 말해주는 작품들이다. 자하 하디드의 ‘폭스부르크 파에노 과학센터(Phaeno Science Center Wolfsburg, 독일, 2005)와 모쉬 사피디의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Holocaust History Museum at Yad Vashem, 이스라엘, 2005)’ <사진3> 등은 노출콘크리트건축의 부활을 알리는 듯한 작품들이지만 이들에게는 5·60년대 건축사들이 가졌던 콘크리트에 대한 종교적 맹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마실라+투넵 아키텍츠의 ‘MUSAC <사진4, 5>은 외벽에는 콘크리트 위에 컬러 유리를 부착하였으며 내부에만 콘크



폭스부르크 파에노 과학센터



야드 바셈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

리트가 노출되는 사례이다. 하프나겔 피츠 라파엘 아키텍츠의 ‘라이프치히 파인아트 미술관(독일, 2004) 또한 거대한 노출콘크리트 매스의 표면 위에 경량의 철골 격자를 부착하여 시각적으로 이중의 외피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스튀디오 카르메 피노스의 ‘큐브 타워(멕시코, 2005)도 노출콘크리트 표면 위에 목재 루버를 부착하여 콘크리트와 다른 재료와의 혼합된 외피 구성을 보여주었다. 콘크리트 표면의 다양한 재질감 표현도 눈에 띄는 부분인데, 모리야미&테시마 아키텍츠와 그리핀 랭킨 쿡 아키텍츠가 공동 작업한 ‘캐나다 전쟁 박물관(캐나다, 2005)에는 다양한 종류의 마감 처리가 한 건물 안에서 사용되었으며, 아르테고 메니스 파스트라나의 ‘마그마 아르테 & 콩그레스스(스페인, 2005)는 거푸집의 나뭇결을 살리되, 벽체마다 서로 다른 방향

으로 배치했으며, 일부는 정으로 쪼아내어 거친 느낌을 살렸다. 그러나 역시 콘크리트가 갖는 조형의 자유로움,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로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조적 도전은 여전히 건축사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후스토 가르시아 루비오 아키텍츠의 ‘카사르 데 카세레스 지역의 버스정류장(스페인, 2003)이나 smarch의 ‘쾰른베르 신사도(新使徒)교회’ 등을 비롯하여 위에서 언급된 많은 작품들이 콘크리

트가 갖는 조형성을 십분 이용하고 있어 여전히 콘크리트는 건축사들에게 매력적인 재료가 아닐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카사르 데 카세레스 지역의 버스정류장



캐나다 전쟁 박물관



musac

SLAB공사에 SUPPORT가 없다?

‘SPANCRETE’를 이용한 None Support공법



‘SPANCRETE’라는 후판(厚板)의 대형 Hollow Core Panel은 고강도의 Concrete제품(40Mpa)으로서 대형 SPAN의 SLAB용으로 적합하여 공간활용에 매우 유리하고, PC강선이 Pretension된 제품이므로 중간 지주(支柱)없이 상부작업이 가능한 특화제품이다.

• SPANCRETE란?

미리 당겨진 PC강선위에 자동성형기(Extruder)에 의하여 1.0m 또는 1.2m의 규격화된 폭으로 길이 180m씩 생산되는 속빈콘크리트 패널(Hollow Core Panel)을 말한다. PC강선의 인장력과 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력에 의하여 높은 강도를 가지며 길이는 필요에 따라 절단 사용 할 수 있다.

• SPANCRETE SLAB 적용사례

- 공공시설 인천공형여객터미널
- 체육시설 _ 전주월드컵경기장, 광명경륜경기장
- 대형판매시설 양재동 하이브랜드
- 물류 및 냉동창고 용인 SLS 물류센터, 서이천냉동창고
- 각종 공장 부천 APT형 공장, 인쇄공장(교학사, 영림인쇄)
- 주차장 건설화관 옥외주차장, 강남자동차 매매센터 전시장

강남건영(주)

Tel. 02-580-6150~5 | www.kngy.co.kr

오버헤드도어(OHD)가 소음을 먹는다

하나기공 흡음사양 Overhead Door



다양한 재질의 오버헤드도어를 생산하는 (주)하나기공에서 최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출시한 흡음 및 차음사양 OHD는 제조공장, 변전소, 발전소 및 엔진테스트 룸 등 소음발생 산업시설을 겨냥, 개발되어 탁월한 흡음 및 차음성능을 발휘하며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패널 내부를 불연재인 Glasswool로 충전하여 내화성능도 겸비하고 있는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제품으로 그 효용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차세대 산업용 도어이다.

- 패널: 외면 Steel+내부 Glasswool Core+내면 Steel 타공판 샌드위치
- 패널 두께 50mm, 75mm
- 흡음 및 차음성능
- 흡음성능: NRC 0.60 이상
- 차음성능: STC 50dB 이상
- 내화등급: 난연 2급
- 용도: 소음발생이 심한 공장, 변전소, 발전소 및 기타 제조 및 산업시설

(주)하나기공

Tel. 031-677-5114 | www.hanadoor.com

불연 바닥 마감재 ‘하이테크카치온(K-TOP)’

무기질계 바닥마감 - 한국케미칼카치온(주)



하이테크카치온(K-TOP)이란 인조석(테라조) 물갈기의 단점인 많은 공사기간의 소요와 찌꺼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보완하여 대체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케미칼카치온(주)이 공동 개발하였으며, 무기질계 불연바닥재로 공정의 단순화로 빠른 시공과 대리석 질감의 뛰어난 외관을 유지 할 수 있는 공법이다.

- 재료_ 규사+시멘트+특수합성수지+물 (무기질계)
- 적용장소_ 공동주택, 아파트 등 각종 건축구조물의 복도 및 계단바닥 및 사무실, 상가 바닥
- 시공방법_ 스프레이 공법
- 특징_ 난연 1급 바닥재로 불연 자재의 시공이 법제화 된 피난계단에 시공이 가능하다
- 시공 도막 두께_ 1.5mm - 3mm

한국케미칼카치온(주)

Tel. 02-529-4904

원목 창호 마감재 ‘루버셔터’

슬랫 조정 간편하고 사생활보호 등 다용도로 사용



루버셔터는 창호마감재로서 기존의 고정식 갤러리 도어와는 달리 슬랫이 움직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의 간단한 조작으로 개폐 및 좌우 이동이 용이하며 슬랫의 조절만으로 사생활 보호, 빛의 양과 각도의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파티션이나 모든 도어의 역할을 겸하므로 창문외에 베란다, 파티션등 여타 모든 부분에도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요즘 인테리어를 할때 있어 환경친화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원목을 소재로 사용하는것도 루버셔터의 장점으로 들 수 있다.

(주)루버셔터

Tel. 02-448-3533

※자재정보 원고모집
건축사 회원과 우수한 건축자재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재사용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gods@kira.or.kr
• 원고내용
— 사진1컷(300dpi 이상)
— 제품정보(원고지 3매 이내)
—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자명 기재

월빙 민속 한지벽지

전통한지 단점 보완해 처지 않고 시공 편리



민속 한지벽지는 우리고유 전통 한지의 단점을 보완 개선하여 처지지않는다. 또한 시공이 편리하게 특수합지 가공처리된 길이 18m Roll로 제조되었고 다습한 기후에 자동습도 조절력이 강하여 실내공간이 쾌적할뿐 아니라 건강에 좋고 최초의 한지를 다용도로 개발한 국제환경 규제에 대비한 재활용제품입니다.

제품에는 고구려 기상을 대변한 고구려 수렵도벽지와 농자전하 지대본야, 실물낙엽벽지(실물낙엽인 대나무잎, 단풍나무잎, 은행나무잎 등 자연잎을 벽지안에 실물 삽입 시공), 실물향토도벽지(원적외선 다나무표피와 방사율이 좋은 향토를 섞어 합지한벽지), 실물향토온용벽지(향토벽지 일반한지에 향토를 섞어 합지하여 원적외선 방사율이 높다) 등이 있다.

• 규격 : 90cm(넓이) × 18m(길이) 1 Roll 5평단위

민속한지

Tel. 02-587-9596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곳 3세대 창호 문화, AHC복합시스템창

국내발명특허, 국제특허 · GR마크 획득



• AHC복합창이란?
방음, 방풍, 단열이 우수하고 다양한 제품(미서기창,각종 시스템창,커튼월)으로 품격있는 인테리어 연출을 추구하는 현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대 감각에 맞는 창호로서 고강도 알루미늄과 결합된 폴리스틸렌(PS)단열재가 열전도를 차단하여 단열성이 탁월하고, 내측면에 결합된 폴리스틸렌(PS)단열재가 알루미늄의 열전도를 차단하여 물방울 맺힘(결로)현상을 방지한다.

창틀과 창짝사이에 방풍 차단캡 장착으로 인한 밀폐기능으로 단열, 방음 이 우수하고, 알루미늄프로파일과 폴리스틸렌(PS)단열재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열에 의한 수축팽창이 없다.

• 주요생산제품

미서기창, 이중미서기창, 고정 및 미서기창, 발코니전용창, 폴다운,프로젝트창, 오르내리기창 시스템창제품군(L/S, T/T, T/L/S), 학교창, AHC커튼월, AHC도어, AHC방화문, AHC루버창

(주)점보AHC복합창

Tel. 02-558-6271~3 | www.jumboahc.com

도자기로 마감한 예술공간

분청사기도판 - TOKA



분청사기도판 TOKA는 전통분청사기를 전통제작기법 그대로 제작하여 평면화시킨 도자예술을 건축마감재로 산업화한 세계 최초의 제품이다. 수 백가지의 기성문양 이외에 어떠한 주문 디자인도 제작이 가능하여 주문자의 요구에 맞는 최고의 예술적, 미적 공간을 연출할 수 있고, 100%의 순수 점토로만 만들어져 각종 오염물질 및 공기 정화, 항균, 항곰팡이 기능이 있으며, 많은 다공질의 구조로 소음 감소, 탈취 기능 등의 효과가 있는 최고의 친환경 마감재이다.

• 재료 : 순수 점토 100%

• 규격 : 벽면재 - 296×296×13(T)mm의 주문 SIZE

경보행용 바닥재 - 200×200×30(T)mm

도자블럭 - 230×110×55(T)mm

• 특징 : 다양한 디자인, 주문 제작 가능, 소음감소, 탈취, 항곰팡이 기능, 색상 영구적 보존, “시공 간편, 도면 디자인 제안, 관리상 하자 무료 A/S”

• 용도 : 내/외장 벽면 마감재 - 실내 인테리어마감, 외부 옹벽, 문주, 피로티, 수정시설 등
바닥재 - 경보행용 환경도자 블록, 중보행용 도자블럭

한국민예주) - TOKA KOREA

Tel. 02-576-5454 | www.toka.co.kr

무기질형 세라믹계 아크릴수지 바닥마감재

접착성 우수, 외관상태 양호, 수명이 길다.



무기질계로 형성된 콘크리트 소재에 동질성인 무기질형 세라믹계 아크릴수지 바닥마감재를 사용하므로 부착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수명이 오래간다.

1,200°C 이상의 고온에서 나오는 세라믹 파우더와 특수시멘트, 규사 등 파우더와 수용성 특수아크릴수지액을 혼합하는 제품으로 표면은 강도가 우수하고 도막은 내구성을 양호하게 해준다.

Self Levelling Type으로 개발되어 도포 후에는 평활도가 양호하다.

• 특성 : 신축율, 수분흡수율, 팽창계수의 세라믹계 아크릴수지와 콘크리트가 동질성이므로 접착성이 우수하며 Self Levelling Type 이므로 표면의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건조가 빨라 작업성이 우수합니다.(건조시간 : 25°C에서 6hrs. 도포가능)

• 용도 : 주차장, 공장바닥, 물류창고, 냉동창고, 기계실, 사무실, 복도, 강당바닥 등 기타

(주)중앙케미칼

Tel. 02-701-4296

28년 전통의 모자이크타일 전문기업 ‘월드타일’

일본과 프랑스가 공동 디자인한 제품



월드타일은 28년 전부터 KY TILE, FUJIMI CERAMIC, TOTO TILE 등 일본 굴지의 업체들과 제휴하여 품질 좋고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 프랑스가 공동으로 진행한 디자인에 의해 생산된다.

• 10×10mm부터 200×200m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와 300여 컬러로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페인팅 후 870°C의 고열로 다시 소성해 다양한 컬러 구현은 물론 세라믹 타일에 버금가는 단단함을 갖췄다. 100×100mm, 150×150mm, 200×200mm 등 50여 가지 이상의 모든 디자인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다양한 컬러의 유리 및 세라믹 타일.

• Wing Tile(타타늄 불멸의 타일)
45×45mm, 45×90mm, 필라 타타늄 합금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일명 카멜레온 타일, 고급스러운 색감과 우아함을 자아낸다.

월드타일

Tel. 02-3445-4589

철과 구조과학의 조화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H.M PEB SYSTEM



특수 철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H.M PEB System은 미국 Pascoe사와의 기술제휴와 한맥의 축적된 기술과 경험으로 만들어낸 공법으로 경제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있다.

• 전문 Program과 고강도 특수강재를 사용하여 기존 구조물의 70% 가격으로 제작, 시공한다.

• 4만여평 당사 화성공장에서 자동화된 일괄 공정 System에 의한 대량생산으로 품질이 균일하며 안정적이다.

• 컴퓨터를 이용한 완전 정밀설계 및 제작으로 현장에서의 작업이 줄어 공기단축을 극대화 시킨다.

• 건축미를 고려한 설계와 최첨단 신소재를 사용하여 외관이 미려한 미래형 건축물이다.

한맥중공업(주)

Tel. 02-783-9999 | www.hanmaek.co.kr